

MAXIM



KOREA

VICTIM OF VAMPIRE ATTACK

강예빈



HALLOWEEN SPECIAL EDITION

COVER STORY

욕정 가득한 뱀파이어 수컷들에게 둘러싸인 강예빈의 유혈낭자 충격 화보, 촬영 수위가 높아질수록 피끓는 흡혈남들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다. 이... 이 자식들 진심인데!

MAXIM PARTY

미스 맥심들이 섹시 천사, 악마 코스프레로 클럽 엘루이를 뜨겁게 달구다

HOW TO

호박 랜턴 제대로 만드는 법
좀비의 뇌 요리법

MISS MAXIM FINAL 4

막상막하! 2012 미스 맥심 콘테스트 최후의 4인방이 펼쳐는 할로윈 스페셜 화보

MUSIC

기타의 神 백두산 김도균
MAXIM 스튜디오에서 속주를 펼치다
아이들: 나쁜 연놈들 전성시대
“언제 우리 인간성 보고 좋아했니?”

SEX

빅뱅 승리의 섹스 스캔들
사정의 기술 대탐구
MAXIM 발명 차세대 전자발찌
패륜킹 칼리굴라
여친 유방암 진단법

GAME

KICK OFF! 프리스타일 풋살

2012년 10월호
정가 5,600원

ISSN 2233-4270 바코드는 뒷면에



패션 집착남
정명섭
키스 화보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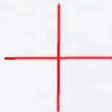


SUPERSTARI

WWW.SUPERSTARI.CO.KR



CONTENTS



86 강예빈

MAXIM이 나온 이후 이토록 많은 독자의 러브콜을 받은 여인이 또 있을까? 착한 가슴, 예쁜 얼굴,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녀와의 은밀한 할러윈 파티 속으로 고! 고!

CIRCUS MAXIMUS

- 16 추석 장거리 여행길 필수품, 오줌이 마려울 땐 이걸 써봐
- 18 MAXIM이 제안하는 차세대 전자발찌
- 20 외국인에게 신라면은 정말 매울까?
- 24 군침 도는 좀비의 뇌 요리법
- 26 호러 특급! 호박 랜턴 만들기
- 28 여친 가슴을 암으로부터 보호하라!

HISTORY

- 31 굿시니스트 교양 만화: 패륜킹 칼리굴라

RATED

- 32 <호빗: 뜻밖의 여정>, 난쟁이 떼가 온다.
- 34 냅다 총질부터 하고 보는 할리우드, 그들의 변명을 들어보자
- 36 나쁜 놈들 전성시대: 신문 사회면을 장식한 아이돌의 M/V
- 38 오래오래 장수하시는 만화들

MUSIC LEGEND

- 42 기타의 神 백두산 김도균의 멋진 연주를 들어보렴. 현장에서 라이브로 들던 에디터는 진짜 싸버렸어.

GAME

- 44 프리스타일 풋살과 함께 가을을, 그리고 아리아니의 가슴을 열어보자.

MONEY

- 48 IOC가 골격학 돈이 얼마라고!!!?

STUFF

- 50 스마트폰 꺾는 노인 아이폰5
- 52 맥심 만물 상화: 허구한 날 에러 나는 플로피디스크
- 54 MAXIM이 지른 이달의 물건: 캐논 파워샷 SX40HS

MOTOR

- 58 BMW 최고의 하이 퍼포먼스 슈퍼스포츠 바이크 HP4
- 60 MAXIM 시승기 #19: 폭스바겐 7세대 파사트 2.0 TDI, 6세대보다 뭐가 나아졌을 것 같아?

CONTENTS

DEPARTMENTS

77

SARAH SHAHI

TV와 컴퓨터 하드를 달궈줄 따뜻한 영상물이 간절해지는 쌀쌀한 요맘때, 수놈들 콧구멍에서 스팀 뿜게 만드는 핫한 미드 여주인공 사라 샤히를 만났다! 일단 그녀에게 유방과 블로잡, 몸 친구 이야기부터 들어봤다.

STYLE

- 66 진짜 야구 마니아를 위한 팬티
- 68 추석이 너무 슬픈 지갑
- 70 수분을 빼앗긴 피부에도 가을은 오는가.

ICON

- 84 런던 올림픽 메달리스트 골키퍼 정성룡 씨, 진짜 골키퍼 있으면 골 안 들어가나요?
- 98 "아일 비 백, 아일 비 백" 하던 액션 레전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돌아왔다!

HOT SAUCE

- 100 햇볕은 미녀의 뜨거운 인생 상담

24 HOURS TO LIVE

- 102 <개콘> 최고의 신인 브라운이를 데려온 정태호를 만났다.

MAXIM 여신 발굴 프로젝트 #4

- 104 여자 DJ DOC가 되기 위해서는 유치장도 감수하겠다는 당찬 신인 걸그룹 크레용팝. 애들 지...진심이다!

SPORT

- 110 개인 통산 2,000안타의 주인공
- 112 축구협회, 속 좀 그만 썩이지 그래?
- 114 로또보다 낫대 돈 쓸어 모으는 핵주먹 8인

MILITARY

- 118 국군의 날 기념! 대한민국 장병에게 바친다: 2010 MISS MAXIM 최혜연 조교와, 조교가 아무리 썩어도 재입대는 죽어도 싫다는 남자들의 후끈한 유격 훈련 화보
- 128 옴저버가 따로 없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시아이'

PARTY

- 132 섹시 천사와 도발적인 악마 코스프레걸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 이곳이 바로 해본

FIGHT

- 136 존나 쥐어 패거나 혹은 맞거나: 로드FC 009 BEAT DOWN 취재기

FROM MAXIM INDIA

- 140 미스맥심 인도판 콘테스트 2011 우승자

LOVE

- 146 조준하시교~ 쓰세요! 그 남자가 싸는 법

MISS MAXIM FINAL 4

- 152 사상 최고의 섹시 폭탄이 터진다! MISS MAXIM 최종 후보자 4인을 덤친 괴물들의 나쁜 손 화보



SWISS + MADE



ESSENTIAL GEAR.

Invented in the United States. Made in Switzerland. www.luminox.com

The Luminox Field Automatic 1809 : 43 mm, Stainless Steel brushed case, Automatic Day-Date Movement , tempered scratch resistant sapphire crystal, see through case back to view the movement, black leather band, 100 meters water resistant, Luminox self-powered illumination. Swiss Made.

ALWAYS VISIBLE
Constant Glow for up to 25 Years.

루미노스 판매처

공식수입원 및 서비스 센터 밀림시계(주) (02)757-9866, A/S센터직통 (02)735-9880, www.milimwatch.co.kr

직영점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1층(미림시계) 02-772-3181 / 롯데백화점 잠실점 1층(미림시계) 02-2143-1920 / 롯데백화점 대구점 1층(미림시계) 053-660-3122 / 롯데백화점 부산광복점 1층(미림시계) 051-678-4039
특약점 강변 테크노마트 1층(TM시계백화점) 02-3424-0793 / 신도림 테크노마트 지하1층(TM시계백화점) 02-2111-1120 / 강변 테크노마트 7층(타임2) 02-3424-7073 / 동대문 오케이아웃도어닷컴 1588-8796 / 종로 YMCA 1층(타임존) 02-737-3627 / 종로 중앙상가(노블워치) 02-745-8789 / 동대문 두산타워 5층(패션존) 02-3398-7527 / 성내동(다이베스몰) 02-565-9897 / 상계동 하이델방상가 A동(도라시계) 02-971-5334 / 종로 세운스퀘어 1층(정우상사) 02-2272-2688 / 이화대(영동점) 02-771-7033 / 종로 피카디리 플라자1층(정신사) 02-741-9678 / 삼성동 코엑스몰(탐워치) 02-2051-6244 / 을지로6가 굿모닝시티 2층(사포) 02-2118-8075 / 대현동 APM&핑몰 1층(타임사포) 02-6373-7743 / 잠실 롯데월드 웰빙센터 1층(제네바) 02-419-5622 / 남창동 단암빌딩1층(프로워치) 02-779-6964 / 은평 이마트 7층(스포츠빅텐) 02-389-8718 / 왕십리 민지역시3층(원타임) 02-2200-1355 / 안양 안양동(시계상사) 031-441-0158 / 안양 안양동(보석상사) 031-466-1014 / 부천 삼곡동(특목) 032-662-2026 / 고양 장항동(타임24) 031-931-5555 / 성남 정자동(스포츠빅텐) 031-710-1260 / 용인 블루키 동백점 1층(델어글락) 031-679-0145 / 안산 고잔동(타임루트) 031-487-9057 / 광택 광택동(유빈) 031-658-6883 / 인천 흥골라스 가좌점 2층(스위스) 032-578-2002 / 인천 구월동(워치보이) 070-8632-5300 / 대전 세이브존 1층(타임티처) 042-482-2328 / 이마트 대전전미빌딩 4층(스포츠빅텐) 042-615-1265 / 대구 삼덕동(엘가시계) 053-255-6940 / 천안 신부동(알파8오메가) 041-564-5465 / 청주 가경동(보보 스위치) 043-235-1510 / 청주 남문로27(복워치) 043-223-1333 / 전주 롯데백화점 5층(세광당) 063-289-3592 / 광주 점안롯데마트(원남상사) 062-971-8523 / 포항 벨류플러스(조이빌) 054-613-1170 / 이마트 동구미점 2층(스포츠빅텐) 054-480-1260 / 구미 원명동(엘가시계) 054-451-6940 / 진해 롯데마트 1층(원남상사) 055-542-8521 / 창원 롯데마트 1층(원남상사) 0505-555-8521 / 부산 광복동(국제시계) 051-245-1230 / 부산 해운대(리브워치) 051-746-6112

BRAUN



Simply time

브라운 | (주)거노코퍼레이션
www.brauntime.co.kr | 02.3397.7100
공식쇼핑몰 유로타임 | www.eurotime.kr



[백 화 점] AK PLAZA 광택_신우 (031-646-6139)
NC 백화점 송파_신우 (02-2157-5236) / 순천_신우 (061-720-5124)
일산_신우 (031-900-5163) / 강서_신우 (02-2667-9508)
디큐브백화점 거제_신우 (055-680-0193)

MAXIM

편집장 이영비
yb@maximkorea.net

EDITORIAL / 편집부

에디터 대리 김희성 alice@maximkorea.net
주임 송승민 jm@maximkorea.net
주임 박한빛누리 nu@maximkorea.net
대리 김진욱 14k@maximkorea.net
이사 유승민 sm@maximkorea.net
주임 조용재 wj@maximkorea.net
주임 이영환 lyh@maximkorea.net
사원 손안나 anna@maximkorea.net
인턴 에디터 박수현 mari@maximkorea.net
박종원 ttt3314@maximkorea.net
최동희 t578@maximkorea.net
최성준 csjet89@maximkorea.net

객원 에디터 이용수(격투 칼럼니스트) / 김덕중((엑스포초) 기자)
김대영((디펜스 타임즈 코리아) 편집위원)
김광희, 박종현(누들 리뷰어 '누들러')
급사니스트(어른 작가) / 최형욱(경제 칼럼니스트)

DESIGN / 디자인

디자이너 주임 서윤정 yoon@maximkorea.net
주임 신속희 ssh@maximkorea.net
주임 전은경 eun@maximkorea.net

ADVERTISEMENT MARKETING / 광고 마케팅

팀장 김진욱 14k@maximkorea.net
메니저 원정운 jw@maximkorea.net
메니저 정진선 js@maximkorea.net

FINANCE, GENERAL AFFAIR / 회계 총무

대리 최인영 joy@maximkorea.net
주임 장선영 sun0676@maximkorea.net
비서 김화현 sm@maximkorea.net
인턴 이현구 leehg@maximkorea.net

WEB SERVICE / 웹

토크엔 팀장 서정민 oreiss@town.com

PHOTOGRAPHY / 사진

ARC STUDIO www.arcstudio.co.kr
포토그래퍼 실장 정기수
포토그래퍼 실장 김영석
포토그래퍼 실장 박 울
아시스턴트 오준섭

교섭

신선경 kshin0111@daum.net

CIRCULATION / 유통

송주출판유통
대표 이광관

PRINTING / 인쇄 원색분해

(주)타라티피에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자사리 192-1 인쇄인 아편순

발행인 / CEO 유승민

이사 양자용 / 이사 원혜진

www.maximkorea.net

광고/제휴 문의 partner@maximkorea.net
070-4010-9049

구독 문의 joy@maximkorea.net
02-323-1182



발행처 ㈜와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TEL. 02-323-1182 / FAX. 02-6455-0193
2012년 10월호 통권 제30호 /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포 라-00250

ALPHA MEDIA GROUP

EXECUTIVE CHAIRMAN: Jack Kliger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mcox
SENIOR ADVISER: David J. Fishman

MAXIM WORLDWIDE BRAND LICENSING

INTERNATIONAL PUBLISHING MANAGER: Stephanie Marino
INTERNATIONAL EDITORIAL DIRECTOR: Simon Clays
SR. INTERNATIONAL OPERATIONS MANAGER: Pauline Lam
INTERNATIONAL RIGHTS COORDINATOR: Jeff Whitacre



MEDIA NETWORK EDITORS IN CHIEF

ARGENTINA Germán Pittelli	CZECH REPUBLIC Pavel Vondracek	ITALY Paolo Gelmi	RUSSIA Sasha Malenkov	THAILAND Sirote Petchjamroansuk
AUSTRALIA Santi Pintado	GERMANY Mike Bleibtreu	MEXICO/LATIN AMERICA André Félix Diaz Rojo	SERBIA Nebojša Prijčić	UKRAINE Sasha Malenkov
BULGARIA Alexander Zhekov	INDIA Vivek Pareek	POLAND Krzysztof Papliński	SOUTH KOREA Young-Bee Lee	UNITED KINGDOM Stuart Messham
	INDONESIA Ronald Adrian Hutagalung	PORTUGAL João Espírito Santo Araújo	SWITZERLAND Boris Etter	UNITED STATES Dan Bova

MAXIM KOREA는 글로벌 남성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그룹은 한국의 (주)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주) Media는 국내에서 MAXIM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파미디어 그룹, (주) Media 외에 어떤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의 글과 사진은 알파미디어 그룹과 (주) Media에 귀속하므로 허락 없이 쓸 수 없습니다.

© 2012 Alpha Media Publishing, Inc. The name "MAXIM" and the MAXIM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Alpha Media Group Inc., which trademarks have been licensed to Y Media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wned by Alpha Media 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The United States edition of Maxim is published monthly by Alpha Media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17. For international publishing or licensing inquiries: maximworld@maxim.com

ALBA

POSITIVE & SMART



ALBA 직영매장 세이코부르크 스타시티점 02454-8400 / 캘러리아 콩코스점 02390-7322 / 현대아이파크 백화점 022012-4144 • **민세점** 롯데 / 신라 / 워커힐 / 동화 / 파라다이스 / JDC / JTO / KTO • **백화점** 롯데 / 현대 • **수입원** 삼정시계(주) 02511-3182
ALBA 전문점 서울(02) 중구 이화치(771-7033) / 롯데백화점(772-3124) 종로 타임존(737-3627) / 노블워치(745-8788) / 정신사(741-9678) 동대문 패션존(3398-7527) 서초 시계독림(6282-2777) / 신바탕(532-2121) 송파 롯데잠실(2143-7282) / 타임존(411-0829) 강동 골드시계(484-2029) 용산 해피타임(2012-0625) 서대문 타임월드(313-4108) 은평 타임랜드(350-8471) 관악 타임(6299-7166) 구로 시계백화점(2111-1120) / 타임타임(2111-1141) 양천 티파니(2648-8333) 강서 타임피스(2688-0871) 광진 TM타임2(3424-7073) / TM 시계백화점(3424-0793) 성북 해시계(2117-1755) 노원 도라시계(971-5334) / 롯데노원(950-2139) **인원(032)** 남동 롯데인원(450-2153) / 정타임(432-2430) 남구 타임랜드(862-5534) 부천 시계나라(329-0894) / 특목(662-2026) 부평 롯데부평(452-2168) 경기(031) 고양 티파니(931-5300) / 롯데일산(909-3293) 성남 AK프라자(781-8194) / 동성당(753-0766) / 타임24사(728-5370) / 엔타임(707-1289) 수원 AK프라자(240-2199) / 텐어블랙(201-7100) / 지지컬렉션(221-4997) 안양 타임월드(383-8342) / 보석상지(441-1014) / 시계상지(441-0158) 동탄 타임플러스(371-6850) 부산(051) 중구 명성시계(253-5315) / 국제시(245-1230) / 불광(245-7965) / 롯데광명(678-3155) / 타이머블(919-4704) **해운대구** 롯데세템(730-3235) **부산진구** 롯데서면(910-4138) / 플라이(922-2068) / 프로포즈(818-6573) / 동서시(644-5551) 울산(052) 금보당(960-4848) **경남(055)** 마산 신세계스위스(224-2711) 창원 롯데창원(279-3119) 진주 갤러리아(791-1177) 대구(053) 중구 주얼리아(428-2688) / 바젤(425-5707) / 동아스위스(252-8111) / 해피타임(428-3086) / 엘가(255-6940) / 젤마(428-0338) / 레츠(425-0157) / 삼성사(422-3002) **북구** 롯데대구(660-3132) **경북(054)** 구미 타임프라자(455-2410) 포항 조이필(613-1170) / 주얼리(244-8172) / 타임피아(253-8855) / 스위스(255-6292) **충북(043)** 청주 명공시(256-4574) / 드림플러스(235-1510) **대전(042)** 보육당(253-9241) / 세이백화점(257-7745) / 롯데한청(535-5767) / 엔비(255-6282) / 세이브존(482-2328) **충남(041)** 천안 티파니(561-9438) / 일파와오메가(564-5465) / 신세계예진(640-5081) / 루치타임(522-6505) **강원(033)** 춘천 시계마을(253-7669) **광주(062)** 굿타임(233-3050) / 이프유(225-0175) / 현대제일사(515-7172) / 시계명가(226-2251) / 플드름(410-0137) / 티티(222-3114) **전주(063)** 세광당(289-2590) / 컴투(285-7598) **제주(064)** 순금시(758-1717)

LETTER FROM MAXIM

9·13 의거



10월호 마감 작업을 독촉하며 에디터들을 신나게 채 찌질하던 중 대박 가십이 터졌다. 홀로 일본에 남아 활동 중인 빅뱅 막내 승리가 어떤 일본 여자랑 떡을 쳤는데 그 여자가 '승리 섹매너 조또 별로무니다'라는 인터넷뷰와 함께 직접 침대에서 찍은 몰카를 공개했고 그 몰카 속 남자가 승리라고 주장했다는 인터넷 뉴스였다. 이 내용은 <프라이데이>라는 일본 주간 가십 잡지에 실렸다.

우리나라 최고의 남성 그룹이라는 타이틀이 어색하지 않은 빅뱅은 이미 그 전에도 대마초나 교통사고, 욕일 승천기 의상 등의 도발적인 검색어를 달고 다녔다. 하지만 남자 아이들의 '섹스(후 수면)' 몰카 사진이 나왔다는 건, 심지어 '목을 조르고, 배에다 싸고 수건을 던져줬다'는 거친 섹스를 했다는 뉴스가 나온 건 놀라운 일인 것이다. 알록달록한 윗도리와 전립선을 꼭 조이는 타이트한 스킨니진을 입고, 연자근자까지 바르고 '여자는 잘 몰라요, 데헛' 하는 2세기의 남자 아이돌 그룹은 중성적이다 못해 무성의 존재 같지 않던가. 물론 야리야리한 남자 아이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녀들의 우상이 되기 위해 스스로 남성성을 거세해야 하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섹스 스캔들'은 충격이다.

우린 이 이야기를 MAXIM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 뭐 별 내용은 없다. 이리저리한 스캔들이 터졌다는 이야기와 함께 '승리 진짜 남자구만! 진짜 남자니까 군대 가야지?'라는 코멘트를 붙였다. 스타들은 잘 때도 몰카 걱정에 눈 뜨고 자야한다는 농담도 섞어가면서 말이다. 얼마 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 중 빅뱅 팬으로 추정되는 몇 명이 MAXIM 블로그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비밀댓글을 남겼다.

- **비밀 댓글입니다.**
이런 ㅇㅇ 아무것도 모르면서 퍼들대지마 승리도 피해서나간
- **비밀 댓글입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일본에서 도비슷한일이잇을때 자속하는경우는 거의 없었구요 그렇니까 군대가 아한다는등의 발언은 삼고해주세요
- **maxmkorea1** 2012/09/14 10:13
자속이러나와! 뭐러라 자속합니다, 뭐 잘못된것도 아닌데,
- **비밀 댓글입니다.**
maxmkorea1 군대가야겠다는표현이 불쾌하다는뜻이였습니다.; 한창활동중인승리에게 군대가라는건 자속이 아니라 찬가지이지요

일부는 "승리가 잘못된 게 아니다"고 화를 내는데, 솔직히 우린 이걸 아예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한다. 전혀. 뭘 잘못했다는 건가? 승리도 남잔데 섹스 안 하고 살 것도 아니고 섹스 좀 했다고 자속은 무슨 농의 자속? 게다가 군대 가는 게 '자속의 의미'니까 승리 오빠더러 군대 가란 소리는 말아달라는 요청은 왠지 뻘뻘하다. 아니 그럼 지금 군 복무 중인 건전한 대한의 남아들은 모두 자속 중이란 말인가?

안 그래도 열도 원숭이들이 독도 문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 계속 들쭉서서 요즘 짜증났는데, 정치적으로 묘한 시점에서 일본 여자에게 똥 매너 섹스로 톡톡히 돌려주었으니 가히 애국자라 할 만하지 않은가. 일찍이 동방신기도 해내지 못한 대의기! 그가 해냈다. 우리는 그를 '열사'라 칭하겠다. 일본 한복판에(정말 복판(腹板)이네!) 그가 투척한 따끈한 도시락 폭탄에 MAXIM은 박수를 보내는 바, 우리는 감히 이 사건을 승리의 9·13 의거라 칭하겠대! 입이 더럽기로 소문난 MAXIM 편집부 모 에디터는 "승리 최고! 왜냐에게 태극기를 꽂았구나!"라며 환호하기까지 했다.

<프라이데이>라는 일본 매체가 우리의 빅뱅을 디스하고 개난리를 치는 것도 결국은 열도 원숭이들이 잘생긴 대한남아에게 자기네 암컷을 능욕 당하자 깊은 박탈감에 땅콩만한 고추를 잡고 양탈을 부려보는 것이니겠느냐. 키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제에 영혼을 팔지 않았다는 뜻이요, 수건을 배에 던져줬다는 것은 일제에 희생당한 꽃다운 처녀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의미였으리.

얼마 후, 한 홍콩 매체에서 '청룡(성룡) 아들 전 여친 쿠보 안나가 승리가 뭇훗한 분위기에서 포옹하고 볼에 뽀뽀도 해주더라!'며 관련 영상을 내보냈다. 열폭하는 일본 매체의 사생활 디스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여복은 끊이지 않는다.

보고 있나, 섬 것들? 이것이 진정한 '머남스타일'이다.

2012년 10월 편집장 *이영희*

이것은 디지털카메라 역사상 최고의 렌즈혁명!

라이카 f1.4 렌즈의 우월한 밝기가

여친을 여신으로

기존 하이엔드

카메라의

렌즈 밝기

f5.6

f4.0

f2.8

f1.8

f1.4

LX7의 렌즈 밝기

디지털카메라의 혁명은 렌즈 밝기의 혁명으로 다시 시작된다!
지금, 라이카 f1.4 렌즈의 우월한 밝기를 경험해 보십시오.

세계 최초 f1.4 여친렌즈를 장착한 슈퍼 하이엔드, 파나소닉 LX7

- 광각 24mm 광학 3.8배줌 (F1.4-F2.3) • 수동 조리개링 조작, 풀HD동영상(1980 x 1080 60p AVCHD 프로그램서브)
- 초당 120장 초고속동영상촬영, 초당 11장 플래시도 초고속연사모드 • 와이드뷰잉 3인치 92만화소의 밝고 선명한 LCD탑재
- 인텔리전트 오토플러스(아웃포커싱, 색감, 명도 자유조절)



LUMIX LX7



THIS MONTH'S HOT CLICK

MAXIM 독자들이
마우스 뽀사지도록 광클한
바로 그 기사

SHOOTING LIKE ARIANNY

지난 MAXIM 9월호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UFC 옥타곤 걸 아리아니 셀레스티가 커버를 장식했기 때문! 깎아놓은 듯한 완벽한 몸매와 동안 외모는 기본이고, 톡톡 튀는 발랄한 성격까지 옵션으로 갖춘 그녀를 보고 현장에 있던 여자 스타트업들은 "신은 불공평하다"며 한동안 거울을 보지 않았다는 후문. 한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한가로이 조기 축구를 하던 동네 남성네들은(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것으로 추정됨) 촬영을 위해 경기장에 들어선 아리아니 셀레스티를 보고는 그곳 공놀이가 대수냐는 듯 축구를 포기한 채 열심히 촬영 현장을 맴돌았다는데...

아리아니 셀레스티의 화보와 영상이 궁금하다면 www.maximkorea.net으로!

섭외 요청 게시판을 가장 뜨겁게 달군 그녀는?



"강예빈을 섭외해서 MAXIM의 패기를 보여 달라"는 독자의 도발에 MAXIM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자, 다들 이번달 표지 모델이 누군지는 이미 확인했는지? 긴 말 없겠다. 지금 당장, 86페이지를 펼쳐서 그녀의 어머니 정한 화보를 감상하시라.

MAXIM ONLINE POLL

MAXIM 독자들이 뽑은 야구 프로그램 진행자 중 미모 甲은 누구?



1위

야구 여신, **최희**
of <아이 러브 베이스볼>
(48.9%)



2위

사랑해요! **김민아**
of <베이스볼 투나잇 야(野)>
(20.3%)



3위

볼매녀, **공서영**
of <베이스볼 워너비>
(15.5%)

스포츠를 사랑하는 여자라... 근데 심지어 예쁘고 똑똑하고? 남자의 로망을 100% 실현시켜주는 이 스포츠 여신들의 순위를 매기기 위해 MAXIM 독자들은 투표창을 광클했다. 실로 무서운 투표율이었다. 먼저, 아빠들의 엄청난 지지로 독보적인 1위에 오른 아프로디테 최희 아나운서. 청순한 줄만 알았던 그녀는 최근 <아이 러브 베이스볼>에서 시스루 드레스를 선보이며 몇 남성들을 하악하악하게 만들었다. 아쉽게 2위에 그친 김민아 아나운서도 만만치 않다. 지난 해 MAXIM 2월호 표지를 장식한 그녀의 화보는 아직도 야구팬 사이에 끊임없이 회자되는 레전드로 통한다. 김민아 아나운서, Baby One More Time!!! 한편 4, 5위는 <배지현의 쓰리번트>를 진행하는 배지현(9.8%), <베이스볼 투나잇 야(野)>의 김선신(2.6%) 아나운서가 차지했다.

셰빙가전의 名家

Panasonic
ideas for life

스타일 없는 남자에겐
눈길도 주지 않는다

면도기도
마찬가지다



밀라노 디자인으로 스타일리시하게 -
파나소닉 Milano Sha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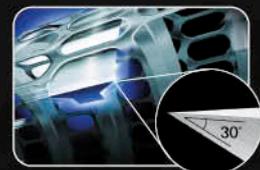
시각의 동물인 남자들은 걸모습과 스타일을
먼저 보는 습성이 있다.
그런 그들을 충족시킬 새로운 아이템 -
파나소닉 Milano Shaver
디자인에 먼저 반하고 밀착력 있는
셰이빙에 또 한 번 감탄할 것이다!



클리닝서티로 망을 제거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세척 / 관리



Multi-fit Arc 망이 더욱
깊은 밀착 면도 실현



30° 예각 Nano Edge날이
항상된 질삭력 선사

파나소닉 종합 전시체험 판매장



Panasonic Plaza

파나소닉 플라자 대표번호 02-542-8452

• 헬니스 존 • 에스테 룸 • 루믹스 셀프 스튜디오 • 리빙 룸 • 시스템 존 당신의 생활을 높여줄 놀라운 아이디어, 파나소닉 프라자를 경험하세요



LETTERS

에디터 일대일 상담 제도를 실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여성 에디터들만 즐기치게 찾아대는 독자들에게 불만 폭주한 남성 에디터들은 답변이 아닌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는데...

독자 사연
투척하기!



여자친구가 필요해



본인은 이를 악물고 20kg를 감량해 훈남이 된 20대 중반의 복학생이요, 솔로 생활 반년째, 이제 슬슬 찬 바람도 불어오는데 앞에서 걸어가는 커플들만 보면 옆구리가 시려 죽겠소. 주변 처자들

FROM 훈남복학생, 이메일 사연



에디터
이영환

그 '훈남'이란 찜찜한 호칭은 누가 붙여준 것인가요. 참고로 제 아버님은 내 누이를 박슬미, 본인을 조인성이라고 칭합니다만. 진정 훈남은 찬 바람이 부는 가을, 열구리에 옥편이라도 끼고 찬 바람 부는 테라스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에스프레소 잔을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사내입니다. 어디 정자동 카페 거리에 가서 흥내라도 내보시죠. 생머리를 귀 뒤로 쓸어 넘기며 쓸데없이 길을 쳐묻는 여인이 나타날 겁니다. (안 나타나면 살을 더 빼시라고.) 그래도 아마 안 생길 겁니다. 여친 비슷한 것도...

내 숨가가 기어나?



안 만질게, 나 좀 태워줘

데이트 때 아이로 드라이브를 자주 하는데 처음엔 한 손으로 운전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내 손을 꼭 잡더니 이제는 한 손으로 핸들을 나머지 한 손은 저의 가슴을 꼭 움켜잡고 운전을 하네요. 화도 내고 사고 날까 무섭다. 누가 볼까 겁난다 하며 달래도 보았지만 이래야 피로가 풀린다면서 또 "다른 커플들도 다 그래" 하면서 멈추질 않네요. 이 남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남친이 MAXIM을 즐겨보니 이 사연을 보고 뜨끔하겠죠?ㅋㅋ) FROM 나나, 이메일 사연



에디터
박한빛누리

'제 남친이 밥 먹고 나서 똥을 싸는데 어떡하죠?' 같은 고민이네요. 모든 남자가 여친 가슴을 움켜쥐고 운전을 합니다. 대한민국 수컷이라면 누구나 연애 초기에는 여친의 손을 잡고 운전하다가 점점 더 사랑할수록 자연스럽게 가슴으로 손이 갑니다. 남친께서 그걸로 피로까지 풀린다니 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MAXIM 편집부까지 전달되네요. 근데 나나님 가슴은 박카스처럼 청량한가 봅니다. 아~ 요즘 저희도 마감 야근에 밤샘에 너무 피곤한데... 그 용하다는 피로회복제 좀 만지게 해주세...

스킨십 종결녀

본인은 방년 스물한 살 쫄쫄쫄한(?) 남성이요. 다음 아니라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처자 때문에 미칠 지경이요. 나는 야간에 근무하고 아침에 교대를 하는데 언제부턴가 이 처자가 "수고했엉~" 하면서 내 어깨며 손이며 하체 위를 전부 터치하기 시작했소... 그래서 나도 이 처자가 탐나서(?)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싫어하는 기색이 없었소. 아라? 싶어서 허리를 감쌌는데도 마치 망부석처럼 꿈쩍 않고 계속 터치를 허락하는 게 아니겠소...?! 근데 원래 스킨십에 오픈 마인드를 가진 처자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좋아서 내 손길을 허용하는 처자인지, 도무지 판별할 수가 없단 말이요. 어떻게 하면 이 처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소? MAXIM님의 관심법이 필요하옵나이다.

FROM 차태식, 이메일 사연



에디터
손안나

더 이상 뭘 판별한단 말이죠? 아무리 스킨십에 오픈 마인드를 가졌다 한들, 맘에도 없는 남정네의 터치를 허하는 여자는 세상에 없습디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읽은 것 같으니 이제 몸을 읽으면 되겠네요. P.S. 여자들은 첫 페이지부터 꼼꼼히 읽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남의 떡을 먹는 기분이라까

최근 절친한 친구의 사촌 동생을 소개받은 자리에 나갔소. 세상 물정 모르는 귀여운 아가씨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분위기가 무르익어 결국 엇그제부터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다고. 근데 난 감한 것이, 진도를 빼보려고 해도 친구의 사촌 동생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려 함부로 손을 대기가 쉽지 않소.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진도를 뺄 수 있는지 MAXIM 에디터의 조언을 구하고 싶소. FROM gingerb, 이메일 사연



그러니까 양껏 해도 아무도 똥볼 못 놓여



에디터
조용재

친동생과 사촌 동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친동생을 건드렸다가 칼부림 나는 경우는 비밀비재하지만, 사촌 동생이라면 가벼운 죽빵 한 대로 끝날 겁니다. 하지만 다 자란 성인이 남녀를 소개해줬다는 건 어느 정도 둘 사이의 진도를 염두에 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불만하다면 매도 미리 맞는 게 낫다고, 아예 한 수 앞서는 건 어떨까요? 친구분에게 가서 얘기하세요. "니 사촌이 먹고 싶다!" 마우스피스는 꼭 끼시고요.

THE ULTIMATE SMOOTH PREMIUM BEER



IT'S *Miller* TIME.

MAXIMI 너보다 더 소중한



MAXIM 7월호를 사던 날 저녁, 여자친구 방에 가방을 놓고 오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여친에게 카톡을 보냈더니 제 연락처를 '변태 새끼'라고 저장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들기엔 같이 보자고 권유할 생각이었습니

다. 근데 변태 새끼란 말을 듣고 여친 번호를 바로 스팸으로 등록했습니다. 망할 것이 지랑 겨우 4개월 됐는데 내 오랜 벗과 제 사이를 오염시킨 것 아닙니까. 저의 진실함을 느꼈는지 전 여자친구에게 조건을 걸고 다시 만나했습니다. ①MAXIM을 여친이 직접 사서 포장해올 것 ②두 손으로 가져올 것 제가 너무했나요?

FROM 달팽달팽, 이메일 사연



에디터 김희성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복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혼자 사는 여자는 아침할 시각에 누가 현관문을 두드릴 때, 예고도 없이 불쑥 남친이 찾아왔을 때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이걸 남친만 집에 남겨놓고 나왔을 때의 불안감에 비하면 새 발의 귀와 다를 바 없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의 집에는 온갖 비밀스러운 물건이 공방이처럼 숨어 있기 때문이죠.

일단 여친의 컴퓨터를 켜세요. 당신이 아(구)동(영상)을 숨겨놓은 곳보다 더 깊은 곳에 전 남친과 찍은 사진들을 모아놓은 폴더가 있을 겁니다. 서랍 속에서 먼지가 쌓인 다이어리를 찾으세요. 전 남친과 찍은 스티커 사진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녀의 옷장을 열어보세요. 그녀의 전 남친이 선물한 커다란 곰돌이 인형이 숨어 있을 겁니다. 아, 곰 발바닥을 까 뒤집으면 그녀와 그 자식의 이니셜이 수놓아 있을 테니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배를 누르면 그 새끼 목소리가 들릴지도...)



사랑의 이름표를 붙여

To, MAXIM 관계자분들께.

필승! 저는 MAXIM 반입이 안 되는 부대 사정상 조금 늦더라도 태거진으로 매달 꼭 챙겨 보는 독자입니다. 국군의 날 기념 화보를 찍는다고 예비군들에게 군복을 대여해주었으면 한다는 MAXIM 트윗을 발견했습니다. 전역복이라도 기증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현재 신분상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를 비롯한 현역 병사들이 다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하고 자그마한 명찰을 같이 보내드릴까 합니다. 앞으로도 MAXIMI 모든 독자에게 사랑받는 매거진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디 이 편지가 촬영 날 전까지 도착했으면 좋겠네요! 필승! P.S. 공군 명찰이라 색깔이 파란색인 게 함정 ㅋ

FROM 병장 최철영, 편지 사연



그날은 무척 덥고 힘든 촬영이었지요. 저희 에디터를 또한 재입대할 기분으로 얼차려를 받고 각종 '부대' 시설을 고문받듯 이용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만약 병장님의 명찰이 오지 않았더라면 저희들은 편집장님의 컨트롤 아래 최혜연 석자를 몇 시간 동안 야상에 오버로크치고 있었을 겁니다. 다행히 보내 주신 명찰과 완벽한 컬래버레이션을 이뤄냈습니다. 여기 최혜연 씨가 직접 들고 찍은 기념 샷을 고이 보내드리니 어서 가서 둔부를 흔들어 대대장님게 자랑하세요.

P.S. 우리 대학생 인턴 중에 어쩌다 공군 예비역이 있었다는 게 함정 ㅋ

텐트가 가라앉질 않아



텐트는 이렇게 치는 거다.

1년이라는 연애 기간 동안 외박이 금지되었던 여자친구가 부모님께 구라를 치고 저와 2박 3일 부산 여행을 갔습니다. 첫날은 찜질방에서 목욕했는데 욕구를 참지 못한 저는 구석으로 가서 그녀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숨가를 만졌습니다.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하게 저의 존슨이 우뚝 서버렸습니다. 그러고는 한동안 가라앉힌다고 그 뜨거운 찜질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원래 남자들 찜질방에서 속옷 안 입지 않나요?? 제가 이상한가요? FROM 파니스트미, 이메일 사연



에디터 송중민

너 아침에 어떡하려고 그러니... 형도 회사에서 밤샘 야근하고 아무 데나 퍼질러 자다가 걸려가지고 아직도 별명이 뿌리 깊은 나무야. 그렇다고 형이 속옷 안 입고 잔 건 아닌데, 제대로 튜리닝까지 입었는데, 하물며 찜질방 반바지라니! 여친이 너의 텐트를 보고 "어머! 이딴 건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자유야!"라며 감탄사를 내뱉는 시츄에이션은 이제 예로 비디오에도 안 나와. 당장 찜질방을 뛰쳐나와 MAXIM 스타일 코너에 소개된 멋들어진 팬티를 입고 그녀 앞에 당당히 세우길, 아니 서길 바랄게. 그리고 이사님... 인제 그만 사진 좀 지워주세요. 회사 여직원들 눈을 못 쳐다보겠어요. 흑흑.



독자 사연 응모

MAXIM은 여러분의 사연에 목말라 있습니다. 남의 고민...아니, 상담은 즐거운 거니까요.

응모 방법

- ▶ 우편 접수: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빌딩 4~6층 편집부
- ▶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 ▶ QR 코드 접수: 독자 사연 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 방문접수 10월 방문은 이렇게 하자: 10월 31일, 핼러윈데이를 위해 준비한 고풍의 의상을 입고 MAXIM 사무실로 뛰어 올라가자. "TRICK OR TREAT!"을 외치며 사랑을 달라고 손을 내밀면, 편집장이 인자한 미소를 띠며 나타나 사랑방 캔디 몇 개를 건넬 것이다. 형형색색의 사랑을 입에 넣는 순간 정신을 잃은 당신. 잠서 후 눈을 떠 보니, 흉대 거리 한복판에 발가벗겨져 누워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입고 온 의상은 이미 MAXIM 소품실에 고이 모신 뒤일 거다. 하지만 성기 부분은 과월호로 덮어주겠다. 우리 그 정도 자비는 있다.



꼭 이럴거 입고 와.

독자 선물

이번 달 독자 선물은 당신의 목은 얼굴 때를 시원하게 벗겨줄 **에브리맨잭 페이스 스크럽 시그니처 민트다.** 고독한 가을에 여자가 안 생긴다고 징징대지 말고 일단 여자가 안 생길 것 같은 당신 피부부터 해결하자.





PERFETTO

Swiss made
Sapphire glass
See-through case back
ZASPERO Cal.3540D.Z1



Moderno Collezione 201

공식수입원 : (주)자스페로 코리아 1688-8907

- 직 영 점(여의도) 02)783-8910
-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139
- 롯데백화점(대선점) 042)601-2149
- 롯데백화점(서면점) 051)810-4138
- 신세계백화점(천안점) 041)640-5496
- AK백화점(병곡점) 031)648-6139
- 동이백화점(대구점) 053)780-1701
- 가든파이어(송파점) 02)2157-5000
- 헬로우APM(동대문) 02)6388-2927
- 워 치 룩(노원점) 070)4136-5090
- WatchF1(부평점) 032)501-7015
- 예진시계(대전점) 042)280-9117
- G-ZONE(구미점) 054)455-2410
- 타임피어(포항점) 054)253-8855
- 중문면세점(제주점) 064)780-7665
- 롯데백화점(일산점) 031)909-3293
- 롯데백화점(인천점) 063)289-3191
- 롯데백화점(센텀점) 051)730-3235
- 신세계백화점(광주점) 062)360-1934
- AK백화점(원주점) 033)811-5535
- 대동백화점(창원점) 055)212-6383
- 오해피타임(양산점) 02)2012-0625
- 굿모닝시티(동대문) 02)2118-8075
- 타임 24 (일산점) 031)931-5555
- 타임 런(부평점) 070)7516-4545
- 삼 성 사(대구점) 053)422-3002
- 타임뱅크(광주점) 062)410-0110
- 인디고콜(양산점) 055)911-7111
- 롯데백화점(분점) 02)772-3124
- 롯데백화점(평촌점) 031)8086-9248
- 롯데백화점(대구점) 053)660-3132
- 롯데백화점(울산점) 052)960-4783
- 현대백화점(광주점) 062)510-7171
- NC백화점(강서점) 02)2667-9514
- 이 와 치(병곡점) 02)771-7033
- 테크노마트(강변점) 02)3424-0793
- 이 초 와 치(홍대점) 02)323-0980
- 시계상자(안양점) 031)441-0158
- 뽕 껌 톱(부천점) 032)662-0886
- 쿨 타 임(대구점) 053)255-6940
- 옛 타 임(광주점) 062)227-3050
- 블 란(부산점) 051)245-7965
- 롯데백화점(삼성점) 02)2143-7282
- 롯데백화점(안양점) 031)463-2184
- 롯데백화점(포항점) 054)230-1137
- 신세계백화점(경기점) 031)695-1277
- AK백화점(구로점) 02)839-5128
- NC백화점(분당점) 031)780-3114
- 세운스퀘어(종로점) 02)2272-2698
- 테크노마트(신도림점) 02)2111-1120
- 타임랜드(은평점) 02)350-8471
- 사문주유향(안양점) 031)463-9788
- 뉴코어유향(부천점) 032)624-8337
- 메피타임(대구점) 053)428-3086
- 골드타운(광주점) 062)714-1121
- 타임룩방(부산점) 051)919-4704
- 롯데백화점(영등포) 02)2630-6734
- 롯데백화점(인천점) 032)450-2153
- 롯데백화점(창원점) 055)279-3119
- 신세계백화점(의정부) 031)8082-0344
- AK백화점(수원점) 031)240-2199
- NC백화점(부산점) 051)509-7221
- 이타인월드(시흥점) 02)313-4108
- 두산타워(동대문) 02)3398-7527
- 월 타 임(왕십리) 02)2200-1355
- 탑 타 임(일산점) 031)413-7656
- 제이유향(천안점) 041)584-5465
- 교보문고(대구점) 053)425-9961
- 티 파 니(광주점) 062)671-7458
- 롯데백화점(청리리) 02)3707-1190
- 롯데백화점(경북점) 051)678-3155
- 신세계백화점(인천점) 032)430-1486
- AK백화점(분당점) 031)781-8194
- 대구백화점(대구점) 053)422-3191
- 와 와 치(강남점) 02)537-8977
- 두산타워 2(동대문) 02)3398-5528
- 미 급 사(중랑점) 02)434-4880
- 워치보이(인천점) 070)8632-5300
- 북 와 치(청주점) 043)223-1333
- 엘 가(구미점) 054)451-6940
- 조 이 빌(포항점) 054)613-1170



당신 손으로 MISS MAXIM 뽑는 법

1. www.maximkorea.net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페이지 우측에 있는 MISS MAXIM CONTEST 란을 확인했나?
3. 둘 중 마음에 드는 처자에게 한 표를 던져라. 현재 득표 스코어도 바로 확인 가능하다. 이제 곧 MISS MAXIM 4강이 시작될 거다. 올림픽 축구 보는 기분으로 참여하도록!



Ingersoll®

SINCE 1892

FINE AUTOMATIC TIMEPIECES



Ingersoll History



established in 1892

1896

1910

1920

1935

1950's

1971

1989

now

잉거솔 | (주)거노코퍼레이션 | www.konocorp.com | www.ingersoll.kr | 02.3397.7100 | 공식쇼핑몰 유로타임 www.eurotime.kr



[연 세 점] 제주중문민세점 (064-780-7671)
[백 화 점] 롯데백화점 노원 더와치스 (02-950-2164) / 잠실 더와치스 (02-2143-1922) / 인천 워치리움 (032-450-2153) / 전주 더와치스 (063-289-3191) / 대전 타임마케팅 (041-601-2253) / 광주 타임마케팅 (043-219-9108) / 부산광복점 워치리움 (051-678-3155) / 신세계백화점 인천 타임마케팅 (032-430-1486) / 광주 타임마케팅 (062-360-1291) / 천안 예진시계 (041-640-5081) / 대구백화점 더와치스 (053-423-1234) / AK PLAZA 수원 더스시계 (031-240-2199) / 분당 스타일워치 (031-781-8194) / 팜백 스타일워치 (031-646-6139) / 구로 스타일워치 (02-839-5128) / 원주 스타일워치 (033-811-5535) / NC백화점 송파 신우 (02-2157-5236) / 순천 신우 (061-720-5124) / 일산 신우 (031-900-5163) / 불광 신우 (02-350-8478) / 디큐브백화점 가재 신우 (055-680-0193) / 세이백화점 대전 글로벌타임 (042-257-7745)
[반 매 지] 서울(02) 현대아이파크 해피타임 (2012-0625) / 와와치 (537-8977) / 전진상사 (764-4716) / 타임가든 (324-6272) / 타임머신 (6388-2927) / 타임사모 (6373-7743) / 타임21 (3424-7063) / 타임월드 (3132-4108) / 패션존 (3398-7527) / 프로워치 (779-6964) / 경기(031) 시계상자 (441-0158) / 사문주얼리 (463-9788) / 유빈 (658-6883) / 타임루트 (487-9057) / 타임24 (931-5555) / 티파니 (441-0158) / 타임플러스 (371-6850) / 경기(032) 대상 (325-7467) / 핑거룸 (662-0686) / 카시오포유 (502-7138) / 광주(062) 타임엔젤 (222-3114) / 청주 보보스워치 (010-5494-5915) / 복워치 (223-1333) / 대구(053) 공주나라 (256-0975) / 풀드&워치 (424-4442) / 그리니치 (255-6165) / 대백프리차 (254-3977) / 레프 (425-0157) / 신세계몰스택 (566-3316) / 주얼리아 (428-2668) / 해피타임 (428-3086) / 부산(051) 명성시계-광복 (253-5315) / 명성시계-남포 (253-5334) / 명성시계-서면 (667-7356) / 명성시계-신창 (253-5354) / 월드타임 (245-8359)



CIRCUS M

휴대용 소변 기어

밀리는 차 안에서도 걱정 없어요.
 BY 김희성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서윤정 ASSISTANTS 손안나, 최동희



휴대용 소변기

800mL/개당 1,500원



입구에 지퍼가 달려 노란 국물을 투척한 후 지퍼를 닫아 놓으면 서서히 젤 상태로 응고된다. 소변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잘 굳지 않을 수도 있다니 급한 불일도 해결하고 자가 건강검진도 하고 일석이조. 또 물을 넣고 얼리면 아이스 쿨 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소변을 넣으면 온열 팩이 되겠지. 용변도 보고 장거리 여행에 지친 몸에 따뜻한 찜질도 시전해볼까?



간급 미니 화장실

500mL/개당 2,000원



입구를 열어 방광에 고여 있던 오줌을 세차게 내뿜으면 2초 만에 응고된다. 손으로 두세 번 정도 비비면 흡수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데 싸면서 비비면 0.5초 만에 소변이 굳기라도 한다는 건가? 남자는 나오는 입구가 좁으니 그냥 사용하면 되지만 여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봉투의 흰 부분을 뒤로 젖혀 갈때기 모양이 되게 해야 안 샌다. 다 썼으면 비닐에 싸서 발밑에 둔다. 추월하려는 차가 있으면 고속도로 한가운데로 투척, 카트라이더 물풍선이 여기있네.



코끼리즈 휴대용 소변기

500mL/ 15,000원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라더니... 귀여운 코끼리 소변을 코로 받아주는 초절정 간지템도 있다. 작고 귀여워 휴대하기 좋고, 손잡이도 달려 있다! 통 속에 특허받은 차단막이 장착돼 있어 혹시나 뚜껑이 열린 채 넘어져도 노란 국물이 새지 않는다는 게 더 대박! 추석 때 성가시게 구는 친척이 있다면 주위에 이걸 투척해 뇌라. 귀여운 디자인 때문에 물통인 줄 알고 벌컥 들이켜는 재미있는 광경을 눈 앞에서 구경할 수 있을지도.

2007년 새크라멘토 라디오 방송국 KDND의 주최로 소변과 구토를 하지 않고 가장 많은 물을 섭취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오줌 참기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 참가한 한 28세 여성은 많은 물을 단시간에 마셔 손발이 떨리고 의식이 혼탁해지는 '급성 물 중독'으로 사망했다.

AXIMUS

Maxim
View of the
World



해피피 750mL / 15,000원

급기야 인체 공학적 설계로 제작한 소변기마저 등장한다. 아코디언처럼 생겨 원하는 모양대로 휘고 길이도 조절할 수 있다. 제일 짧을 때가 18cm, 쪽 잡아 늘이면 두 배인 36cm까지 길어진다(부, 부럽...). 길이를 늘리고 줄일 땐 반드시 뚜껑을 열어야 한다. 안 그러면 용기가 찢어져 소변이 감투튀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 뚜껑을 열 땐 '핑!' 소리가 난다. 뚜껑 열다가 놀라서 참았던 오줌을 싸기도 전에 지리지 말라고.

작아도 할 건 다 해요.



호주 여성건강재단 물리요법 전문가 제니타 웹은 소변을 참을 수 있는 방법으로 "허벅다리 뒤를 세게 긁으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다리를 세게 문지르는 것으로 '오줌 쌀 것 같다'는 메시지가 방광에서 뇌로 올라가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손목 주름에서 팔꿈치 주름까지 길이를 10등분했을 때 손목에서 7번째에 위치한 할자리인 '공최할'을 누르면 오줌을 잘 참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교수는 "손에 힘이 들어가면 오히려 소변을 자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갑자기 좀 참기랑 오줌 참기 중 뭐가 더 어려운지 궁금하네.

GO GIRL 페트병에 비례/18,000원

흰 종이조각리 따위로 갈때기를 만들어 소변을 보라는 게 못마땅했던지 전 직원이 여성인 한 여성용품 회사에서는 아예 여성 전용 소변기를 내놓았다. 이름하야 고걸(GO GIRL). 제2의 피부라고 불릴 만큼 부드러운 최고급 의료용 실리콘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신체에 완벽하게 밀착돼 서서 볼일을 볼 수 있다는 걸 최장점으로 내세웠다. 핸드백에 넣을 수 있는 아담한 사이즈지만 페트병을 같이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게 함정. 게다가 가격은 18,000원! 다행히 재사용이 가능하다. 끓는 물에 넣어도 변형되지 않으니 실리콘이 다 녹을 때까지 재탕해 가격이 0에 수렴하게 만들어라.



MAXIMO이 제안하는 성범죄자 관리

스마트폰보다 핫한 첨단 기술의 장이 될 차세대 전자발찌 시장
MAXIMO이 먼저 출사표를 던진다. 게임을 시작해볼까?

BY 송종민 ILLUSTRATION 강영문 DESIGN 서윤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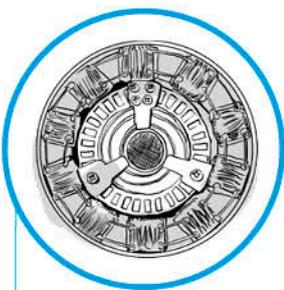


스마트 글래스

너의 시선은 감시되고 있다. 내장 마이크로를 통해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인식하면 렌즈를 통해 녹화된 전후 2분 상황이 관계 부서로 전송된다. 이를 분석해 위험 상황이면 감독관이 출동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착용자가 안경을 2분 이상 쓰지 않거나 귀 속에 삽입된 센서와 1m 이상 떨어뜨리면 "여기가 강간의 왕국이야?"라는 대사가 크게 재생된다. 주변에 발견되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

인권 침해 지수: ★★★★★

- 구글 글래스가 납품을 시도했다가 삼성 글래스에게 밀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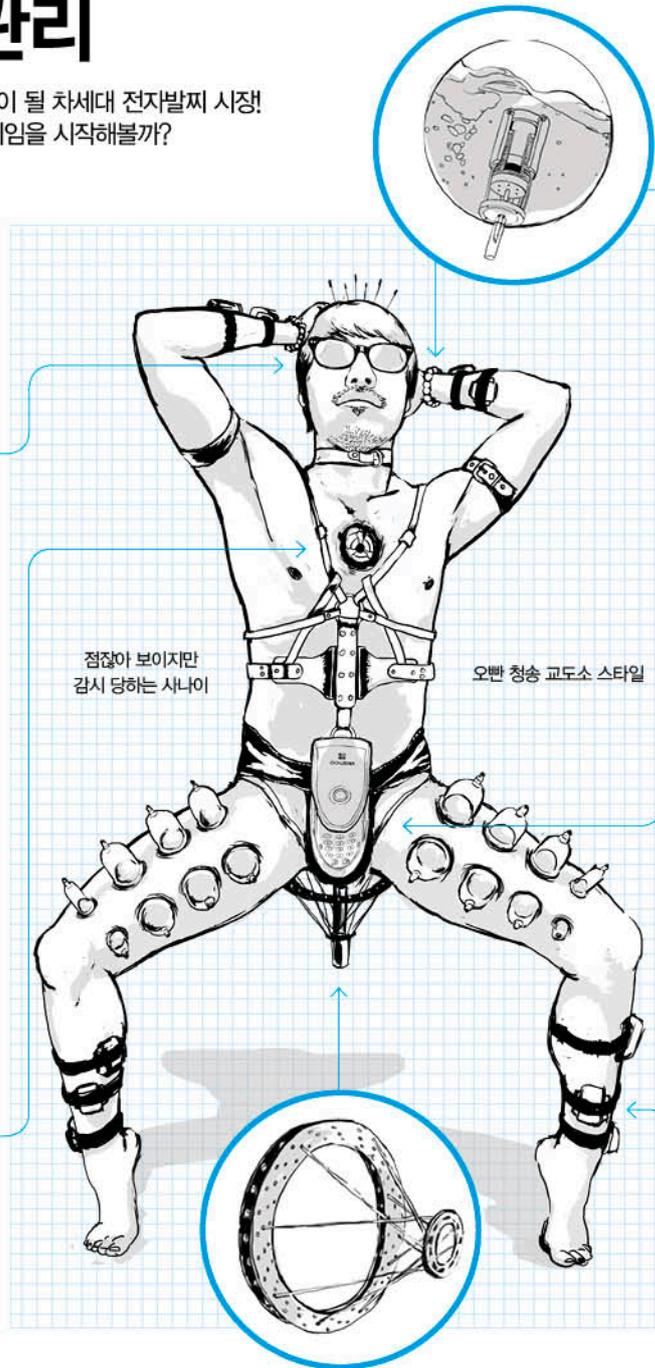


링 디 알람!

만약의 상황에 성폭력 피해자에게 강력한 제압 수단을 주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장치. 관리자의 가슴 한복판에 쉽게 누를 수 있는 버튼을 설치한다. 피해자가 이 버튼을 누르면 착용자의 심장에 강력한 전류가 흘러 들어가 일시적인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인권 침해 지수: ★

- 여친에게 정체를 들킬 위기 상황에서 쓰는 아이언맨인 척 해야 한다.



점잖아 보이지만 감시 당하는 사나이

오빠 청송 교도소 스타일

사정 관리자

밤꽃 냄새를 감지, 정액의 분출이 감지되면 감독관에서 자동으로 보고된다. 착용자는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정액을 방출했는지 5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연락이 없으면 엉덩이에 착용 중인 저스티스 스틱이 후장으로 강하게 삽입된다. 부작용으로 저스티스 스틱을 강하게 삽입당했(?) 착용자가 새로운 세계에 눈뜨게 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인권 침해 지수: ★★★

- 생면부지의 남에게 절정의 순간마다 보고가 들어간다.



전자발찌의 효과

전자발찌가 시행되기 전 3년간 전자발찌를 차지 않은 성폭력 전과가 있는 자의 재범률이 14.8%였던 점에 비해 전자발찌제도 시행 후 같은 기간 재범률은 1.67%로 1/9수준으로 떨어졌다.

나우아비타를 염주

스스로에게 한 번 더 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 성욕이 자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을 때, 이 염주에 장착된 4번째 알을 누르면 강력한 진정제가 투여된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 끝내 성욕을 풀어야했다면 8번째 염주를 깨뜨리면 된다. 강력한 오르가즘을 유발하는 약물이 분사되어 그 즉시 쌀 수 있다(...). 성욕 해소가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 다만 비용은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청구된다.

인권 침해 지수: ☆

- 나도 있었으면 좋겠네... 응?

열녀문크래시

긴긴 밤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가며 성욕을 참았던 열녀들에게서 모티브를 얻은 관리도구. 스마트 글래스와 연동하여 렌즈에 살색이 40% 이상 비치거나 동일 여성을 10초 이상 바라보면 자동으로 감시 모드로 돌입한다. 감독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허벅지에 장착된 열녀니들을 차례로 주사할 수 있다. 초반에는 따끔할 뿐인 경고지만 마취 성분까지도 투여 가능하다.

인권 침해 지수: ★★★★★ + @

- 스마트 글래스의 Add-on 상품

러시안 롤렛 클레이모어

도박에서 지면 팔을 자르듯, 몸 곳곳에 전자 클레이모어를 설치해 재범시 하나씩 폭발 시킨다. 폭발 수준은 딱 손 모가지와 발 모가지를 날려버릴 만한 수준으로 주변에 피해는 없다. 판결이 내려지면 형장에서 폭발 시키는 게 원칙이나, 스마트 글래스와 연동으로 범행 현장에서 즉시 폭발시킨 사례도 있다. 손과 발목에 달린 폭탄을 보고도 과연 재범에 도전할 용기가 생길까?

인권 침해 지수: ★

- 배팅은 네 몫. 풀리면 뒤통시던가!

TRY **HEAT UP**



올 겨울, 뜨겁게 한판붙자!

신개념 발열내의 - 트라이 히트업



트라이 히트업, 너도밤나무를 입다



마이크로 모달

당신의 피부를 지켜주는
너도밤나무 추출 친환경소재



Made in KOREA

뛰어난 품질로 이어지는
100% 국내제작



안티필링

신개념 공법으로 보름을
완벽한 새로운 원단



피부보호

약산성 약알칼리성 염과
노폐물을 중화시켜 피부를 보호

TRY
www.sbw.co.kr

가까운 트라이 전문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장 문의: 02)3485-6130

외국인에게 물었다, 신라면이 그렇게 맵나?

이게 바로 한국인의 매운맛이다
BY 누들러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서윤정

19년 연속 국내 판매 1위, 전 세계 70여 개국 수출, 해외 판매액 3억 달러(2010년 기준). <수학의 정석> 이야기가 아니다. 이 모두가 신라면의 기록이다. 그러나 길고 짧은 건 대보야 아는 법. 어느 토요일 오후, 누들러가 이태원을 한가로이 거닐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다짜고짜 신라면을 권해봤다. 맛있나? 맵나?

 **비비 FROM 남아프리카공화국**
매운 반응 정도: 🌶️🌶️🌶️🌶️



'하늘땅 별명' 블라쥬

박스프: 비비크림 발랐는가?
비비: 안 발랐다. 라면이 맵네. 물 좀 주소.
박스프: 여기 있다. 많이 맵나?
비비: 원래 매운 걸 잘 못 먹지만 이걸 특히 맵다.
박스프: 그렇군. 그나저나 부부젤라 볼 줄 아는가?
비비: 못 본다. 근데 라면과 그게 무슨 관계인가?
박스프: 남아공 월드컵을 라면 먹으면서 봐서 생각이 났다.
비비: 나도 남아공에서 월드컵을 개최해 너무 뿌듯했다. 남아공이 16강에 진출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박스프: 라면 얘기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비비: 미안하다. 그런데 난 너무 매워서 더 이상 못 먹겠다.
박스프: 그래 그만 먹어라. 근데 부부젤라 진짜 못 보는가?
비비: 병신.

 **니콜 FROM 캐나다**
매운 반응 정도: 🌶️🌶️🌶️🌶️



김면발: 카라의 니콜과 관련 있나?
니콜: 카라가 누군지 잘 모른다.
김면발: 니콜의 깜빡이 영어 학습기는 아는가?
니콜: 인터뷰 그만하자.
김면발: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면 맛은 좀 어떤가?
니콜: 너무 매워서 잘 못 먹겠다. 맛이 좀 순했으면 좋겠다.
김면발: 근데 왜 안 매운 것처럼 활짝 웃고 있나?
니콜: 카메라가 앞에 있다.
김면발: 내숭이 보통이 아닌 것 같다. 혹시 남자친구 없으면 연락처 좀 받을 수 있나?
니콜: 남자친구 있다.
김면발: 안 된다. 아직 너 진심한 사랑을 모른다. 그나저나 남자친구 싸움 잘하는가?
니콜: 꽤 잘한다.
김면발: 미안하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다.
니콜: 병신.

누들러에게
라면이란?



박스프

달고 안 매운 초딩 입맛을 지향
하고 싶은 말: "나와 같이 어린 허를 지닌 형제 자매들이여, 김면발의 주장은 다 개 소리다. 내 말에 주목하기 바란다."

김면발

갑사이신이 잔뜩 들어간 라면을 선호
좋아하는 라면: 나가사끼
싫어하는 라면: 치즈라면
없는 것: 여자친구
가진 것: 시간과 정액
좋아하는 아롱 배우: 사토미 스키

에디터가 뽑은 최악의 라면 #1

BY 손연나



확, 웃는 얼굴에 침 뱉어버릴라.

삼양 쇠고기면

희망 소매가격 650원당개 라면 포장부터 싼 티가 풀풀 풍겼지만, '맛만 있다면 이것 웃는 소 그림 따위 뭐가 대수이랴' 생각했다. 그래서 맛이 어떠냐고? 부실한 건더기 스프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정성 들여 라면을 끓인 에디터를 능욕한, 그야말로 똥같은 맛! 면발도 국물도 매운 성의 없다. '라면은 밀가루로 만든다'는 걸 새삼 일깨워주는 밀가루 내용 가득한 면에, 얼큰하지도 구수하지도 않은 애매한 국물의 조합. 앞으로 너는 쥐도 안 먹어.



Pure Scandinavian Style
COPENHAGEN

대니시디자인 | (주)거노코퍼레이션 | www.danishdesign.co.kr | 02.3397.7100 공식쇼핑몰 유로타임 www.eurotime.kr

[연세점] 제주중문면세점 (064-780-7671)

[백화점] 롯데백화점 잠실_더와치스 (02-2143-1922) / 영등포_타임마케팅 (02-2630-6883) / 부천_타임마케팅 (032-320-7173) / 대전_타임마케팅 (042-601-2253) 신세계백화점 천안_메진시계 (041-640-5081) / 광주_타임마케팅 (062-360-1291) AK PLAZA 수원_다스시계 (031-240-2199) / 분당_스타일워치 (031-781-8194) / 구로_스타일워치 (02-839-5128) / 원주_스타일워치 (033-811-5535) NC백화점 강서_다스시계 (02-2667-9508) 뉴로아백화점 안산_타임에비뉴 (031-8085-1708) / 울산_타임에비뉴 (052-210-4010) 2001아울렛 중계_타임에비뉴 (02-3399-8222) / 분당_타임에비뉴 (031-786-1808) 세아백화점 대전_글로벌타임 (042-257-7745) 이마트 지양_타임에비뉴 (02-455-6841) 디류브백화점 구로_타임마케팅 (02-2211-0143)

[판매처] 서울(02) 이와치 명동 (771-7033) / 타임마신 (6388-2927) / 패션존 (3398-7527) / 워치북 (070-4136-5090) / 드와치 (2200-1355) / 사도 (463-9788) / 정우상사 (3424-0794) / 타임21 (3424-7063) / 타임기온 (324-6272) / 타임시크 (6373-7743) / 타임월드 (3132-4108) 경기(031) 사문주얼리 (463-9788) / 유빈 (658-6883) / 타임루트 (487-9057) / 티파니 (441-0158) / 탐타임 (413-7656) 경기(032) 대성 (325-7467) / 행복통 (662-0888) / 카시오프유 (502-7138) 광주(062) 타임엔터프 (222-3114) / 타임파티 (226-0305) / 골드메니아 (410-0138) 황주 보보스워치 (010-5494-5915) / 북워치 (043-223-1333) 대구(053) 광주나라 (256-0975) / 골드워치 (424-4442) / 레프 (425-0157) / 스위스 (639-5252) / 신세계몰스텍 (566-3316) / 주얼리아 (428-2688) / 대백프라자 (254-3977) / 해피타임 (428-3086) 부산(051) 명성시계-공복 (253-5315) / 명성시계-남포 (253-5334) / 명성시계-서면 (667-7356) / 명성시계-신강 (253-5354) / 서울시계 (245-0625) / 왓슨 (919-4704) / 월드타임 (245-8359) 김해(055) 시계백화점 (337-8166)

쇼 FROM 일본
매운 반응 정도: 🌶️🌶️🌶️



김면발: 한국말 할 줄 아나?
쇼: ?
김면발: 스미마센. 라면 맛은 좀 어떤가?
쇼: 맵다. 하지만 맛있다. 매운맛이 나의 세포를 자극한다. 엄청난 에너지가 생긴다. 폭발할 것 같다.
김면발: 애니메이션을 자주 보는가? 흑시 <에반게리온> 아는가?
쇼: 그렇다. 좋아한다.
김면발: 오덕이네.
쇼: 난데스카?
김면발: 스미마센. 라면 맛에 대해 좀 더 설명해달라.
쇼: 고춧가루가 코골을 강하게 자극해 매우 흥분된다. 허가 아픈데도 자꾸 먹게 된다.
김면발: S보단 M쪽이군.
쇼: 취향을 존중해달라.
김면발: 스미마센. 너도 이야기했으니, 공평하게 나도 내 취향을 이야기해주겠다.
쇼: 병신.

* 다소 잘못게 굴었지만 성실하게 인터뷰에 응해준 비비, 니콜, 쇼, 칼리테마니에게 이번 두 페이지를 바친다. 니콜은 흑시 짓가락질 배우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 바란다.

칼리테마니 FROM 인도
매운 반응 정도: 🌶️



박스프: 나마스떼.
칼리테마니: 나마스떼.
박스프: 카레?
칼리테마니: 카레?
박스프: 아는 인도어 다 말했다. 이제 영어로 하자. 레츠 잉글리시.
칼리테마니: 알았다. 이 라면 원래 알고 있었다. 가끔 먹는다. 맛있다.
박스프: 근데 진짜 인도 가면 코끼리가 곳곳에서 걸어 다니나? 달걀 같은 사람도 있고?
칼리테마니: ?
박스프: '요가파이어'를 모른다니. 관두자. 맵지는 않은가?
칼리테마니: 이것보다 더 매운 카레도 많다.
박스프: 카레 하면 역시 오뚜기 아닌가. 흑시 오뚜기 '3분 카레'를 아는가?
칼리테마니: 잘 모른다.
박스프: 요즘에는 '카레여왕'도 괜찮은 것 같다. 망고&바나나 맛 먹어봤나?
칼리테마니: 병신. 🙄

별칭 스프
라면으로 외국인 미녀
꼬시는 방법

STEP 1. 라면을 산다



STEP 2. 라면을 권한다



STEP 3. 사랑에 빠진다



니콜, 사랑해. 돌아와.

신라면 더 맛있게 먹는 법

방법1 설탕을 투하하라

같은 신라면인데 '김밥지옥'에서 사 먹는 라면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 면 그 이유는 설탕 때문이다. 라면에 설탕을 반 스푼 정도 투하하면, 어린 시절 동네 분식집에서 먹던 그 라면이 떠오를 거다.

방법2 식초를 첨가하라

느끼한 걸 싫어하는 사람은 라면에 식초를 1티스푼 정도 첨가하는 게 좋다. 인스턴트 라면 특유의 기름기도 없애주고 라면이 쉽게 부는 것도 막아준다.

방법3 계란은 미리 준비하라

지금껏 계란을 그냥 툇 깨 넣었다면 이전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계란은 미리 풀어서 참기름, 깨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놓고, 면이 90%쯤 익었을 때 가장자리로 휘휘 둘러가며 뿌린다. 맛도 모양도 꽤 그럴싸하다.





HELL DIVER

1942 SB2C



헬다이버 | <http://www.helldiverwatches.com> | 공식수입원 에이맨 인터네셔널 1644.3885 | 총판 프로워치 02.779.6964

서울 - 사 또(동대문) 02-2118-8075 | 타임랜드(은평) 02-350-8417 | 이츠와치(홍대) 02-323-0980 | 와와치(반포) 02-537-8977
이타임월드(신촌) 02-313-4108 | 윈타임(왕십리) 02-2200-1355
경기 - 샤론주얼리(안양) 031-463-9788 | 시계상자(안양) 031-441-0158 | 보석상자(안양) 031-466-1014
담타임(안산) 031-413-7656 | 티파니(일산) 031-931-5300 | 뽕끼통(부천) 032-662-0686
인천 - 워치보이 070-8632-5300 | 타임런 070-7516-4545 | 청주 - 복와치 070-8721-9731 | 부산 - 타임봄 070-7530-1219

좀비의 뇌 요리법

한번 보면 좀처럼 뇌에서 떠나지 않을 건강 레시피. 미국 케이블 TV 트래블 채널에서 <기이한 음식들(Bizarre Food)>을 진행하는 앤드루 짐먼에게 배운다.

허브와 버터를 곁들인 송아지 뇌 요리
애플타이저 4인분 또는 전체요리 2인분 기준

썰고 뜯고
맛보고
즐거는 영상



재료

- 신선한 송아지, 돼지, 양 또는 사슴의 뇌 450g
- 물 1.4L
- 다진 채소(양파, 당근, 셀러리) 1컵
- 화이트 와인 4컵
- 약간의 소금과 후추로 간한 밀가루 2컵
- 버터 85g (무염이나 저염 밀고 짙은 버터로 하자. 당신이 언제부터 건강 챙겼다고...)
- 잘게 다진 샬롯(작은 양파) 3큰술(없으면 쪽파로 대체)
- 다진 사철쑥(허브) 잎 3큰술
- 잘게 다진 파슬리 1큰술
- 레몬 1개(짜서 즙을 내고, 껍질을 조금 준비한다)
- 바닷소금, 흰 후춧가루 약간씩
- 구운 빵 먹고 싶은 만큼

조리법

1. 물과 다진 채소, 준비한 와인 3컵을 냄비에 넣고 중간 불에서 끓인다. 한 김 올라오면 불을 줄여 팔팔 끓인다.
2. 깨끗한 면포를 이용해 뇌를 조심히 냄비 안에 옮겨 담고 5분간 졸인다.
3. 불을 끄고 4~5분 동안 식었다가 내용물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작은 쟁반에 담고 냉장고에서 약 2시간 차갑게 두어 굳힌다.
4. 미리 간한 밀가루에 뇌를 굴린다.
5. 프라이팬에 준비한 버터 3분의 2를 넣고 중간 불-강한 불 사이의 화염으로 데운다. 버터가 갈색이 되면 허영계 된 뇌를 넣고 한쪽 면을 갈색으로 굽는다.
6. 한 면이 익어 투 페이스가 된 뇌를 구석으로 옮기고, 프라이팬 가운데에 사철쑥 이파리 다진 것을

- 넣고 달달 볶아 부드럽게 한 뒤 남은 와인을 붓는다.
7. 뇌를 다시 프라이팬 가운데에 놓고 불을 조금 줄여서 즙이 스스처럼 졸아 뇌에 쭈뼛 스며들도록 한다. 아유, 머리에 쭈뼛 들어오네.
 8. 불을 끄고 남은 버터를 저으면서 레몬즙과 껍질을 넣어 풍미를 더하고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한다. 구운 빵과 함께 뇌를 접시에 담아 상에 올린다. 주변에 동료 좀비가 침을 흘리고 있지 않은지 꼭 체크할 것! 우어어어~!

NEW ERA LIVE NATION



NEWERA STORE

- NEW ERA LAB, B1F, 40-1, JAMSIL-DONG, SONGPA-GU, SEOUL, KOREA, TEL: 02.2143.1589
- NEW ERA LAB, 2F, SQUARE ONE, 926, DONGCHUN-DONG, YEONSU-GU, INCHEON, KOREA

FOLDER

- E-LAND FOLDER, 87, BUNGMUNNO 1-GA, SANGDAND-GU, CHEONGJU, CHUNGCHEONGBUK-DO, TEL: 043.259.2798
- E-LAND FOLDER, 31-5, MYEONG-DONG 2-GA, JUNG-GU, SEOUL, TEL: 02.318.0962
- E-LAND FOLDER, 30-22, CHANGJEON-DONG, SEODAEMUN-GU, SEOUL, TEL: 02.332.6737

ONLINE STORE

- WWW.NEWERACAPKOREA.COM

FLY YOUR OWN FLAG™



진짜 죽같은 맛이에요

WANNA PLAY WITH JACK? 호박 램프 만드는 법

할러윈데이를 상징하는 불변의 마스코트 호박 대가리, '잭오랜턴' 만들기!

BY 조종재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서윤정

섬유질과 씨가 튀는 고어 영상



잭오랜턴

(Jack O'Lantern)?

구두쇠 잭이 죽은 뒤에 구멍을 떠들다 악마에게 사정해 얻어낸 숯불을 순무에 넣어 만든 램프였길 년로, 그러니까 원래는 호박이 아니라 순무라고요?

LET'S MAKE IT! 참 쉽죠?



위험하지 않은 준비를 준비하세요

1 일단 속이 드러나면 길을 씻어내기가 힘드니, 표면의 먼지 등을 잘 씻어낸 뒤 두껍을 따자. 비스듬히 썰지 않으면 두껍이 호박 안으로 빠져버리는 대참사가 발생하니 주의할 것. 크고 아름다운 양키 펌프킨과 달리 국산 늙은 호박은 위아래가 납작하고 겉껍질이 두꺼워 들쭉시기가 힘들다. 호박에 혈서를 쓸 게 아니라면 목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자. 대용으로 의료용 라텍스 장갑을 낀다면 비주얼 효과가 두 배. 김명민이 되어 호박을 시술하는 느낌일 거다.



깔끔하고 친절하게 속을 팝니다.

2 조각을 손쉽게 하기 위해 호박 안을 최대한 깔끔하게 파낸다. 특히 얼굴 부분은 수저나 주걱 등을 사용해 더 신경 써서 작업해야 한다. 뚫은 눈, 코, 입 사이로 섬유질이 덜렁거리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속을 파내지 않고 눈썹이나 코를 깎았다간 온갖 구멍에서 내장을 철철 흘리는 불편한 비주얼이 연출된다. 하지만 구태여 속이 뒤집어지는 꼴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은 말리지 않는다. 그냥 니 취향대로 하세요.



이유 예쁜 내 새끼.

3 이목구비를 새겨 넣는 가장 중요한 단계. 일단 연필이나 펜으로 호박의 이목구비를 스케치한다. 단, 칼이 빛나갈 경우를 대비해 실제 팔 곳보다 작게 그리는 게 좋다. 이제 면상에 칼을 대보자. 호박의 관상이 결정되므로 최대한 조심스럽게 썰시도록. 자칫 잘못했다간 눈썹이 짹짹이 된다거나 언청이가 되기 십상이니 애정을 갖고 섬세하게 파낸다. 대충 칼질한 후 뜯어내면 모양이 망가진다. 반드시 같은 절단면도 여러 번 칼질해 잘린 덩어리가 알아서 '씩' 빠지게 만들자.

HALLOWEEN or HELL-OWEEN

할러윈데이 황당 사건 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난시왕

2008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거주하는 패트릭은 "TRICK OR TREAT!"를 외치며 자신의 집을 방문한 12세 소년을 강도로 오인해 자동소총으로 무려 29발을 쏘 사망케 했다.



세차비 따위는 필요없다

2010년 미국 애틀랜타 북서부 지역에서는 지나가며 달걀을 자신의 차에 던졌다는 이유로 운전자 10대 소년을 총으로 쏘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달걀 맞는 직업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얘기.



폭탄은 균용으로

2002년,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서 14세 소년이 사제 폭탄을 만들어 운동장에서 갖고 놀다 손에서 폭발하는 바람에 온몸에 상처를 입었다. 복부에 파편이 박혀 제거 수술까지 받았다고, 군대에서 사제를 못 쓰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TIP 호박 고르는 방법

- 눈, 코, 입을 충분히 팔 수 있을 정도로 큰 녀석을 산다.
- 두드려보고 속이 딱 찬 녀석을 고르자. 빈 소리가 나면 썩은 녀석이다.
- 생각했던 두상과 가장 가까운 모양의 호박을 고른다.

성공하는 남자가 벗어야 하는 것은 일단 !

BY 김진욱 ILLUSTRATION / DESIGN 서운정

안경은 그저 거울 뿐! 아직도 눈이 나빠 안경을 쓰는가?!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것은 누가 뭐래도 만고의 진리이다. 이것이 꼭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빠 속 깊이 가부장. 남녀가 만나 사랑에 빠지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단 3초라 는 연구결과가 있다. (예쁜 GIRL과 MAN에게 영혼 을 파는 건 당연하잖아?) 어쨌든 3초 안에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첫인상'. 그 뒤로 만회하 기 위해 열심히 삽질하는 30년 보다 첫인상 3초가 훨씬 중요하다. 또 첫인상이 좋으면 사회 생활이 편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진리이다. 그렇다면 그 첫 인상의 결정 요소는 어느 부위일까?

얼굴은 첫인상을 좌우하고, 초롱한 눈은 얼굴을 좌우한다.

그 정답은 얼굴! 몸보다 직관적으로 먼저 눈에 띄는 곳이 얼굴이다. 실제 기업 인사 담당자 4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첫인상을 결 정하는 가장 큰 요소로 꼽힌 것도 바로 얼 굴(56.7%)이었다. 그러나 좌절은 말자. 반 드시 잘생긴 외모가 곧 좋은 인상을 뜻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멘토링에 참여한 외 국계 기업 인사담당자는 '외모는 중요하나 미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조언했다.(응?) 아름다움보다는 호감 가는 인상을 가져야 한다는 것! 동서고금을 막 론하고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바 로 '눈빛'. 그래서인지 이번 가을, 인상을 바꾸고 성 공의 삶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많은 남성들이 시력 교정수술을 통해 광명을 찾고 있다. 아...결국 이 말 을 하기 위해 초반부터 에디터는 이렇게 지랄...

안경만 벗고나면.
내가 너랑 사귄 확률은
요만큼이야.



배우 자진희 님은물로
화제가 된 안과 전문의
김성일 원장

Q&A 라식, 라섹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모아(언제적 개그...), 안과계의 훈남 김성일 원장에게 물어보았다.

Q: 전, 군인입니다. 휴가를 이용할 수술 가능할까요?
A: 그럼요, 군인들의 경우 최대한 빨리 광명 찾고 복귀 전까지 깨알같이 재미있게 보내야 하니 수술하자마자 바로 시력이 회복되는 라식 수술을 선호해요. 최근의 라식 수술법으로는 크리스탈 라식 수술이 있는데 수술 후 수술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바로 시력 교정 효과를 느낄 수 있고 한 숨 푸욱~ 자고 나면 시력이 회복됩니 다. 아프지 않고, 회복은 빠르기 때문에 군인 뿐 아니라 직장인들도 휴가를 이용해 많이 하고 있지요.

Q: 라식과 라섹, 뭐가 다른 것이죠?
A: 두 수술은 시력을 교정한다는 목적은 같으나 수술 의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라식 수술은 레이저 또는 블레이드로 각막을 절삭하고 시력교정을 하구요, 라섹 은 각막 상피만을 정교하게 벗겨낸 후에 레이저를 조 사하여 시력교정을 하는 수술인데요, 라식은 아프지 않고 매우 빠른 회복이 장점이라든 라섹은 수술 후 외 부 충격에 강하고 각막이 얇거나 고도근시여도 수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담 후 각자의 상황

에 따라 라식과 라섹 중에서 더 적합한 시술 방법을 쓰 는 것이 좋겠죠?

Q: 의사 생들은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지 않는다는 데, 진짜예요?
A: 저는 원래 눈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았 죠. 그러나 저희 부인과 이모님은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직접 수술을 했습니다. 안과 의사가 수 술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희 안과의 다른 원장님 도 라섹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게다가 그 분은 군인대 전의 아들에게 직접 라식 수술도 해 주셨고요. 아드님 은 군생활에 전혀 문제없이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했 습니다. 오히려 안경을 안 써서 생활이 편했다고 하더 라구요. 안과 의사는 라식이나 라섹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루머는...대체 누가 퍼트렸을까요?? (전 아닌 데요?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역할인, 원장님.)

Q: 마취는 안 아프죠? 주사 맞는 건 싫는데...
A: 라식, 라섹 수술의 마취를 주사로 한다고 아는 분이

있으신데 수술을 위한 마취는 간단하게 안약으로 합니 다. 물론 아프지는 않구요.

Q: 수술 중 눈을 움직이면 큰일난다던데??!
A: 시력 교정 수술에 쓰이는 최신의 레이저 수술 장비 는 5차원 안구추적장치를 갖추고 있어 시축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는 안구의 회전에 따른 위치 변화를 추적 보정해요. 1, 2차원(좌우, 상하)의 평면적인 안구 움직 임만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5차원(안구가 기우는 현상) 까지 입체적으로 추적하여 이 움직임을 따라 레이저를 조사하기 때문에 수술 중 일어날 수 있는 안구 움직임 이 매우 정밀하게 보정하게 되어 수술 중 눈을 움직여 도 시력교정수술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술 중 눈을 레이저 수술장비가 끝까지 쫓아 가며 레이저를 쏘는 것입니다. 안구만 집착하는 능력은 스토커 저리 가라죠. 그렇다고 한 번 해보자는 자세로 이경규 눈알 굴리기만 하지 않으면 문제는 없어요. 하 하...하. (추억의 개그 개그~!)

도움말: 안과 전문의 김성일 원장

"보름달로 볼륨업!"

아름다운
촬영 현장



10월은 유방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핑크 리본 캠페인의 달'이다.
유방암 환자의 70% 이상이 자가 검진으로 암을 발견한다니 이 기사를 보면서 여친의 유방 건강을 직접 체크해보자.

유방암 자가 진단법

이왕 만질거면 그녀의 가슴 건강까지 챙기면서.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ASSISTANTS 조웅재, 이영환, 박종원 FILM 최성준 MODEL JH DESIGN 서윤정

빵이 너무
작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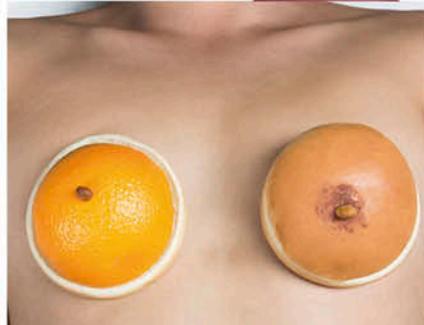
1

유방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 1%는 남성이다.
여기저기서 가슴에
손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구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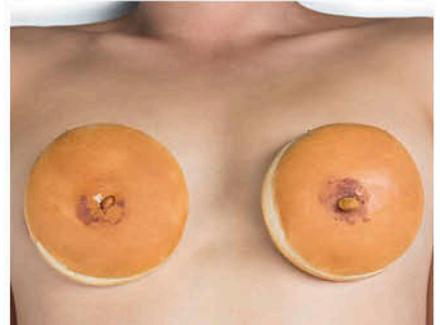
※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증상1. 한쪽 유방의 크기가 평소보다 커졌다.



증상2. 유방의 피부가 굴 겁질처럼 거칠어졌다.



증상3. 평소와 다르게 유두가 함몰되어 있다.



증상4. 유두가 붉게 변했다.



증상5. 분비물이 나온다.



증상6. 덩어리가 만져진다.

끝나고 먹어지지. 헤헤.



거울을 보고 심장 박동이 커진 적이 있나요?

남들보다 큰 가슴 때문에 걱정한 적이 있나요?
살이 찌는 편도 아닌데 유독 가슴만 볼록해서 고민으로 밤샘 경험은요?
그렇다면 혹시 **여성형 유방증**은 아닐까요?

실루엣 성형외과의 여성형유방증 클리닉을 찾는 이유.

1. 풍부한 시술 경험 YES!
2. 유두에 작은 구멍을 통한 시술로 흉터 걱정은 적게
3. 혹시 모를 재발 위험, **재수술 가능**
4. 당일 수술, 당일 치료 가능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드물게 수술 후 부작용으로 혈종 또는 비대칭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윤상엽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진료 분야:
가슴 성형, 여성형유방증, 함몰 유두, 유두 축소, 복부 성형

현) 실루엣성형외과 대표 원장
서울 아산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수료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
서울 아산병원 성형외과 임상자문의 및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외래 부교수 위촉



여성형 유방증이란? 여성형 유방증이란 남성의 가슴이 비대하게 발달, 유방처럼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꿀피부 하나가 열 스펙 안 부럽다!

아직도 남자의 자신감은 그것(?)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나?
BY 정진선 DESIGN 신숙희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데 왜 내 마음은 훌쩍한 걸까? 하반기 취업 준비를 앞두고 토익이며 학점이며 미친듯이 준비해왔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하나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피부!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웬 멍게 하나가 울상을 짓고 있지 않겠는가. 외모도 스펙이 되는 이 시대에 멍게 피부로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사회 생활하기 힘들 것 같다. 자신감마저 점점 잃어만 가는 나에게 희망의 손길을 뻗어줄 사람 어디 없을까?

쫄쫄, 안타까운 이야기구먼.
여드름에 좋다는 거 다 해 본 나도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그래서 말인데...
여드름 흉터에 특효인 치료법 하나 알려줄까?
한의원 손철훈 원장님을 찾아가면 바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대구!

BEFORE & AFTER



왼쪽 얼굴

BEFORE → AFTER



오른쪽 얼굴

손철훈 원장님이 전하는 여드름 흉터 치료 비법 대공개!



흉터에는 효과가 있지만, 사실 여드름 흉터는 좁고 깊은 흉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개발한 SL흉터 재생술은 손수 흉터 하나하나에 방향과 깊이가 다른 구멍을 내어 좁고 깊은 흉터에 새살이 차오르게 합니다. 또 흉터에만 부분적으로 집중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에 따른 고통도 줄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구멍은 피부 콜라겐 조직을 자극하는 생약 재생 물질인 SL109로 채웁니다.

Q3. SL흉터 재생술의 효과는 어떤가요?

A3. SL흉터 재생술에 쓰이는 생약 재생 물질 SL109는 피부와 친화도가 매우 높고 인체에 무해합니다. 구멍에 채워진 SL109는 체내 콜라겐 성분을 자극하여 기존의 치료법보다 2~3배 많은 새살을 만들어 내고 신체에 흡수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 번의 시술만으로도 흉터 부위에 살이 찬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SL흉터 재생술을 받은 후 바로 일상 생활이 가능할까요?

A4. 보통 각질이 5일 이내에 일어나고 그 흉터 부위에만 딱지가 생기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되도록 세안을 5일 정도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세안을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외출할 시에는 흉터 부위에 BB크림이나 선블록 제품을 발라서 자외선으

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Q5. 여드름 흉터로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5. 여드름 흉터는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흉터에 좋다는 달팽이 크림 화장품도 패인 흉터에는 효과를 볼 수 없지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흉터를 치료해야만 피부 재생도 잘됩니다. 당장 이성친구를 만나거나 취업 면접을 봐야할 때면 난처하겠죠. 휴식 기간이 생길 때 저희 한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여드름 흉터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피부로 자신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Q1. 여드름 흉터는 자연스럽게 치유된다는 말이 있던데 굳이 치료를 받아야만 하나요?

A1. 이미 진피조직이 손상되고 더 이상 살이 차오르지 않은 것을 흉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움푹 패인 여드름 흉터는 시간이 지나도 더 이상 새살이 차지 않습니다. 붉고 열은 여드름만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는 있죠. 기존의 필링이나 MTS 시술과 같은 치료법으로도 없어지지 않던 여드름 흉터를 저희 한의원 SL흉터 재생술로 80% 이상 채울 수 있습니다.

Q2. 기존 치료법과 SL흉터 재생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2. 기존의 프락셀이나 MTS 시술 같은 치료법은 일정간격으로 피부에 구멍을 내서 치료합니다. 그래서 알은

도움말 주신 분



손철훈 원장
한의원 전문의

진료 분야

여드름,
여드름 흉터

- 한의원 원장
- 한의학 박사
- (피부키라리스) 저자
- 前 대한스포츠 한의학회 회장
- 경희대 한의과 대학원 강사
- 에스킨이카데미 공동 대표

역사의 맥심을 짚어주는
핵심 교양강좌

GOD of 막장
칼리굴라 황제

막장황제라면
뭐니뭐니해도
로마제국의
칼리굴라 황제!



Caligula,
12.8.31 ~ 41.1.24
제위 37 ~ 41



로마 시민들
대환호!



그 유래함에
로마 시민들
대폭소!



지강은
양수하고

부자들 하살에
로마 시민들
대환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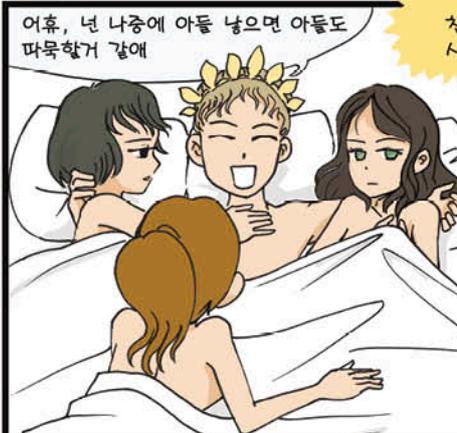


궁궐에 고급 사창가와
전문 육성 센터를 개설

하하, 여기서 이 선생님들에게
배울게 많을 겁니다

귀족들의 처자식을 (인질로)
궁궐에서 살게하면서
다함께 난고 파티

성문화 창달에
로마 시민들
대환호!



어휴, 넌 나중에 아들 낳으면 아들도
파죽해거 같애

친여동생 세명처럼
사이좋게 같이 가는 황제!

내가 오빠처럼
미쳤는줄 아나

이렇게 인기 절정의 황제였지만
경호실장을 여자라고 놀리다가
칼뿔맞고 사망. 향년 29세.

여동생 아그리파나는
훗날 네로 황제의
엄마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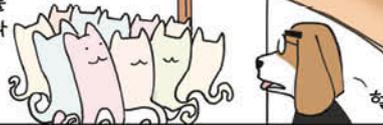
그러자 주말에 사람들은
칼리굴라를 보기 위해
죄다 보스턴을 빠져나감



난고 근친 광풍!
기형아
임산부!
스캇!
SMI
NTRI!!

미쳤나?

이후,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싫어지는 효과를
칼리굴라 효과라
부르게 된다.



칼리굴라 석고상
(좌석고대죄)
129000W

R A T E

Your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난쟁이들중엔
그래도 내가 창신이라고..

난쟁이들이 온다! 호빗: 뜻밖의 여정

그놈의 절대 반지가 대체 뭐라고...

BY 손안나 DESIGN 신숙희 IMAGE 올렛시네마

.....
《호빗》의 주인공은 《반지의 제왕》에서 프로도의 삼촌으로 나온 '빌보'다. 긴달프, 12명의 난쟁이와 모험을 떠나게 된 빌보가 우연히 골룸의 절대 반지를 득템하고는 X된다는 내용. 아... 이로서 우리 할머니도 길에서 뭐 힘부로 주워오지 말라고 하신 거구나. **12월 13일 개봉**



예고편
감상하기



나를 빼고 귀요미를
논하다니...!



영화 속 매력적인 난쟁이들

길고 짧은 건 대박야...

미니미

오스틴 파워 2 - 나를 쫓아온 스파이

차밍 지수 ★★★★★

오스틴과 대적하는 악당 아들의 키 작은 복제인간 '미니미'는 단연 이 영화의 아이콘이다. 아들과 미니미가 'Just The Two Of Us'를 열창하는 장면이 압권. 실제 난쟁이인 이 배우가 몇 년 전 여친과 찍었던 섹스비디오키가 유출됐을 때, 사람들이 자작 의혹을 제기해서 굴욕을 맛보기도 했던 그 키 작다고 놀리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미니미'였느냐.



리틀 섹스 마신

옴파롬파족

찰리와 초콜릿 공장 차밍 지수 ★★★

윌리 월카 초콜릿 공장에서 쾌활하게 초콜릿을 만들던 '옴파롬파족'은 사실 '딤로이'라는 배우 한 사람이 모두 연기한 것. 한 컷을 만들기 위해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해야 했던 그의 개고생을 인정한 팀 버튼 감독은 촬영이 끝나고 그의 출연료를 100만 달러로 올려줬다고 한다. 자식, 상도덕은 있네.



백만장자 난쟁이

난쟁이 창녀

토탈리콜(1990) 차밍 지수 ★★



사람 잡는 여자 난쟁이

콜린 파렐 주연의 리메이크 작 말고, 아놀드 아저씨 주연의 원조 <토탈리콜>은 가히 SF계에 한 획을 그은 명작이다. 여기엔 귀여운 외모와 달리 총으로 남자들을 쏘죽이는 반전있는 여자 난쟁이도 나온다. 영화 배경이 우주총해서 그런지, 금발의 창녀로 나오는 그녀가 별로 안 섹시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베이비 캘빈

리틀 맨 차밍 지수 ★



어덜트 페이스

<화이트치즈> 감독의 후속작이 아니 만큼 더러운 B급 유머와 매력적인 흑형들이 가득하다. 키가 작은 난쟁이 보석털이범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아기인 척한다는 얼척없는 스토리지만 극 중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 근데 저 얼굴이 '베이비'란 설정은 너무 심한거 아니?

호빗 vs. 반지의 제왕

	호빗	반지의 제왕
원작자	J.R.R. 톨킨	J.R.R. 톨킨
영향받은 작품	베오울프	호빗
감독	피터 잭슨	피터 잭슨
주인공	빌보(마틴 프리먼)	프로도(일라이저 우드)
시대 배경	2941년	3018년
원정 멤버	15명	9명
절대 반지	아싸, 득템!	용광로에 갖다 버려!
간달프	2012년	2001년



직장인이 밟수 있다...

총질의 이유

총 없이 살 수 없는 할리우드, 총기소지가 합법인 이유가 있고요!
BY 송종민 DESIGN 전은경

→ 회사원

아무한테나 돈 받으면 총질
개봉 10/11

예고편도
총질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늬은이?

익스펜더블 2

맨날 하던 게 총질이나가
추억 돌아서 총질 개봉 9/6



아 왜 나만...

루퍼

미래에서 온 자신에게도 총질
개봉 10/11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때머리?

세이프

총질보다 발차기가
강해 발길질 개봉 9/27



런던 블라바드

총질 안 하려고 구한 직업이
보디가드라 또 총질 개봉 9/20



링컨: 뱀파이어 헌터

대선 지지를 올리려고 총질
개봉 8/30



나도 좀 3D로
해주지 그랬냐

레지던트 이블 5

좀비 잡는 데는 헤드샷이
최고라 총질 개봉 9/13



로우리스: 나쁜 영웅들

갱이나 경찰이나 그놈이 그놈이라
법도 없이 총질 개봉 10/18



잠깐 이내 좀
구하고요

테이큰 2

맨손으로 죽어도 되는데
귀찮아서 총질 개봉 9/27

총은 안 나오지만 농치기 아깝다!



19금 테드

말하는 인형이 신기한 세상은 지났지만 귀여운
곰 인형이 입에 걸레를 문 것처럼 씹육을 해대
는데 웃기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덩치만 컸지
속은 아직 예기인 남자를 연기하는 마크 월버
그의 연기가 웃음을 뚝 멈추게 할 확률은 남아
있다. 개봉 9월 27일



저질탕 어디 갔니
아주 한방에 아오

조조: 황제의 반란

조조가 나라중의 <삼국지 연의> 때문에 이미지
외곡에 사달린건 사실이다. 하나 한한제의 방탕
한 생활로 몰락 위기에 처한 한나라가 조조의
충성으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한다는 설정이라
니? 웬지 장예모 <영웅> 이후로 또 어용 영화가
튀어나오진 않을까 걱정인데. 개봉 10월 11일

<다크 나이트 라이즈>
톰 하디

<트랜스포머>
샤이아 라보프

<다크 나이트 라이즈>
게리 올드만

<프로메테우스>
가이 피어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미아 와시코브스카

<엘프>
제시카 차스테인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갱스터 액션 블록버스터!



<다크 나이트 라이즈> '베인' 톰 하디 vs <트랜스포머> 샤이아 라보프!
100억 달러 흥행 수익 블록버스터 출연진 세기의 연기 대결!
완벽 그 자체 극찬과 호평, 칸 영화제 공식 경쟁작!
베스트셀러 소설 원작 <더 로드> 존 힐코트 감독의 연출력!
전설이 된 형제들의 실화, 강렬하게 사로잡는 남자들의 매력!

<더 로드> 존 힐코트 감독

로우리시

나쁜 영웅들

공짜티켓
받으러 가자



BENARDIA PICTURES and FILMATION ENTERTAINMENT PRESENT IN ASSOCIATION WITH ANAPOLINA PICTURES A DOUGLAS WICK/LUCY FISHER PRODUCTION A GILMANSOHN/ALLEN FILMS PRODUCTION A JOHN HILLCOAT FILM SHIA LABEUF TOM HARDY GARY OLDMAN MIA WASKOWSKA JESSICA CHASTAIN JASON CLARKE AND GUY PEARCE "LAWLESS" CASTING BY FRANCINE MASSEUR, C.S.A. KATHLEEN TRUSCELL-MOHLER JOHN MARRIOTT WILSON MUSIC BY NICK CAVE AND WARREN ELLIS COSTUME DESIGNER DAVID SARDY AND JORDAN TAPPIS EDITOR DYLAN TICHENOR ACS EXECUTIVE PRODUCERS CHRIS KENNEDY JEFFREY BENNETT DELIUMAK ACS PRODUCED BY CLAYTON YOUNG JAMES LEASEK CO-PRODUCED BY JOHN ALLEN MATTHEW DUBMAN WRITTEN BY DANY WOLF BASED UPON THE NOVEL BY MICHAEL BERNARDIA SCREENPLAY BY MATT BONIBANT DIRECTED BY JOHN HILLCOAT

10월,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전쟁이 시작된다!

나쁜 놈들 전성시대: 사고뭉치 아이돌의 뮤직비디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미지 제대로 굳혀보자! BY 박한빛누리 DESIGN 신숙희



티아라 <SEXY LOVE> 사건 발생: 2012년 7월 말, 멤버 화영 집단 따돌림설

지난달 핫이슈였던 티아라를 기사로 못 다뤄 입맛만 다시던 MAXIM을 위해 더 빨리 컴백한 광수의 아이들. 뮤비는 배트맨 지하 기지 같은 무대 세트에서 티아라 멤버들이 인형이 되어 포장을 뜯고 튀어 나와 노래에 맞춰 내내 춤만 춰댄다. 차가운 시멘트 벽, 초점 없는 눈빛, 원색적인 조명으로 인간이 아닌 '인형'의 느낌을 최대한 살렸다. 이번 콘셉트를 위해 실생활에서 인간미를 버리는, 장기간에 걸친 쉽지 않은 프로젝트를 수행한 그녀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천안에 계신 어머니께 함은정 좋아하는 떡이라도 한 상자 보내달래야지.

이걸 넣지 그랬어: 중간마다 HD 카메라가 아닌 '하두리캠'으로 촬영한 장면 삽입.



G-DRAGON <GXXX>

사건 발생: 2011년 10월, 일본에서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유예

뮤비에 돈을 아끼지 않는 YG. 덕분에 역시 때깔이기가 막하다. 바람 피우는 나쁜 놈, 그걸 목격한 착한 놈, 1인 2역을 연기하는 자용이의 연기력은 당장이라도 칸 영화제에 출품해도 손색없다. 나쁜 놈 역할의 GD 문신이 매직으로 그린 게 너무 티 나서 헛웃음을 유발하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클로즈업 샷에서 얼굴을 들이밀며 손가락질을 하는 그를 보면 "그래 나 약 했다. 근데 나 GD니까 즐라 멋있잖아!" 하는 록스피릿도 느껴진다. 과한 클로즈업으로 그의 안 좋아진 피부를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어, 대마초는 피부에 안 좋다는 캠페인으로 활용해도 될 듯하다.

이걸 넣지 그랬어: 나쁜 남자라면 역시 목을 조르며 상관계하는 장면은 필수!



슈퍼주니어 <SPY>

사건 발생: 2009년 9월, 폭행 사건&음주 뺑소니 후 도주 사건으로 불구속 입건

음주 파이터 강인의 제대 후 첫 번째 슈퍼주니어 앨범. 네티즌의 못매를 의식한 소속사 탓인지 강인이 많이 안 나온다. 딱히 노래 파트가 많은 것도 아닌데, 잘생긴 시원과 동해가 과도하게 등장한다. 여기서 전체적인 뮤직비디오의 퀄리티가 높아졌다. 손발이 오글거리는 가사도 모자라, 핏방울이 떨어지는 이상한 공간에서 9명이 춤을 춰대니 백혈구까지 닭살이 돋을 편이다. 차라리 007 콘셉트로 자동차 추격전을 벌이는 첩보원 이야기를 뮤비로 만들었으면 강인이 엄청난 활약을 했을텐데... 예비군 1년차니까 총도 잘 쏘테고, 운전 실력은 슈마허 뺨치잖아?

이걸 넣지 그랬어: 실연당한 첩보원이 술에 취해 택시로 돌진.

따끈따끈한 걸그룹 뮤비

어머! 이젠 꼭 봐야 해!



시크릿 <POISON>

시크릿의 컴백에 '훗! 이제 시크릿은 한물갔다!'라고 생각했던 에디터가 고해성사를 보고 잘못을 뉘우쳤다. 뮤비의 영상미도 1등, 반전 있는 줄거리도 1등, 화끈하게 끝반을 흔들어대는 안무도 1등, 그리고 전효성 가슴은 특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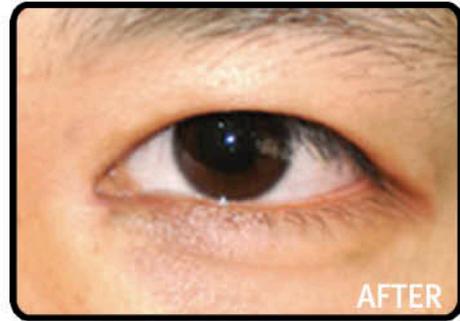
카라 <PANDORA>

일본에서 엔화를 많이 벌었는지 뮤비에 돈을 엄청 쏟아 부었다. 화면 전환에 따라 변하는 무대 세트도 다섯 개에 최고급 슈퍼카까지 등장한다. 근데 일본 시장을 겨냥한 것인지 애들을 다 일본인으로 분장해놓은 게 영 별로지만 그래도 예쁘네.



오렌지 카라벨 <립스틱>

선명함 후종독의 대표 주자. 오렌지색 옷을 입고 탁구를 하는, 별 내용도 없는 뮤비가 대체 뭐라고 이번 기사를 쓰며 가장 많이 마우스를 클릭했다. 딱히 노출이 많거나 영상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대체 이 중독성은 뭐...뭐지?



〈눈 성형술 6개월 후〉

〈눈 성형술 8개월 후〉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확대 남성 눈 성형술

1. 쌍꺼풀이 생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런 모양으로 커집니다.
2. 눈을 감고 있어도 수술 흉터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3. 수술 후 이미지가 지나치게 변하지 않습니다.

* 드물게 수술 후 염증 발생이나 좌우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형외과의원

압구정역 4번출구 방향 / 02-3445-4514 / www.medoctor.co.kr

RATED COMICS

LONG LIVE THE COMICS: 長壽漫畫(장수만화)

둘리 형님이 올해로 시른이라더라.
BY 조용재 DESIGN 서윤형

추억 속으로
빠져보자!



짱
김태관/임재원
장수 지수 🐼🐼
발행연도 국산 최초의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가 서비스를 시작한 1996년



헌터X헌터
토가시 요시히로
장수 지수 🐼🐼🐼
발행연도 국내에 IMF 외환위기가 터진 저주의 1998년



세월의 흔적 같은 만화라고 하기엔 좀 심한 것 아니냐



잘생긴 놈의 변태성은 카리스마가 된다는 불편한 진실

● **본격 고딩 패싸움 조정 만화**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 문화의 유행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산 증거. 3인 2각을 해도 될 것 같은 합한 바지 패션부터 레깅스 돌는 스키니진까지, 작중 3년 동안의 시간 배경에 16년간의 모든 유행이 담겨 있는 역사 교과서적인 만화다. 국산 단행본 만화에서 종종 다뤄졌지만 아무도 관심 없던 한 페이지짜리 '작가 이야기'에서는 심지어 PC통신을 시작하며 감동을 느끼던 작가의 코멘트도 볼 수 있다. 물론 요즘도 별로 관심 없어.

● **휴재왕 토가시의 '앞으로 오래오래 장수하십시오' 만화.**

1998년 연재를 시작해 현재까지 15년째 (소년 점프)에 연재 중인 전형적인 '천하 제일 무도회'식 배틀물. 다른 작품에 비해 딱히 장기 연재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작가의 연재 습관상 장기 연재가 확정된 만화다. 게임에 빠져 1년을 휴재하고 마감을 못 지켜 연필선 원고로 연재하는, 작가 자격을 박탈해 마땅한 자이나, 만화가 너무 재미있다. 사진발에 속아 최하급 AV를 받아놓고 투덜대며 어느새 바지를 내리고 있는 병신 같은 자신을 보는 느낌이라랄까.

COMICS IN REAL LIFE 명작들은 이렇게 실사가 되고...



고르고13
재현율 86.1004%
작가 사이트 타카오가 배우 치바 신이치를 염두에 두고 <고르고13>을 만들었다는 사실 때문인지 실제로 그가 주연을 맡았다. 강렬한 인상과 작품의 높은 수위(?)를 그대로 반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비현실적인 구레나룻을 살리기가 힘들었는지 그곳만 부직포를 붙여놓은 것 같아 아쉽다.



드래곤 볼
재현율 69.6969%
에이미 로섬과 박준형이 나오는 <드래곤 볼>은 스케일만 컸지 원작을 개 무시하고 만든 대표적인 케이스였다. 심지어 <더 워>의 아무/키/가 용신보다 잘생겼다대 무려 심형래가 무천도사로 등장하는 이 국내판 <드래곤 볼>이야말로 나름 원작 재현도가 뛰어난 작품이라고 하겠다. 무스 몇 통을 들이부은 건지 감이 안 잡히는 손오공의 머리는 특 건드리면 바삭하고 부서질 것만 같다.

연인들이 뽑은 최고의 연극!!

이제 **강남 코엑스**에서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즐기세요!



연극 **그 남자 그 여자**

스캔하고
티켓받자!



<그 남자 그 여자>가 제안하는 명품 데이트코스!
바이킹뷔페 패키지 (공연티켓 1매 + 바이킹뷔페 식사권 1매)

평일런치패키지	평일디너패키지	주말전일패키지
44,000원	52,000원	5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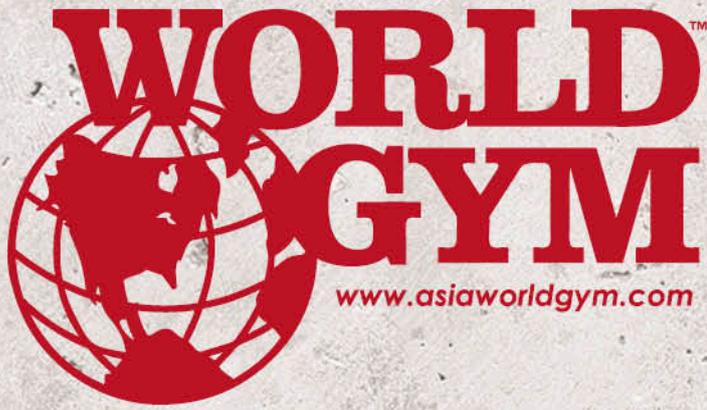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인터파크 티켓)를 참고하세요!



2012. 9. 5수 ~ 11.4일 코엑스아트홀

화,목 8시 / 수,금 5시, 8시 / 토,일,공휴일 4시, 7시 (월 셋 / 10월 1일(월) 4시 공연있음 / 10월 2일(화) 공연없음)

예매 및 문의 인터파크 1544-1555 / 오픈리뷰 1588-5212 티켓가격 30,000원 공동제작 (주)가을엔터테인먼트, 나인스토리



NAVER

월드짐

검색

일산 클럽 031-932-7010 여의도 클럽 02-782-1003 논현 클럽 02-543-5800 교대 클럽 02-593-7766 대치 클럽 02-538-0700 강남 월드MF 클럽 02-2052-0096
목동 월드MF 클럽 02-2642-0096 수원 월드MF 클럽 031-239-0020 부산 연산 클럽 051-758-5554 부산 해운대 클럽 051-740-7008

"메탈은 스테레오이다"

기타의 神

백두산 김도균

달팽이관이
뒤돌릴
속주 영상



속주 별거 없더군요. 잠시만, 저 팬티 좀 갈아입고 올게요.

BY 이영환 DESIGN 신속희

PHOTOGRAPH ARC STUDIO

FILM 최성준, 조홍재, 손안나

COOPERATIONS 세파스(goprohd.cafe24.com),

프리버드(www.freebud.co.kr)

MAXIM 촬영하느라 고생 많았다. 소감이 어떤가?
잠시나마 로큰롤 파티가 열려 재밌었다. 잡지에 멋지게 나와야 할 텐데...

앰프 3대를 연결해 기타를 연주했다. 사운드가 괜찮던가?

메탈은 스테레오다. 믹싱 후에 괜찮은 사운드가 나올지 나도 참 궁금하다.

고된 작업이었을 <탑밴드 2>에서 잠시 하차했었다. 온 몸의 세포들이 육두문자를 날려댔을텐데, 세포들에게 미안하지 않았나?

힘들었지만 코치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즌1, 2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쨌든 16강 정도 갔으면 내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다.

지난 8월 펜타포트 때는 메인 공연과 <탑밴드 2> 심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김병만도 울고 갈 체력이다. 에너지가 사방으로 분산되니 코칭하는 데만 에너지를 쓸 수 없었다. 그래서 토너먼트 결과도 좋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다.

국내 록 페스티벌이 발에 차인다. 진짜 발로 차버리고 싶었던 최악의 록페가 있었나?

굳이 한 곳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음향 모니터링이 제대로 될 때 아티스트의 역량 최대치가 발휘된다. 또 그래야 좋은 소가 완성된다. 하지만 국내엔 밴드별 음향팀은커녕, 전담 모니터 사운드 엔지니어조차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에선 전담 음향팀은 기본이다. 모니터 엔지니어 없이 공연을 하는 것은 보병 부대가 통신병, 위생병 없이 전투에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신이 3대 기타리스트(김태원, 신대철)와 구별되는 장점을 하나 꼽자면?

스트레이트적인 사운드가 장점이다. 이건 좀 민감한 부분이라 자세히 말하기 좀... 허허허.

세 사람이 자주 만나는 편인가?

일이 있을 때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같은 세대를 경험했고 음악적 공감을 나는 사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항상 곁에 있는 것 같다.

음악 말고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나?

음악을 제외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

자꾸 멋있는 말만 하면 곤란하다. 방송을 보니 당신은 김치볶음밥을, 김태원은 돈가스를 즐겨 먹더라. 로키에게 '김밥천국'이란?

김밥천국이란 좋은 소리를 얻기위한 일종의 희생이다. 뮤지션은 좋은 소리를 얻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하지만 그동안 라면을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가 잘 될는지 모르겠다. 허허.

김중서, 김태원 등이 예능에 출연하는 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

사실 처음엔 조금 생소했다. 예능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적응하는 걸 보니 신기하더라.

김태원이 예능에 도전하는 당신에게 뭐라고 하던가?

<놀러와> 출연 당시 김태원이 특유의 말투로 "도균 씨,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라고..."라며 했던 말이 기억에 남는다. 그런데 무작정 많이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

김태원처럼 재미있는 콘셉트의 광고를 찍어 볼 생각이 있나? 삼푸나 파마 약 광고 같은 것 말이다.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다. 안 그래도 몇 군데에서 연락이 왔었지만 콘셉트가 맞지 않아서 거절했다.

언제봐도 늘 겁이 복스럽게 살아있다. 파마는 얼마나 자주하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한다.

압구정 유명 헤어숍 같은 데서 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 우리 집 1층에 미용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 내 단골집이다.

음악 이야기를 해보자. 과거 솔로몬이란 팀으로 활동할 때 게리 무어에 가까운 음악을 하다 접었다고 들었다. 김태원과 코드가 겹쳐서라는 후문이 있는데 사실인가?

그 당시 게리 무어*, 마이클 쉐커*는 누구나 좋아하는 뮤지션이었고 아마추어 밴드들이 한 번쯤은 카피해보는 뮤지션이었다. 김태원의 실력 때문에 접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게리 무어: 목직하면서 끈직한 연주가 특기인 블루스 기타의 전설.

*마이클 쉐커: 뛰어난 애드리브와 리프 솜씨가 일품인 불세출의 기타리스트.

당신의 연주 스타일이 잉베이 맘스틴과 유사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사실이다. 잉베이 맘스틴은 80년대 기타리스트의 교과서적인 사람이다. 바로크 메탈의 창시자라고 할까. 새로운 헤비메탈의 형식을 제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잉베이 맘스틴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현대의 속주 기타리스트는 아마 없을 것이다.

'3대 기타리스트' 칭호를 받는 뮤지션에게 "누구 닮았네, 누구 닮았네"하는 소릴 들으면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객관적인 면에서는 비슷한 것이 사실이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비슷할 수 있다. 뭐 딱히 기분 나쁘고 그런 건 없다.

쿨하다. 헤비메탈의 전성기가 다시 올 것 같나?

라디오 헤드의 'Creep'의 경우 후렴이 터지기 전에 "주쭈, 주쭈" 하는 사운드가 나온 후 "I'm a creep~" 하고 노래가 시작되는데 그 사운드는 바로 메탈리카의 것이다. 다시 말해 헤비메탈의 전성기가 오가는 것이 아니라 헤비메탈 사운드 기반 위에 여러 장르의 음악이 올려지고 있는 것이다.

펜더 기타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 1980년대 <젊은의 행진>에서 사용하던 기타를 지금까지 쓰는 건가? 그렇다.

따로 마사지 숄이라도 데려가나? 사운드나 벡 상태가 굉장히 생생하다.

그냥 닦아만 준다. 적정 온도에 맞게 보관하지도 않는다. 펜더의 기술력이 대단한 거지.

1987년 <한강! 젊은 그대여!> 공연 영상이 최근까지 회자된다. 명 공연이라고 생각하나?

백두산의 가장 빛났던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싱크가 맞지 않는 영상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던데 다음(DAUM)에 검색하면 맞는 것도 나오더라.

당시 발광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본인도 백이 갔을 것 같은데.

그땐 내가 다시 봐도 어떤... 완전히... 카...

요즘은 퍼포먼스를 많이 즐겼더라. 단독 콘서트라면 한 번쯤 몸을 불살라 볼 생각이 있나?

여건이 된다면 한 번쯤 불살라 볼 생각이 있다.

그 공연 꼭 보러 가겠다. 끝으로 MAXIM 독자들에게 한 마디.

거두절미하고 록 음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나 이쁘게 나오고 있는 거 맞지?

아리아나의
축구 실력
감상하기





프리스타일 풋살 **FREESTYLE Futsal**

미쓰에이? 카라? 풋, 이 정도 피지컬은 되어야 축구공 좀 찼다고 할 수 있지!
진정한 풋살 히어로로 다시 태어난 아리아니 셀레스티를 만난다!

BY 송종민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전은경

MAXIM 9월호 표지를 장식한 UFC 옥타곤 걸 아리아니 셀레스티가 오픈 베타와 함께 프리스타일 풋살에 강림했다. 폭발적인 그녀의 몸매는 풀 폴리곤 세상에서도 여전히 통했다! 모든 유저가 아리아니를 자기 마음대로 뛰게 하고, 굴리고, 넘어뜨리고, 자빠뜨리기 위해 쉽지 않은 미션을 기꺼이 수행했다. 프리미엄 PC방에서 20승이던 조건은 에디터에게도 결코 쉬운 조건은 아니었지만 나는 이미 그녀의 노예였기에... 결국 얻었다! 흐흐흐, 못한다고 욕하던 초딩 책히들 다 죽었어. 이제부터 그녀와 나의 뜨거운 합체 플레이가 시작된다! 너도 얻으면 된다고? 이미 네가 이 책 보고 있을 때는 이벤트 종료지롱! 억울하면 다음 이벤트까지 나한테 희롱 당하면서 기다려보든가?

나 좀 대단함?



완전 소중 아리아니!

나 현실 안 되는 여자야!

아리아니 캐릭터는 여타 캐릭터들과 달리 구애를 통해 생성할 수 없는 특수 캐릭터다.

만능이라 불러다오

일명 하이브리드 캐릭터! 모든 능력치가 골고루 우수한, 다재다능 캐릭터로 어떤 포지션이라도 소화할 수 있다!



사장님 나이스 리바운드
아, 이게 아닌가?

FREESTYLE Football Futsal

프리스타일 풋볼? 풋살? 그게 뭔데?

“모두 같이 거리로 Hook up! 공 하나가 모두를 묶어!” - 〈프리스타일〉 OST 중, 주석 ‘Neva Lose’ 한때 PC방에 가면 “Require more minerals”보다 더 자주 들을 수 있었던 “사장님 나이스! 나이스 리바운드”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프리스타일〉은 총 3명의 게이머가 한 팀을 이루고 각각의 포지션을 플레이한다는 독특한 게임성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프리스타일 풋볼〉은 바로 그 전작을 만든 JCE가 그 콘셉트를 그대로 차용해 2010년 11월 출시한 온라인 축구 게임이다. 출시와 함께 동시

접속자 수 4만 명을 돌파하며 스포츠 장르 부동의 1위인 네오위즈의 〈피파 온라인 2〉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국산 스포츠 게임으로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JCE는 결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축구 게임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업데이트에 매진했는데, 그 궁극적인 결과가 바로 〈프리스타일 풋살〉이다. 무려 이를 동안 서비스를 중단하고 작업했을 정도로 대규모 업데이트였다. 프리스타일 풋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5:5에서 4:4로 플레이어를 줄

여 개개인의 활약이 돋보일 수 있도록 했다는 것과 벽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요소를 첨가했다는 것. 그 라운드를 감싸고 있는 벽을 이용한 크로스 및 로빙 패스는 전혀 새로운 공간 창출 전략을 가능하게 하고, 라인 아웃을 없애 게임의 속도감을 더욱 높였다.



국산 선수 모드 축구 게임의 계보



2000년 강진 축구

10 대 10 온라인 선수 모드의 시작이었던 코믹 아케이드 스포츠 게임. 폭소 시리즈, 열혈 시리즈의 영향을 많이 받은 단순 명쾌한 게임이지만 하면 할수록 신묘한 컨트롤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제작자의 이름이 그대로 게임 제목이 되어버린 자유로운 게임이었으나, 넷마블에 인수된 후 캐시템을 사야만 채팅을 할 수 있는 등의 무리수로 기존 팬이 다 떨어져나가고 쓸쓸히 2007년 서비스 종료됐다. 옮겨올 후속작이 발표될 예정.



2005년 리얼 사커

최초로 11 대 11 풀 포지션 선수 모드가 가능했던 게임. 네오비앙이 자체 서비스로 무려 7년간 운영해오다가 최근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정식 퍼블리싱을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의지의 차이! MBC게임에서 〈리얼 사커 챔피언십 리그〉를 중계방송하기도 했다. 마우스로 하는 조작이 특징인데, 키보드 조작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편이다.



2006년 킥스 온라인 → 2010년 엑스킥 온라인

〈킥스 온라인〉은 길거리 축구 스타일의 풋살을 소재로 3 대 3부터 5 대 5까지 적은 인원으로도 실제 축구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엑스킥〉은 〈킥스〉에서 쌓은 노하우와 불만 사항을 반영해 제작된 후계작으로, 포지션마다 존재하는 다양한 스킬의 조합과 캐릭터의 성장 개념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을 선점한 〈피파 온라인〉의 아성을 넘지 못하고 서비스 종료를 맞았다.

더 리얼하게, 더 창의적으로! 풋살이 풋볼보다 뛰어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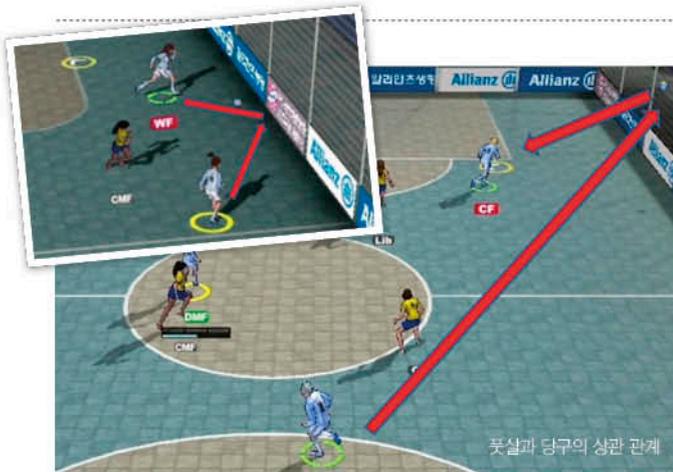


1 새로운 물리 엔진 V2.0 탑재로 리얼하게 출렁출렁...은 아니고

“공은 둥글다”라는 말처럼 축구공은 물리력과 중력의 지배 아래 온갖 의외의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만큼 정교한 물리 엔진이 사용된다면 훨씬 더 실제 경기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겠지? 업그레이드된 물리 엔진은 캐릭터와 공의 충돌 상황을 100% 감지하여, 공이 날아온 세기와 각도 그리고 캐릭터의 충돌 부위에 따라 공의 낙하 지점이 다양해질 정도로 발전했다. 예를 들면, 슬라이딩 태클은 피했지만 널브러진 수비수의 몸에 맞고 공이 튕드든가, 세컨드 볼 슈팅 시도 시 넘어져 있는 골키퍼의 몸에 맞고 슈팅이 실패할 수도 있다.

2 블랙홀 리시브는 그만! 모션 퀄리티 대폭 강화!

〈프리스타일 풋살〉에는 풋볼 대비 약 200여 개의 기본 동작이 추가되어 스포츠 게임의 핵심인 모션 퀄리티가 한층 정교해졌다. 특히 그동안 문제로 지적받아오던, 공을 리시브하는 동작에서 캐릭터가 공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조작감이 사라졌으며,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가 백 헤딩을 하는 등의 어색한 모습도 모두 고쳤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결과가 같더라도 이렇게 간지 나게 표현하니 훨씬 재미나잖아!



3 벽을 이용해 창의력 대장 되기

풋살의 대표적인 특징인 벽 패스가 추가되어 보다 창의적인 게임 플레이를 기대할 수 있다. 당구처럼 절묘한 각도로 벽에 공을 튕겨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수비벽을 돌파를 해낸다거나, 우리 팀 선수에게 깜짝 패스를 할 수도 있다. 또 골라인 이웃도 없기 때문에 독수리 슛이나 후지산 대폭발 슛에도 당황하지 않으면 벽을 맞고 튀어나오는 세컨볼 찬스를 잡을 수도 있다. 공격은 더욱 적극적으로, 수비는 더욱 똑똑하게 해야만 살아남는다는 뜻이다.



4 몸싸움이나, 눈 호강이나!

이제 몸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눈 호강도 포기해야 하나? 풋살에서는 선수들 간의 몸싸움을 더욱 리얼하게 구현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남성 및 덩치 캐릭터가 ‘힘’을 이용해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늘렸다. 몸싸움에서 힘과 덩치의 위력을 반영하겠다는 거지, 얼마나 니들이 여자 캐릭터랑 강마른 미형 캐릭터만 골랐으면 이렇게 했겠냐?! 하지만... 과연 겨우 그깟 걸로 골 죽여도 여캐를 고르는 덕후의 슬픈 습성이 고쳐질까?



IOC를 둘러싼 7가지 경제적 사실

런던 올림픽으로 8조 원을 벌었다던데...
BY 경제 칼럼니스트 최형욱 DESIGN 전은경

에로 영화도 아닌데 새벽마다 우리를 시뻘개진 눈으로 TV 앞으로 모이게 했던 런던 올림픽이 폐막한 지도 벌써 한 달. 올림픽을 운영하는 조직 IOC는 이번 런던 올림픽으로 무려 8조 원의 이익을 거두었다고 한다. 8조 원이면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순간까지 4,345년간 MAXIM을 정기구독해도 남는 액수다. 경기 자체로는 전혀 돈을 벌지 못한다던데 IOC는 어디서 이런 막대한 수익을 올렸을까?

1. 스위스



IOC 본부는 조세 회피의 천국인 스위스에 있다. 위원들이 초콜릿이나 사 먹으려고 본부를 스위스에 둔 건 아니고, 덕분에 소득세(수입의 20%)를 전액 면제받는다. 그들 말로는 이렇게 아낀 돈은 올림픽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각종 활동에 투자한다는 데 글썩... 과연 그게 다일까? 스위스는 불과 얼마 전까지 뇌물 수수를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하는 흔치 않은 국가 중 하나다.

2. 엘리트 그룹



벨기에 정형외과 의사 출신인 자크 로게가 현 IOC 위원장이다. 그가 이끌고 있는 109명의 IOC 위원을 보면 그 면면이 아주 화려하다. 왕족, 귀족, CEO, 올림픽 스타들로 구성되었고, 이들이 IOC를 엘리트 그룹으로 유지하는 원동력인 것이다. 이렇게 잘나가는 사람들이 한데 모였으니 돈도 따라 모이지 않을 수 없는 거다.

3. No Pay, No Gain.

IOC 위원들은 월급을 따로 받지 않는다. 유치 희망 국가 혹은 스폰서 댓가를 원하는 기업들로부터 엄청난 접대와 향응을 제공받기 때문에 사실 월급 따위는 중요치 않다. 2002년 솔트레이크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 개최지 결정 때는 일부 위원이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을 위한 현금, 항공권, 성형 수술비(?), 장학금, 취업 기회 등을 제공받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그러게 적당히 좀 하지...

4. 방송 중계권

이번 올림픽에선 방송 중계권이 39억 달러에 팔렸는데, 이는 지난 베이징 올림픽에 비해 52%나 증가한 수치. 이번 올림픽은 런던의 시간대가 미국, 서유럽 같은 거대 시장과 일치하는, 시장성이 매우 높은 대회였기 때문이다. TV뿐 아니라 모바일 시청자가 대폭 증가한 것도 중계권 인상의 한 요인이었다. IOC는 잡스에게 감사해라!

고마우면
제사상에 올리
이만한 거 좀...



5. 올림픽 파트너



소위 올림픽 파트너라 불리는 스폰서 기업이 되면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올림픽 동안 자사 제품을 독점 공급, 홍보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 스폰서 비용은 철저히 배일에 싸여 있다가 얼마 전 미국의 모 집시사에 공개됐는데 그 금액이 무려 1,147억 원이었다. 쿼타가 하늘을 찌르는 코카콜라, 파나소닉, 비자카드 등이 제발 우리 제품을 홍보하게 해달라고 굶실거리며 돈을 바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어쩐지 인간적으로 느껴진다. 니들도 먹고살기 힘들지?

6. 47%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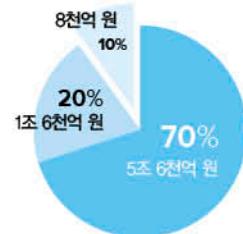
그리하여 이번 런던 올림픽의 총수익은 지난 베이징 올림픽보다 47% 증가했다. 이 정도 비율이면

잘나가는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나 애플 뺀다는 성과다. IOC가 주식 시장에 상장됐다면 사채를 내서라도 당장 사야 하는 대박 종목이었던 셈이다.

7.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돈은 자기네끼리 알차게 나눠 먹는다.

2012 런던 올림픽 총 수익



■ 개최국 조직위원회
■ 참가국들의 체육회
■ IOC 운영비

정작 올림픽의 주인공인 참가 선수들은 IOC로부터 받는 돈이 한 푼도 없다. 메달을 못 따면? 알팔없는 거다.



총수익 중 IOC가 가져가는 돈은 10%가량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하게 올림픽만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유치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도 다 이들의 소관이다.

가는 곳마다 국민 대접을 받으며 큰소리 뽐낼 수 있는 직업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평소 놀고먹는 걸로 욕을 먹지만 그들은 적어도 4년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다. 하지만 IOC 위원은 그런 수고조차 필요없다. 어쩌면 서울대 졸업하고 뽀 세계 사법고시 패스해서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운동 열심히 하다가 IOC 위원이 되는 게 더 쉬운 길일 수도 있다.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나라 IOC 위원인 문대성을 보면 그리 어려워 보이지도 않던데? 🙄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 그 유명세로 대학원에 가서 논문을 표절하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당신을 위한
새로운 브로드웨이 뮤지컬

뮤지컬

브루클린 BKLYN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우리 노래를
들어봐!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
2012년 12월 4일 ~ 2013년 2월 24일

|문의 오픈리뷰 1588-5212

스마트 폰 깎는 노인

아이폰이 사과 모양으로라도 나올 줄 알았니?

BY 송종민 DESIGN 서울정

벌써 2년 전 일이다. 내가 갓 스마트폰에 입문해 세터즌에서 살 때다. LTE가 그렇게 빠름~ 빠름~ 하대서 LTE를 가입하려니 폰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스마트폰 시장 한 쪽 구석에서 사과 간판을 걸고 스마트폰을 오래도록 깎던 노인이 있었다. LTE 폰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값을 굉장히 비싸게 부르는 것 같았다. “좀 싸게 해줄 수 없습니까? 옆 동네는 17만 원에 준다는데...” 했더니, “사과 한 개 가지고 에누리하겠소? 비싸거든 다른 데 가 사우”. 대단히 싸가지 없는 노인이었다. 더 값을 흥정하지도 못하고 잘 만들어 달라고만 부탁했다.

그는 짐작코 열심히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빨리 하는 것 같더니, 저물도록 이리 줄이고 저리 늘리고 마냥 늑장이다. 내가 보기에는 아이폰4를 길게 늘린 것만 같은데, 자꾸만 sRGB니, 인 셀 레티나 디스플레이니, 라이트닝 8핀 단자니 이리저리 줄이고만 있었다. 인제 그만 줄여도 되니 그냥 달라고 해도 통 못 들은 척 대꾸가 없다. 사실 지난달 산 독 스피커와 케이스가 아까웠다. 이제는 배터리를 가지고 또 이리저리 돌리고 있다. 갑갑하고 지루하고 인제는 초조할 지경이었다. “배터리가 조루어도 좋으니 그만 주십시오.” 했더니 화를 버럭 내며, “3G 때만큼은 쓸 수 있어야 스마트폰이지, 4시간도 못 가는 거 무조건 때려 박는다고 신기술인가?” 한다. 나도 기가 막혀서, “살 사람이 그래도 좋다는데 무얼 더 늘린단 말이요? 노인장, 감성 품질이사구먼, 갤럭시 노트2 나온다니깐요”. 노인은 통명스럽게, “그럼 버스 타시던가. 난 안 팔겠소.” 하고 내뱉는다. 2년이나 기다렸는데 지금 버스타갈 수도 없고 될 대로 되라고 체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마음대로 만들어 보시오”. “글쎄, 무조건 오래가야 한다니깐. 거기에 아무리 길어져도 한 손으로 움켜쥘 수 있어야 하고 만지는 감촉도 탄탄해야 해. 크다고 다 좋아하는 줄 알아. 좀 누그러진 말씨다. 이번에는 숫제 iOS6 버전업을 하고 있다. 나도 그만 흥분해 버려,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얼마 후에야 아이폰5를 들고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다 됐다고 내준다. 되기는 아까부터 다 돼 있던 아이폰이다. 남들 다 워프할 때 와이파이 찾던 나는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그 따위로 장사를 해 가지고 장사가 될 턱이 없다. 손님 본위가 아니고 제 본위다. 그래 가지고 값만 되게 부른다. 상도 덕도 모르고 불친절하고 무뚝뚝한 사과 장수다”. 생각할수록 화증이 났다. 집에 와서 아이폰을 내놴더니, 아내는 이쁘다고 야단이다. 은하계 저편에서 온 것이나 오토봇 대장의 것보다 참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전의 아이폰4s나 별로 다른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런데 아내의 설명을 들어 보니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마감하면 얼마 못 가서 변색이 되고 유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거기에 무리하게 LTE를 올리면 박대리가 조기 퇴근할 수 있다고 했다. 속도도 두 배나 빨라졌는데 여전히 이렇게 꼭 알맞은 것은 좀체로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나는 비로소 마음이 확 풀렸다. 그리고 그 노인에 대한 내 태도를 뉘우쳤다. 참으로 미안했다.

오늘, 집에 들어갔더니 며느리가 갤럭시S3 버스폰으로 런처를 올리고 있었다. 전에 탈옥을 시도하다가 벽돌이 됐던 시절 생각이 난다. 요즘엔 골수 애플딩이를 구경한지도 참 오래다. 탈옥을 대신 해 준다는 스팸 메일도 날라 오지 않는다. ‘애플 감성’이니, ‘잡스 매직’이니 애수를 자아내던 그 소리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문득 2년 전 아이폰4를 들고 있던 잡스 옹의 모습이 떠오른다.

iPhone 5

지금까지 나온 LTE 폰 중 배터리 가용시간이 가장 긴 스마트폰

LTE 무선 네트워크가 신기한 시절은 지났다. 하지만 아이폰5의 LTE는 더 길다. 갤럭시S3 LTE의 인터넷 브라우징 타임은 3시간 50분 수준. 아이폰5의 공식 발표는 8시간이다.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한다고 해도 7시간에 가까운 수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가 훨씬 큰 사이즈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배터리 관리 기술이다.



번개처럼 앞뒤로 쭈켜쭈켜, 라이트닝 8핀 단자

기존의 30핀 커넥터는 사실 진즉에 퇴출 되어야 했다. 더 작게 만들고 싶어도 커넥터 때문에 불가능했기 때문이다(순목시계라 불렀던 아이팟 나노를 떠올려보라). 8핀 라이트닝 단자는 훨씬 작고 내구성이 뛰어난데 앞뒤 구분 없이 어떤 방향으로든 연결할 수 있다. 하지만 네가 가진 독 스피커는 이제 고물이다. 히히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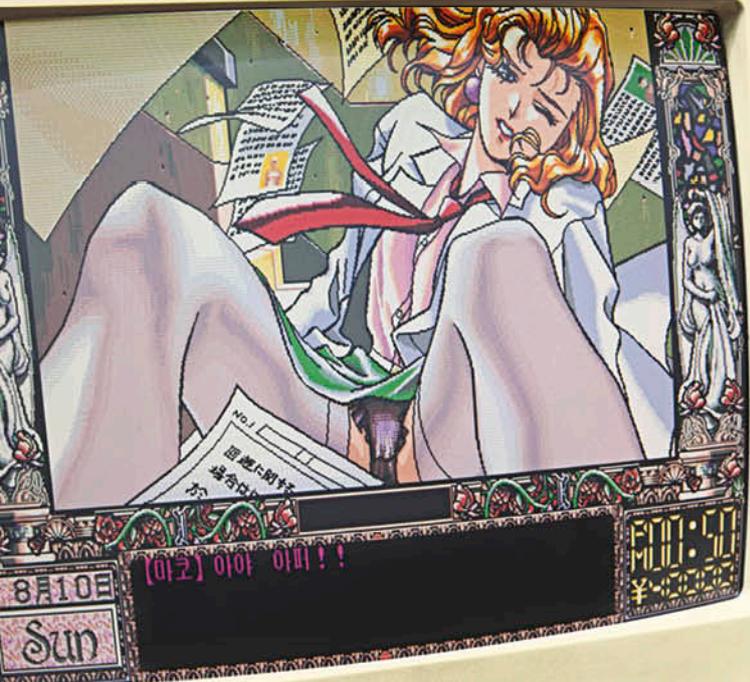
전화기의 본질은 사운드다!

새로운 이어팟 번들은 시작에 불과하다. 전면과 후면에 하나, 그리고 아래에 하나, 총 3개의 내장 마이크 목소리를 훨씬 깨끗하고 정확하게 채집한다. 통화에 유리할뿐더러 시리의 인식을 또한 향상될 것이다.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주변 소음을 차단해 시끄러운 방에서도 통화할 수 있다. 내장 스피커 음질도 더 좋아졌으면 삼합인데 말이지.

커졌는데 더 작아졌어, 이게 말이 돼?

아이폰4(long)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지만 더 길어진 디스플레이로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웹툰도 끊임 없이 한 방에 볼 수 있고, 채팅창도 더 넓어진다. 무엇보다 와이드 스크린 영화에서 레터 박스(검은 바)를 보지 않아도 된다. 더 커졌지만 무게는 112g, 두께는 7.6mm 밖에 안 된다. 여기에는 세계 최초로 양산 스마트폰에 적용된 인 셀 디스플레이가 크게 한 몫했다.





TriGem

맥심

POWER

RESET

에리의 화신, 플로피디스켓

A 드라이브는 5.25인치, B 드라이브는 3.5인치,
C 드라이브는 1GB HDD,
D 드라이브는 4배속 CD-ROM이었던 시절 이야기
BY 송종민 PHOTOGRAPH ARC STUDIO HELP 김재훈 DESIGN 전은경

추억의
디스켓 구동음



분할 압축한 디스켓은
한 장이라도 에러가 발생하면
모두 끝장이었다. 동급생은
대체 언제 할 수 있는거야! 흑흑

그래픽 뉴스



오늘 막대나 2015년 스무살 미래의 여대생 고은비
사이버 스페이스 탈출 '온몸으로 살고 싶다'



폴리지 않는 압축, 슬픔의 3번 디스켓

c:\Wnanpa>arj x -v a: nanpa.arj *, * 외로이 깜박이고 있는 프롬프트에 길고 긴 명령어를 빠르게 쳐 넣자 '드득, 드득' 기괴한 소리와 함께 디스크 드라이브의 불빛이 빠르게 깜박거린다. 볼 꺼진 방 안에서 홀로 모니터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한 청년의 눈은 오로지 압축 해제 진행 상황에만 집중된다. 느리지만 리드미컬하게 돌아가던 디스켓이 '뜨, 득득득 뜨, 득득득' 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디스켓의 특정 부분을 계속 다시 읽으려 시도하는 소리다. "안 돼! 제발, 이게 마지막 디스켓인데!" 하지만 야속한 컴퓨터는 여지없이 파일을 읽을 수 없다는 절망스런 메시지를 뱉어낸다. 노련 디스크 유틸리티를 돌려볼까 잠시 생각했지만 이내 포기했다. 차라리 친구네 집으로 새 디스켓을 들고 뛰어가는게 더 빠를 것일 알았기 때문이다.

저작권 따위 무슨 말인지도 모르던 시절, 그렇게 게임은 ARJ 분할 압축과 함께 디스켓을 타고 손에서 손으로 퍼져나갔다. 1.2MB라는 크기는 지금으로 따지면 사진 한 장 담기 어려운 크기지만 디스켓만이 유일한 파일 전송 수단이었다. 그나마 하드 드라이브의 대중화로 디스켓을 이용해 부팅하고, 디스켓 상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었다. 그 끔찍한 로딩 속도라니! 게다가 에러도 아주 잦았다. 디스켓은 일종의 자기 비닐 디스크였기 때문에 자성을 띤 물질, 정전

기, 구겨짐, 심지어 미세한 먼지에도 배드 섹터가 발생하기 일쑤였다. 디스켓 뒷면을 보면 디스켓 이름 쓰는 라벨지조차 '먼저 글씨를 쓴 다음 디스켓에 붙이세요'라고 친절히 안내하고 있다. 볼펜 압력에도 에러가 날 수 있다는거다. 그래서 당시에는 디스켓 보관 케이스가 유행했다. 컴퓨터 학원에 가면 등록 기념으로 으레 나눠줬던 디스켓 케이스에 MS-DOS부터 PC-TOOLS, GW-BASIC 등의 디스켓을 넣고 차라라 넘기던 그 간지가 CD 수백 장 들고 다니는 클럽 DJ 부럽지 않았다.

5.25인치 디스켓의 단점을 보완한 3.5인치 디스켓의 등장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더 작고(2.25인치 정도) 더 고용량(그래봤자 240kb)이고 구겨지지 않았다(대신 부러졌다). 노출되어 있던 자기기록면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알루미늄 커버로 가릴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에러가 더 잘 났다. 통계를 낼 순 없지만 5~6장 정도 분할 압축을 하면 무조건 한두 장은 에러가 났다. 그래서 친구에게 압축 파일을 절대 지우지 말라고 신신당부 한 후 카피한 디스켓을 조심스럽게 책가방에 넣고 뛰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자 이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친구 집에서 다시 카페에 온 디스켓을 펼리는 마음으로 카피를 한다. 카피 컴퓨터. 소년은 압축을 풀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동급생>을 실행시켰고 그렇게 어른이 되어 갔다.

2015년 9월 20일, 고은비양은 만 20세가 되는 생일을 맞았다. 며칠 전부터 은비양의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 통신 기능을 강화한 휴대용 컴퓨터 단말기)에는 호주, 일본 등에 있는 같은 과 친구들의 생일 축하 메시지가 인터넷의 전자메일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

예전에는 패션에 유행이 있어 일제히 비슷한 옷차림을 했다지만 은비양은 그런 풍경을 상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온다. 요즘은 그야말로 제각각이다. 은비양은 패션의 키포인트는 오로지 자신의 취향과 감각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은비양 세대는 퍼스널 패션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인기가. 각자 갖고 있는 옷, 본인의 감각이나 취향 등을 입력해 두면 날씨와 스케줄에 따라 코디네이트를 해주는 시스템이다.

옷을 다 입으면 가방을 챙긴다. 그리고 그날 수업에 필요한 내용이 담긴 디스켓을 예쁜 줄에 달아 목에 건다. 디스켓에는 화상 정보, 음성 정보 등이 다 담겨있다. 그리고 손에는 PCS를 들고 허리에 호신용 기구를 찬다. 그러면 학교 갈 준비는 끝난 셈이다. 은비양이 학교에 가는 날은 일주일에 두 번.

은비양은 여가 활동 시간의 많은 부분을 신체적 체험을 추구하는 격렬한 운동에 할애한다. 일상적인 활동의 대부분이 컴퓨터를 통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여가 활동만은 실제 공간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치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대학생들을 위한 일거리는 많은 편이다. 사회의 일반적인 취업 형태가 자유 계약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과거처럼 작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일정 시간내에 마치는 형태로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활용이 자유로운 편이다.

<글 21세기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예측하는 LG전자 커뮤니카토피아 연구소>

萬物商會

만물상회

소셜 명탐정 김전일 8 겨울산장 살인사건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살인계로 눈보라처럼 겨울산장이 피로 물들어간다...”

소셜 명탐정 김전일 1
PC통신의 살인사건

소셜 명탐정 김전일 2
음성 살인사건

1994년 10월 10일 / 220쪽 / 12,000원

(주)서문출판사

大航海時代 外傳

대항해시대 외전

호평 발매중

대니사들의 열망!! 대항해시대 외전 탄생

출판사: BISCO

주소: 서울특별시 용인구 포곡동 22-2 빌딩 B102 2F TEL: 02-641-2011-2 FAX: 02-644-5207-475 02-644-5361

http://www.bisco.co.kr

KOEI

그거 왜 샀어? #2

지름 품목: 캐논 파워샷 SX40 HS

MAXIM 편집장이 쓰는 디지털카메라는 이렇더라.
BY 손안나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서윤정

니네 코딱지
파는 거 다 보여.



MAXIM
사무실 도촬



도대체 이 카메라는 왜 산 건가?

처음에는 DSLR을 사려고 했다. 근데 주변에서 다 말리더라. 어차피 고성능 DSLR을 사도 너 같은 게 으뜸뱅이는 거기에 들어 있는 기능은 다 쓰지도 못 한다며. 그래서 그냥 디카 중에 좀 기능이 좋은 제품을 찾다가 이걸 발견했다.

카메라 자랑 좀 해달라.

일단 가격. 성능대비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카메라&케이스 세트로 49만 원 주고 샀다. 그리고 줌이 잘 된다. 캐논에서 공개한 줌 실험 영상을 보고, 나도 회사 옥상에 올라가서 실험해봤다. MAXIM 사옥 옆, 옆, 옆 건물 사무실 창가 선반 위에 있는 책 제목까지 다 보이더라.

엄청 위험한 물건이다! 당신 변태인가?

광학 줌 35배에 디지털 줌이 4배나 되니, 최대 140배까지 당겨볼 수 있다. 어디 가서 몰카 찍기에 딱 좋을 거다. 아, 그렇다고 내가 몰카를 찍는다는 애긴 아니고.

몰카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카메라 광학 줌을 35배나 당길 일이 얼마나 있던 말인가!

MAXIM에서 다루면 재미있을 것 같은 장면을 목격했을 때 그때그때 사진으로 남겨두는 편이다.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다짜고짜 카메라를 들이대면 굳어버리는데 줌 기능을 이용하면 자연스러운 순간을 포착할 수 있다. 아님 멀리서 에디터를 모니터를 감시하거나...

일 말고 개인적으로 여가생활을 즐길 때도 자주 갖고 다니나?

그렇다. 지난 번 뮤직 페스티벌에서 알차게 썼다. 구석진 자리였는데 줌을 쭉 당기니 무대가 잘 보이더라. 2.7형 LCD가 회전되니까 고정해놓고 그걸로 공연을 감상했다.

굳이 디카를 사서 망원경으로 썼단 얘기군. MAXIM 9월호에 나온 '씨니테이즈' 화보 영상도 이걸로 찍었다고 하던데.

맞다. 물론 MAXIM 편집부가 쓰는 캐논 EOS 5D Mark II나 소니 HVR-Z5N에 비해 완벽하진 않지만 전천후로 찍기엔 무리가 없다.

일반적으로 실사 영화가 24fps인데... 이 정도 디카가 30fps에 HD급 영상을 구현하다니 매력적인 스펙이긴 하다.

사용법도 간단하다. 사진을 찍는 도중에 원터치 동영상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녹화가 시작된다. 반대로 동영상 촬영 중에 셔터 하나만 누르면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보다가피 작고 가벼워서 휴대성도 좋으니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영상을 기록하기에 좋다. 참고로 초고속 촬영도 된다. 최대 240fps까지 나오는데 이걸로 개들이 짖거나 뛰는 걸 찍으면 엄청 웃기다.



너무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있다. 휴대성이 좋다고 하기에 왜 두껍지 않나?

핸드백 같은 데 넣고 다니긴 힘들겠지만 크게 불편한 건 없다. 애초부터 DSLR과 비교하다 산 거라서 이 정도면 가벼운 편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라는 가방 자체가 너무 작은 거다.

사용하면서 정말 유용하다고 느낀 기능이 있다면?

뷰파인더 옆에 있는 작은 네모 버튼(줌 프레이밍 어시스트)을 누르면 화각이 순간적으로 좀 아웃되면서 내가 찍고 있는 피사체 주변부를 보여준다. 줌을 당겨서 찍다 보면 어디를 찍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는데, 그때 이 기능이 참 유용하다.

지금까지 써본 카메라들과 비교해 순위를 매겨본다면 몇 위인가?

그전에 펜탁스 K시리즈 DSLR, 삼성 VLJU EX1, 캐

논 EOS 20D 등 다양한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해봤다. DSLR은 렌즈도 사야 하고 이것저것 신경쓸 게 많은데, 이건 일단 기본은 하나까 지금까지 써본 디지털카메라 중에 제일 만족스럽다. 물론, 가장 최신 제품이라 가장 좋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다.

점수를 매긴다면 5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은가?

애는 정말 5점 줘도 될 것 같다. 캐논에서 광고 안 들어오나? 흐흐.

마지막으로 이 카메라를 한마디로 평가해 달라.

백통 망원렌즈 살 돈은 없고, 고성능 줌 기능이 있는 멀티 퍼포먼스 디카가 필요하다면 이게 정답이다. 



한때는
널 사랑했다.

편집장이 강추하는 STUFF Black Berry Torch 9800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 나는 이메일을 자주 쓴다.
- 나는 이메일만 자주 쓴다.
- 나는 '카카오톡'을 쓰지 않는다.
- 나는 스마트 बैं킹을 이용하지 않는다.
- 나는 전화 통화 중 전화가 끊기면 전화요금에 굳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다.
- 나는 좀 더 내 마음을 키우는 분노 조절 훈련이 필요하다.

위의 항목에 5개 이상 YES라고 답한 사람은 블랙베리를 이용해도 좋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라. 이걸 그냥 타이핑이 잘되는 간지나는 베베 혹은 슬라이드가 되는 까만 쓰레기일 뿐이니까. 시발, 블레기... 할부가 20만 원 넘게 남았네...

구매자카드



구매자: MAXIM 편집장 이영비
구매 가격: 490,000원
구매 동기: 좀 기능이 좋은 하이
엔드 디카가 필요했음
구매 만족도: 🍗🍗🍗🍗
부러움 지수: 🍗🍗🍗



현아
오후 4:48
야 ㅋㅋ 어다 빨리오
오후 4:49
짐 가고 있음ㅋㅋ기들
오후 4:49
내 뒤에 완전 새끈한 남자있당ㅋㅋ말
오후 4:50
현아
또 시작이나ㅎ
오후 4:51
ㅋㅋㅋ

1/60 F5.8 ISO 100

MAXIM 뽐뿌질

이모, 백 원만...

가볍고 선명하게 찍자, 파워샷 SX500 IS

렌즈 카메라를 사용하고 싶지만 휴대하기 불편해 구매를 망설였던 소비자들은 주목하라. 캐논이 광학 30배 줌 렌즈를 장착한 초소형 카메라 파워샷 SX500 IS를 선보인다. 이 제품은 현존하는 렌즈 장착 콤팩트 카메라 중 가장 가볍다. 여성 유저도 한 손에 들고 조작이 가능할 정도다. 형형색색으로 물든 가을 풍경을 파워샷 SX500 IS로 멋지게 담아보자.

문의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www.canon-ci.co.kr)



아동 틀어줄까?

한국 레노버, All-In-One PC 라인

한국 레노버에서 올인원 PC 시리즈인 아이디어센터 올인원 데스크 톱을 출시했다. A, B, C, 3개 시리즈로 구성되어 용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모니터 두께가 24.5mm로 얇고 화면 각도를 5~90°까지 조절 가능한 A 시리즈는 서고, 앉고, 눕는 등 어떤 자세에서도 사용이 편안하다. B 시리즈는 저장 용량을 높여 게임 플레이, HD TV 시청 등의 홈 엔터테인먼트 PC로 적합하다. C 시리즈는 가격 부담을 낮추고 작은 공간에도 설치 가능하게 배려한 마이너 체인지 모델이다. 전 세계 소비자용 데스크 톱 PC 부문 1위 레노버, 한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문의 한국 레노버(www.lenovo.co.kr)

면도기에 스타일을 입히다, 뉴 센스터치 2D 출시

거친 남자를 부드러운 남자로 변신시켜줄 필립스 뉴 센스터치 2D 면도기를 소개한다. 자이로 플렉스 2D 시스템을 적용해 굴곡의 수염도 깔끔하고 완벽하게 면도할 수 있다. 면도기 헤드의 수명을 알려주는 헤드 교체 알림 기능이 있으며, 접이식 충전 거치대를 제공해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 블루, 그레이, 블루&레드 세 가지 색상으로 취향에 맞게 선택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습실에서 전기면도기로 갈아탈 생각이라면 고려할 만하다.

문의 (주)필립스전자(www.philips.co.kr)



LG전자, 옵티머스G로 세계를 평정한다

LG전자가 세계 시장을 겨냥해 옵티머스G를 출시한다. 일단 본체의 블랙 컬러와 꺼져 있는 액정의 화면 색상을 동일하게 맞추는 심플하고 시크한 스타일이 눈길을 끈다. 동영상 촬영 시 줌 인 & 아웃 조작이 가능하고, 그래픽 처리 속도도 이전보다 3배 정도 빨라 내비게이션이나 웹브라우징, 게임에서도 월등한 성능을 보인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주도권에 도전장을 내민 LG, 과연 '헬지'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문의 LG전자(www.lgmobile.co.kr)

뽐뿌&CS6 학생 및 교사용 에디션 스페셜 패키지

오직 학생 및 교사만을 위한 혜택!
최신의 연동 CS6와 뽐뿌 태블릿을 더할나위! 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Bamboo&CS6 STE 스페셜 패키지 출시

와콤에서 Bamboo(뽐뿌)펜 태블릿과 Adobe(어도비) CS6 학생 및 교사용 에디션(STE) 소프트웨어를 함께 구성해 출시했다. 이 패키지는 별도로 구매하는 것보다 17% 저렴하다. 학생 및 교사용 에디션으로 선보이기 때문에 신분을 인증하는 증명 자료를 제출하는 건 필수. Bamboo&CS6 STE 스페셜 패키지는 와콤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패키지 할인 혜택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배 아파서 어찌지?

문의 와콤몰(www.wacommall.co.kr)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최고의 음질, 헤드폰 Amperior(앰페리어)

전설의 DJ용 헤드폰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한 Amperior(앰페리어)는 세련된 컬러와 디자인으로 이목을 끈다. 특히 아이패드, 아이폰, 아이팟 등 애플의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되어 이동 중에도 손쉽게 극장 퀄리티 음질로 음악을 즐길 수 있다. 덕분에 스테레오 시스템에 연결한 유선 헤드폰에서나 들을 법한 고품격 사운드도 스마트폰에서 뽐뿌 터져 나온다. 이동 중에도 Amperior로 스마트하게 음악을 감상해보자.

문의 케이원에이비이
(02-553-3161, www.koneav.com)



MAXIM 정기 구독 신청 안내

3개월 정기 구독	6개월 정기 구독	12개월 정기 구독	24개월 정기 구독	36개월 정기 구독	48개월 정기 구독
 <p>아싸 좋구나!</p>	정가 33,600원 ↓ 3천 원 할인 1000씩 적립	정가 67,200원 ↓ 7천 원 할인 2000씩 적립	정가 134,400원 ↓ 1만 5천 원 할인 4000씩 적립	정가 201,600원 ↓ 3만 원 할인 6000씩 적립	정가 268,800원 ↓ 5만 원 할인 8000씩 적립
정가 16,800원	할인가 30,600원	할인가 60,200원	할인가 119,400원	할인가 171,600원	할인가 218,800원



MAXIM 정기 구독 신청 안내

MAXIM 웹사이트
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 구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결제 방법

1. www.maximkorea.net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

2. 무통장 입금
 (예금주_주식회사 와이미디어)

하나은행 569-910012-00904
 국민은행 185801-01-004866
 농협 355-0006-4797-03
 신한은행 100-026-074070
 우리은행 1005-701-637646
 기업은행 208-107032-04-013
 SC제일은행 117-20-225316
 우체국 012559-02-079161

* 딱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씩=1원)

MOTOR OF THE MONTH

탱덤스텝은 삭제, 돈 처빌라 겨우 7.5kg 줄였는데, 45kg짜리 여자를 태운다고? HP4의 뒷자리에선 여자도 당신도 눈물을 줄줄 흘릴 것이다. "아 혼자 타고 싶다"

순정으로 장착된 아크라포비치 풀 시스템 머플러

초경량 알루미늄 단조 휠과 경량 스프로킷. 바디 곳곳을 모조리 카본으로 교체해 S1000RR 대비 7.5kg 을 줄였다. 100g, 200g 차이로 싸우는 모터스포츠에서 7.5kg 감량이란 보통 일이 아니다. 당연히 당신이 밥 안 먹고 운동해서 살을 7.5kg 빼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든다.



BMW HP4

당신을 톱클래스 라이더로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똑똑한 괴물.

BY 송종민 DESIGN 서윤정

MAXIM 독자라면 BMW에 붙어있는 M이란 엠블럼의 위력을 잘 알 것이다. 까불면 다친다는 거지.(아, 물론 여기서 다치는 건 자존심이다.)

BMW에 M이 있다면 BMW 모터라드에는 HP가 있다. High Performance라는 건방진 의미다. HP는 안 그래도 강력한 모터사이클을 더욱 흥포하게 바꿔 놓는다. 그들의 최신 희생양은 그 이름도 찬란한 S1000RR. 2010년 갑자기 등장해 슈퍼스포츠 장르를 휩쓸어버린 BMW의 첫 4기통 슈퍼바이크다. 아

니 도대체 4기통 리터급 바이크로는 이미 한계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지닌 이 모델을 어떻게 더 강력하게 바꾼다는 거지? 고개를 가웃할 만하다.

여기서 M과 HP의 근본적인 튜닝 철학의 차이가 드러난다. M이 마치 안전한 세단에 광포화 저주에 건 것처럼 마력과 토크를 미친 듯이 끌어올린다면, HP는 극한의 경량화와 첨단인 신기술을 투입해 라이더에게서 한계치 이상의 컨트롤을 끌어낸다. 너무 강력해서 올라타기조차 겁나는 이탈리아 바이

크와 달리, 기계와 같이 철두철미한 게르만 바이크는 적극적으로 라이더가 불안해할 만한 요소를 집어 삼킨다.

HP4 위에서 당신은 갑자기 WSBK 레이스에 참가한 톱클래스 라이더가 된 마냥 빠르게 달릴 수 있다. 물론 당신이 실력 때문이라 착각하는 동안 바이크가 열심히 움직인 덕분이겠지만. 뭐 어찌됐든 기분은 좋잖아? 



SPEC CHECK

최대 마력

193bhp/13,000rpm

최대 토크

112Nm/9,750rpm

무게

199kg (건조중량 169kg)

적용 기술

다이내믹 댐핑 컨트롤
런치 컨트롤
레이스 ABS
다이내믹 트랙션 컨트롤

슬릭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런치 컨트롤 시스템'은 당신이 언제 로켓 스타트를 할 수 있게 돕는다. 라이더가 클러치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제로백 2초대의 가속을 발휘할 수 있다.

다이내믹 댐핑 컨트롤(DDC)은 노면 상황에 따라 전자 제어로 감쇄력을 가변시키는 능동형 서스펜션으로 이미 BMW 차량에는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라이더가 전자 제어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적절한 개입 타이밍과 자연스러운 주행감을 보장하는 것이 생명인데,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가 있으니 잘하겠지?

과물이 달리는 모습 볼터?



명품이라 불리는 BMW HP 시리즈



HP2 엔듀로

2005년 선보인 최초의 HP는 BMW를 대표하는 1,170cc 105 마력 수평 대향 박서 엔진을 탑재

한 빅 엔듀로 머신. 사막이나 아프리카 같은 극한의 오프 로드에서도 최고의 내구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다.



HP2 메가모토

슈퍼모터를 넘어선 메가모터라는 의미로 메가모터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았다. 179kg

의 초경량 보디와 113마력, 115Nm의 토크는 한시도 두 바퀴를 동시에 땅에 붙이고 있지 못하게 한다.



HP2 스포트

'박서' 엔진으로는 유래 없는 133마력과 115N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는 '사상 최강의 박서'.

HP2 스포트가 가진 화려한 수식이다. 박서 엔진으로 끝장을 보고 싶다는 사람의 유일한 선택지.

MAXIM
시승기
#19

아아아... 6세대여 안녕 2012 VOLKSWAGEN PASSAT 2.0 TDI

아마 6세대 파사트를 끌고 있던 드라이버들에겐
이번 7세대 출시 소식이 청천벽력보다도 같은 우울한 뉴스였을 거다.

BY 유승민 PHOTOGRAPH 이영배 DESIGN 서윤정
COOPERATION VOLKSWAGEN KOREA, 민협



4,050만원

파사트의 선물
+ MAXIM
11월호
특별하기



파사트의 7세대 신형 모델이 나왔다. 그것도 아주 열풍을 일으키며 신나게 팔려나가고 있다. 폭스바겐 측은 신형 파사트의 경쟁 모델로 현대 그랜저를 지목했지만 그랜저 운전자들이 기분 나쁠 일은 없다. 파사트가 많이 팔리건 말건 그랜저를 택한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으니까.

정작 기분이 몹시 언짢아지는 건 다음 아닌 파사트 6세대 운전자들이다. 자동차 오너 드라이버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델의 신형 출시 뉴스는 절대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왜냐고? 매일 광고가 아끼며 애지중지하던 애마가 이젠 더 이상 신차가 아니라는 사실에 운전할 때 더 이상 콧바람이 나지도, 사람들이 내 차를 쳐다보는 것 같지도 않기 때문이다. 마이카가 없어 이 기분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아이폰을 쓰다가 아이폰 신형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우울함 X 500배쯤이라고 짐작하면 될 거다.

혹여나 기스라도 날까 하여 매주 손세차장에 들러 걸레로 광을 내던 발걸음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기계 세차장 쪽으로 향하게 되고, 심지어 차에 기스가 나도 전처럼은 화가 나지 않는다. 하루가 멀다고 투어링 번개를 밥먹듯하며 의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던 자동차 동호회 사람들과의 모임이 뜰해지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쯤이다. 아니, 신모델 출시 소식은 이전 모델 동호회에 대한 해산 선고나 다름없다. 한마디로 말해 내 차가 뒷방 늙은이로 밀려난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푸조의 신형 스포츠카를 몰던 에디터도 동모델의 2013년형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 파리 모터쇼에 선보인다는 소식에 요즘 한참 밥맛을 잃어가고 있으니깐.

반면 거리를 누비던 파사트 6세대를 보며 파사트를 사겠다고 충알을 장전해두었던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기쁜 소식이 없을 수 없다. 하루라도 빨리 사서 '최신형' 프리미엄을 더 오래 누리기 위해 마음이 바

빠진다(언젠간 8세대도 나올 테니 말이지). 신형을 뽑은 운전자는 길에서 구형 모델이 눈에 띄면 알뜰게도 굳이 차를 구형 근처에서 알짱대며 자신의 신형을 자랑하곤 한다. 구형 운전자는 싫어도 옆에서 알짱대는 신형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생각한다. '제길, 그냥 연식같이나 하지 뭣하러 벌써 이렇게 신모델을 출시했나', '별로 안 좋을 거야! 딱 보니 내 차보다 구린 것 같아', '잘 안 팔렸으면 좋겠어. 저 녀석이 거리를 누비고 다니면 단종된 내 차가 슬퍼하겠지?', '젠장, 그나저나 뭐가 어떻게 더 좋아졌다는 거야?'

그럼 6세대 파사트 오너들의 밥맛을 뚝 떨어지게 만든 7세대 신형 파사트는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주행해본 MAXIM이 살살이 알려주도록 하겠다. 이봐, 6세대들! 페이지 넘기지 마. 혹시 알아? 신형이 오히려 6세대보다 못하다는 혹평으로 당신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안을 전해줄지?



배기량	1,968cc
최고 출력	140hp
변속기	자동 6단
바퀴 굴림	앞바퀴 굴림
제로백	9.1초

7세대 파사트

덩치

무엇보다 컸다는 게 가장 눈에 띈다. 차체가 10cm 넘게 길어졌고(4,868mm), 좌우 폭도 15mm, 키도 15mm 커졌다. 길이가 늘어난다면 부피는 그의 제공만큼 커 보이는 법, 사방으로 이렇게 늘어났으니 언뜻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아니나 다를까, 폭스바겐은 신차 발표회에서 국내 대형차와 직접적인 경쟁을 펼칠 거라며 그랜저를 지목했다.

실내 공간

내부도 많이 넓어졌다. 실내 공간의 지표가 되는 휠베이스(앞바퀴 중심과 뒷바퀴 중심 간의 거리)가 전 세대에(2,709mm)에 비해 94mm 늘어난 2,803mm다. 뒷좌석에 앉아보진 않았지만 뒷좌석에 던져 놓은 가방에 손을 뻗기가 힘들 정도였으니 레그룸이 얼마나 넉넉해졌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7세대의 적재 공간은 529L로, 6세대의 적재 공간 565L에 비해 36L나 줄었다. 신차 발표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폭스바겐 관계자는 “골프백 4개가 거뜬히 들어간다”고 시연까지 해가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전 모델에 비해 적재 공간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2.0 TDI(터보 디젤 직분사) 엔진

6세대에게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건 엔진이다. 별로 달라진 게 없으니까, 140마력의 출력과 최대토크

32.6kg·m도 그대로다. 파사트 2.0 TDI의 엔진은 골프 2.0 TDI에 올라간 바로 그 명품 엔진이지만 실제로 주행했을 때 골프를 물든 경쾌한 느낌은 나지 않는다. 왜냐고? 같은 심장에 몸무게는 더 나가니까 당연히 엔진이 더 힘들어 할 수 밖에(파사트 빈 차 무게: 1,540kg / 골프 빈 차 무게: 1,295kg).

체중 감량

소형차 골프보다야 중대형 세단인 신형 파사트가 무거운 게 당연하지만, 중요한 건 종전 6세대 파사트에 비해 획기적으로 가벼워졌다는 사실이다. 2010년형(6세대) 파사트 2.0 TDI의 공차중량이 1,738kg이나 나갔던 데 비해, 7세대 모델은 1,563kg으로 확 다이어트를 했다. 175kg을 덜어낸 신형 파사트의 퍼포먼스가 얼마나 민첩해졌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럼에도 앞에서 설명했듯 외형과 실내 공간은 되려 커졌다. 신기하지 않나? 175kg이면 사람 3명 무건데, 대체 어떤 마법을 썼길래 덩치를 키우면서도 무게는 이렇게나 줄인 걸까(엔진을 뺐나?). 이번 7세대 파사트가 이루어 낸 혁신 중 가장 빛이 나는 부분이다.

연비

6세대 파사트 2.0 TDI의 연비도 훌륭했다. 당시 자동차 리뷰나 자동차 관련 블로그를 뒤적거려보면 “15.1km/L의 연비를 내는 차가 이렇게 잘 나가다니!”



6세대 파사트

HISTORY



1세대 파사트 (1973)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지만, 동그란 눈썹이 영 귀여워서 하나 소장하고 싶은 녀석이다. 출시 4년 만에 100만 대를 파는가 싶더니, 2세대가 나오기 전까지 무려 280만 대를 팔아치웠다.



2세대 파사트 (1980)

이거 어딘지 우리나라의 '포니'랑 비슷하지? 생긴 건 이래도 터보 디젤을 최초로 도입하여 최고속도 200km/h까지 찍은 놈이다. 1987년에는 누적 판매량 400만 대를 찍어 1세대가 세운 대히트의 계보를 이어나갔다.



3세대 파사트 (1988)

이런 또 뭔가? 우리나라 스포츠 쿠페의 시조 격인 '스쿠프'가 요 녀석을 빼놓았잖나! 80년대의 이 스타일이 좀 먹어졌거든. 이때부터 파사트의 차체가 커지기 시작했고 최고 속도는 224km/h를 찍었다. 남 나라 쌍발년도 슈퍼카? 1990년까지 누적생산량 500만 대를 돌파했다. 응? 그만...2세대까진 판매량으로 얘기하더니 갑자기 생산량을 알려주네.



4세대 파사트 (1993)

TDI 엔진이 시작된 게 바로 이때부터다. 딱 봐도 스포츠 중형 세단의 간지가 나오기 시작한다. 3세대까지의 파사트가 고성능을 지향했다면 4세대부터는 각종 편의 기능이 완비된 점잖은 세단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최고 속도는 178km/h로 낮았다. 대신 19km/L의 고연비를 달성했다. 무려 1993년에 말이지.



5세대 파사트 (1996)

이 녀석은 지금도 가끔 길에서 볼 수 있다. 6세대랑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어딘지 조금 허전하게 생겼다 싶으면 5세대 파사트다. 현대적인 디자인은 지금 기준에서 봐도 고풍형 세단의 모습으로 손색이 없다.



기자 시승회에서 파사트를 소개하고 있는 폭스바겐 코리아 최동훈 사장



예쁜 아줌마가 사회를 봤어.



문제의 우드 그레인과 플라스틱 바늘 시계



신형 파사트의 후장

하며 찬사 일색이다. 당시엔 공인 연비란 게 워낙 뽕 튀기가 심해서 최근에 측정 기준이 아예 바뀌었지만, 실주행에서 공인 연비에 턱없이 못 미치는 국산 세단과 달리, 당시 파사트는 공인 연비에 거의 근접한 실연비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런데 신형은 이보다도 연비가 더 좋아졌다. 새 연비 기준으로 14.6km/L이니까, 종전 기준으로 환산하면 18km/L가 넘는다. 경차 스파크(연비: 17km/L) 보다 높은 황당한 연비다. 같은 엔진으로도 연비 혁신을 이룬 핵심 요인은 역시 '다이아트'다.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다. 연비 주행 세계 기록을 보유자로 유명한 호주 의 테일러 부부(존 테일러, 헬렌 테일러)가 신형 파사트 2.0 TDI를 만땅 주유하고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달렸는데 무려 2,616.9km나 달리는 진기록을 세웠다. 한 번 주유로 경부고속도로를 6번 넘게 달렸다는 소린데 연비로 환산하면 무려 37.4km/L다.

제일 열 받는 것

그래 그래, 신형이니까 다 이해한다 이거야. 기술이야 항상 발전하니 주행 성능이니 연비니 점점 더 좋아지겠지. 그런데 딱 거 다 집어치우고 업그레이드 버전이면 가격도 좀 비싸져야 하는 거 아냐? 구형이 된 6세대 파사트의 오너들을 가장 열 받는 게 하는 건 다름 아닌 '가격'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530만 원이었던 6세대 파사트가 7세대에 와서 4,050만 원에 나왔기 때문. 무려 500만 원 정도가 다운됐다. 올해 초에 구형을 산 사람이 미치고 팔짝 뛴 노릇이다. 배 아프면 새로 사야지 어찌겠어? 🙄

GIRL TALK ABOUT PASSAT

안나: 파사트 신형이 그렇게 대단해요?

희성: 앞에 써놓은 걸 보면 그렇긴 한데... 내 생각엔 좀 너무 좋게만 써놓은 듯.

영비: 오, 반론 제기인가?

희성: 저것만 읽어보면 구형 파사트가 엄청 안 좋은 차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진 않은데...

영비: 타봤어?

희성: 네, 아는 오빠 차예요.

영비: 6세대는 안 타봤는데... 어땠다?

희성: 차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땐, 이전 모델이 훨씬 더 예쁘지 않아요?

안나: 그건 저도 동의해요. 6세대 디자인의 발전형을 기대했는데 아예 다른 차가 나왔네요.

영비: 음, 내가 보기에도 차체는 더 커졌는데, 전장 디자인은 더 작은 차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바뀌었다는 느낌이었어.

안나: 개성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디선가 많이 본 디자인으로 변했어요. 같은 폭스바겐 중에 제타랑도 좀 비슷무레해진 것 같고...

희성: 내가 보기엔 혼다 뉴 어코드랑도 좀 비슷해진 것 같아. 개성이 없어.

안나: 편집장님은 직접 시승도 하셨잖아요. 내부는 어때요? 실내는 의외로 엄청 고급스럽고 기갈날지도 모르잖아요?

영비: 6세대 내부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번 건 인테리어가 영 별로야. 심플한 미학이 있다고는 하는데 내 눈엔 촌스러워 보였어. 우드 그레인이 너무 옛날식이라 중고차를 탄 느낌도 좀 들고.

안나: 월, 사진을 보니 정말 그렇네요. 이런 패턴의 우드 그레인은 너무 시트지를 붙인 플라스틱 같아 보여요.

영비: 그래 맞아. 딱 정확한 표현이다. 게다가 아날로그식 바늘 시계가 가운데 달려 있는데 그게 정말 압권이야. 완벽한 복고지.

희성: 자동차에 바늘 시계 있으면 예쁘던데? 전에 제가 캐딜락 CTS-V 화보 모델로 나왔을 때 봤는데 그 차가 그랬거든요.

영비: 그거랑은 완전히 달라. 이런 행사에서 나눠주는 플라스틱 시계 같았어.

안나: 하여튼 성능은 나아졌을지 몰라도 디자인에서만은 7세대가 6세대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얘기군요? 듣고보니 이번 디자인은 파사트를 좀 더 저렴한 차로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영비: 실제로 7세대 가격이 더 저렴해.

희성: 음... 게다가 무게감이 없달까? 프리미엄 세단치고 가벼워 보이는 디자인이예요.

영비: 실제로 더 가벼워.

안나: ㅋㅋㅋ 진짜 솔직한 디자인이네요.

MOTOR NEWS

BMW 코리아 NEW 7시리즈 출시

BMW 코리아가 NEW 7시리즈를 출시했다. BMW 특유의 코로나 링과 스마트 액센트 스트립이 내장된 신형 LED 라이트를 적용해 야간 주행 능력을 높였다. 새롭게 디자인한 가죽 시트는 장시간 주행에도 인락함을 제공하고, 추가로 채택한 방음재로 주행 소음을 최소화했다. 3.0리터 직렬 6기통 가솔린엔진을 장착해 최고출력 320마력을 발휘한다. 또 10.25인치의 다기능 디지털 디스플레이 계기판은 운전자가 선택한 주행 모드에 따라 다른 색상과 그래픽으로 표현된다.

문의 BMW 코리아(www.bmw.co.kr)



페라리 F12 베를리네타 한국 상륙

페라리 공식 수입사 FMK가 페라리 F12 베를리네타 신차 발표회를 열고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 모델은 제로백까지 3.1초의 폭발적 힘을 발휘해 역대 페라리 중 가장 강력한 힘과 최고 성능을 자랑한다. 6,262cc V12엔진을 장착해 최대출력 740마력을 선보이고 7단 F1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은 이런 강력한 힘을 운전자의 의도대로 오차 없이 지면에 전달한다. 또 엔진과 좌석의 위치를 낮게 조정, 낮은 무게중심을 통해 차체의 안전성과 최적의 핸들링을 구현했다.

문의 페라리(www.seoul.ferrari dealers.com)



JEEP 그랜드 체로키 오버랜드 서밋 출시

크라이슬러 코리아가 JEEP 프리미엄 SUV 그랜드 체로키 오버랜드 서밋을 출시한다. 이번 모델은 메시 그릴과 크롬 베젤을 강조한 안개등, 20인치 알루미늄 휠 등을 장착해 세련된 외관을 완성했다. V6 3.0L 터보 친환경 엔진을 탑재해 부드러운 주행도 강력한 주행 성능을 보인다. 거기에 11.9km/L의 우수한 연비와 226g의 최소화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높은 연료 효율성과 환경까지 고려했다. 정속 주행 장치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추돌 경고 시스템, 파크뷰(Parkview) 등의 첨단 안전 사양들은 기본 사양이다.

가격 7,610만 원 문의 크라이슬러 코리아(www.chrysler.co.kr)



렉서스 뉴 제너레이션 ES 한국 출시

렉서스에서 렉서스 ES를 풀 체인지한 뉴 제너레이션 ES를 출시했다. 스피들 그릴로 대표되는 스포티한 디자인과 넓어진 실내공간 그리고 향상된 주행 성능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뉴 제너레이션 ES350과 뉴 제너레이션 ES300h의 두 가지 모델이 출시된다. ES300h의 경우, 독일 프리미엄 디젤 차량을 공략하기 위해 디젤 모델을 능가하는 압도적인 연비와 렉서스 하이브리드만의 강력한 경쟁력으로 무장했다. 독일 프리미엄 세단의 기를 죽이기 위해 나타난 일본의 명차 렉서스 뉴 제너레이션 ES!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문의 렉서스 코리아(www.lexus.co.kr)



볼보자동차 코리아 2013년형 S60 출시

안전의 대명사 볼보자동차 코리아가 안전 및 편의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 2013년형 스포츠 세단 S60 모델을 출시한다. 이 모델은 세계 최초 저속 추돌 방지 시스템 '시티 세이프티' 기능을 장착했다. 시티 세이프티 기능은 50km/h 이하 주행 시 충돌이 예상될 경우 스스로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최첨단 기능이다. 이 외에도 맞은편 차량의 빛을 감지하여 상향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액티브 하이빔 기능과 앞유리에 장착된 카메라로 도로 표지 정보를 계기판에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

가격 4,430만 원(S60 D4) 5,280만 원(S60 D5)

문의 볼보자동차 코리아(www.volvocars.com/kr)



푸조 508 구매 고객 대상 특별 프로모션 실시

푸조의 공식 수입원 한빛 모터스에서 우아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각종 편의 사양을 고루 갖춘 푸조의 플래그십 모델 푸조 508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푸조 508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차량 가격의 30%를 납입 후 36개월 동안 508(active)는 369,300원, 508(allure)는 406,560원, 508(GT)는 497,040원을 매달 지불하면 된다. 그후 50%의 유예금은 3년 뒤 일시불로 납입하거나 추가 리스로 이용할 수 있다. 구매를 고려했다면 이번이 좋은 기회다.

문의 푸조(www.epeugeot.co.kr)



레이가 열받았다! 기아자동차 2013년형 레이 출시!

기아자동차가 강력한 카파 1.0 터보엔진을 탑재한 2013년형 레이를 출시했다. 레이 터보 모델은 최고출력 106마력, 최대토크 14.0kg·m로 동급 최고 수준의 동력 성능을 발휘하며, 17.9km/L의 우수한 연비를 자랑한다. 이 외에도 ISG(공회전 방지 장치)를 적용해 환경까지 생각했다. CVT 무단 변속기를 탑재해 최적의 엔진 운영 상태를 제공함으로써 가속 성능을 향상시켰다. 귀엽다는 말만 들어서 자존심 상한 레이가 이제는 최고의 동력 성능을 견비하여 당신을 긴장시킬 일만 남았다.

문의 기아자동차(www.kia.co.kr)



MAXIM MOTOR 독자를 위한 SPECIAL EVENT

슬라가드 열 차단 필름은...

최첨단 필름 제조 신기술인 '스퍼트링' 공법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 개발에 참여했다. NASA의 우주선에서 태양열을 차단하는 용도로 사용한, 130년 전통의 명품, 슬라가드 열 차단 필름이다!

▶ **응모 기간:** 2012. 9. 22 ~ 2012. 10. 18

▶ **상품:** 22만 원 상당의 열 차단 틴팅 시공 (전면 시공, 즉·후면 제외)

▶ 응모 방법

1. 애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MAXIM으로 보내라.
2. 사진 속에 MAXIM 이쁜 호가 나오면 더 좋다.
3. 재미있고 적절한 사연을 곁들인다면 완전 좋고!

▶ 보낼 곳

- event@maximkorea.net으로 사진과 사연, 연락처를 보낸다.

- 010-5199-1182(편집부 전화)로 사진을 첨부한 문자를 보내도 좋다.

MOTOR
EVENT

제18회 MAXIM 무료 틴팅 당첨 독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MAXIM을 보고 있었소. 매일 시간 날 때마다 빼먹지 않고 구입해 온 MAXIM이 책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수준이요, 어쨌거나 MAXIM이라면 알 것 같소만, 이런 차를 이타사라고 하오. 이런 차를 어떻게 끌고 다니느냐는 사람도 많은데, 애당초 이런 차를 만들 정도라면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즐기면서 사는 게 좋지 않겠소? 아직 정면의 선택이 제대로 되지 않아 MAXIM의 도움으로 소인의 이타사에 화룡점정을 찍고 싶소. 게다가 애인이(오타쿠라고 애인이 없는 건 아니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당첨이 되면 xxx를 해 줄게~"라고 얘기했다오. 부디 잘 부탁드리오.

P.S. 당첨되면 얼마 전에 일본에서 구입해 온, 심의 규제에 걸릴 만한 어떠한 물건을 공물로 바치겠소. 하나밖에 없으니 MAXIM에서 누가 소유하게 될지는 회사 측 남자 직원끼리 잘 상의하시오.



슬라가드 이벤트 당첨자 틴팅 후기 보기

럭셔리 이타사를 타고 다니는 독자님께 xxx를 해줄 여친까지 있다니 세상 참 불공평하네요. 제길, 어쨌든 감촉드립니다. 사실 저희 편집부도 독자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수상한 물건에 호기심이 폭발한 상태입니다. 눈 별걸개 뜨고 침을 흘리며 태백한 기다리고 있는 남자 에디터들이 탈수 증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친님으로부터 xxx를 받게 된 것도 축하드립니다. 원지는 모르겠지만, 여친님이 해주는 거니까 좋은 거겠지요. '볼보보'같은 건가? 하하.



지난 호 MAXIM을 놓쳤나?
 목숨과도 같은 당신의 MAXIM 컬렉션에 이빨이 빠졌나?
 서점에서도, 인터넷 서점에서도 MAXIM 과월호를 구할 순 없다.
 좌절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으로 오라!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구매 메뉴로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나온 MAXIM 매거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녀가 풀질되기 전에 어서 정취하시길!
 *평일 오후 4시 이전에 입금하시는 독자님께서는 당일 발송 가능합니다.
 일부 과월호는 풀질되었을 수 있습니다.

MAXIM
 과월호
 충알 배송!
 (충알을 드리진 않아요.)



아리아니 셀레스티 / 에이콘 111th 2012. 09

STYLE × OF THE MONTH

가리개 휘날리며

진짜 야구 마니아는 낭심까지 뜨겁대.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신속희
 ASSISTANT 박종원 FILM 최성준
 COOPERATION YES(080-320-1925)



롯데자이언츠

부산 갈매기의 기운을 아랫도리에
 심어보자. 8개 구단 중 독보적이라
 할 만큼 팬이 가장 많기도 하거니
 와 극성맞기로도 유명한 롯데.

그녀가 롯데 팬이라면 속옷을 갈기
 갈기 찢으며 덤비는 파괴 신공을
 시전할 수도 있으니 주의할 것!

모두 YES 제품. 가격 25,000원



LG트윈스

프로야구의 대표적 약체 구단이지만 팬들의 자부심은 메이저리그 못지않다(정말 미스터리다). 마치 당신의 그것처럼 말이다. 과연 LG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10년째 못하는 유일무이한 기록을 세울까? 뭔가 무모해지고 싶은 주말, 이 녀석을 입고 흥분을 치러 나가보는 건 어때?



두산베어스

두산은 다른 팀에서 잘하는 친구들을 데려와서 꿈으로 개조하기보다, 새끼 꿈을 잘 육성해서 스타 공으로 만드는 팀이다. 당신의 그것도 잘 육성해서 화수분처럼 키우라는 의미가 담긴 속옷이다. 두산은 여성 팬이 상당히 많은 구단이니만큼 당신의 바지를 내린 그녀가 두산의 팬일 확률도 높다.



강도가 따로 없네...

지갑의 눈물

추석에 조카 앞에서 열리는 지갑은 양파와 같다. 지갑을 까면 칼수룩 왜 눈물이 나오는 거야.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전은경 ASSISTANTS 박종원, 최종희 FILM 최성준
COOPERATIONS 히데오 와카마츠(031-338-0096)
만다리나타워(02-516-7070) 비아모노(02-308-5600)
랑셀(02-2106-3446) 닥스(1544-5114)
밴드오브플레이어스(02-2225-0185)

1

1. 수납공간이 많아 비상금
숨기기에 제격이다.
히데오 와카마츠 가격 390,000원

2. 굳이 해외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들고 다니면 있어 보이는 여권 지갑.
비아모노 19,000원

3. 명함을 꺼낼 땐 가죽 냄새가 풍겨야 편리직 같다.
닥스 128,000원

4. 어두운 색상의 지갑이 칙칙하다면 밝은색으로 포인트를 주자.
만다리나덕 138,000원

이게 말이 돼?

<명함 품은>
· 코슈학을 - 1만원
· 글락용 - 2만원
· 고스학을 - 3만원

5. 지갑을 열었을 때 5만 원짜리가 보여야 진가가 발휘되는머니 클립.
밴드오브플레이어스 79,000원

6. 공간이 넉넉해 명함뿐 아니라 각종 카드까지 잔뜩 넣을 수 있는 명함 지갑.
랑셀 159,000원



26

AK플라자의 자료조사에 따르면 추석에 가족에게 뽕 뜯기는 용돈이 무려 평균 26만 원이란다. 조카의 탈을 쓴 강도 같으니!



최악의 추석 선물: 티켓 몬스터의 조사에 따르면 20~40대 직장인이 뽑은 최악의 추석 선물은 '양말'이다. 최고의 선물은 뭐니뭐니해도머니(money)!

보기만 해도
매운 촬영
현장



가을엔 물

모두가 쓸쓸해지는 가을. 수분을 빼앗긴 환절기 피부도 외롭다.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신숙희 ASSISTANT 박종원 FILM 최성준
COOPERATIONS SK-II (080-023-3333), 보닌(080-023-7007), 랩시리즈(02-3440-2774),
설화수(080-023-5454), 키엘(080-022-3332), 프리메라(080-0235-5454), 비오템 올므
(080-322-0222), 씨엔피 올므(080-220-0707)

SK-II 스템파워 크림

손가락의 입력만으로도 유호 성분들이 피부에 닿자마자 공간 침투하길래 피부 위에서 아스널 유소년 팀이 뛰고 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피부로 침투한 '스템파워 콤플렉스' 성분이 피부를 스프링처럼 탄력있게 만들어준다. 발라보니, 얼굴에서 양학선이 도마해도 되겠다.

50g 가격 12만 원대

Editor's
choice

보닌 더 스타일 블루 파워 트리트먼트 에센스

스트레스를 받는 날엔 집에 가서 이 녀석을 먹지먹지 바른다. 주성분인 '오메가 허브'는 화학 첨가물 없이 자연 발효시킨 성분으로 피부 스트레스에 직빵이다. 열 받으면 술 먹지 말고 에디터처럼 화장품을 발라 보는 건 어떨까? 자신의 뺨을 거칠게 때리면서 말이다.
100mL 가격 4만 원대

랩시리즈 인스턴트 스킨 부스터

눈가 주변이 자주 붓는대거나 붉은기가 있는 흉당무 피부라면 이 녀석을 써보자. 뽀루지에 탁월하다는 은매화 잎 추출물이 두더지처럼 튀어나온 피부 트러블에 망치를 휘갈길거다.
50mL 가격 59,000원

설화수 정양유액

설화수가 얼마전에만 좋을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자. 정양라인은 오로지 남성을 위한 제품으로 음주, 흡연, 면도로 푸석해진 피부에 물을 뿌려준다. 역시 화장품도 가슴도 '정양'이 최고야!
90mL 가격 52,000원

촬영장을
야채가게로
만들 기세



프리메라 맨 오가니언스 에센셜 크림

면도 할 때마다 입 주변이 따귀를 얻어맞은 것처럼 붉게 부어오르는 아토피부를 가진 에디터가 자주 애용하는 제품. 손상된 피부에 쉼어 버터 성분이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 오랜 시간 촉촉함이 유지된다. 50mL 가격 3만 원대

키엘 울트라 웨이셜 모이스처 라이저

보습 효과엔 올리브만 한 게 없다. 키엘에 쓰인 '이탈리아 스쿠알렌 올리브 오일'은 그중에서도 최고급으로 쳐주는 녀석이니 믿고 발라보자. 기름 성분이라고 해서 미끄러울 줄 알았는데 번들거림이나 유분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타올도 그렇고 역시 '이태리' 것이 좋구먼 125mL 가격 39,000원



씨엔피 옴므 액티브 세럼

남성 피부의 최대 고민 중 하나인 번들거림에 당수를 날린 녀석. 피지 분비 조절에 탁월하다는 세보리스(Sebo-less) 성분이 이 녀석의 필살기다. 볼판 위의 대패 삼겹살처럼 피부에서 기름이 뿜어져 나오는 수컷에게 추천

60mL 가격 32,000원



비오템 옴므 아쿠아파워 모이처라이저

분명히 얼굴에 발랐지만 발랐다는 사실을 까먹어 자꾸 뚜껑을 열게 만들 만큼 정신 나간 흡수력을 자랑한다. 아쿠아 파워라니 이름만으로도 피부에 물을 갈겨대는 느낌이다. 1990년대 이 발소를 연상시키는 아저씨 냄새는 <응답하라 1997> 복고 스타일을 노린 건가?

75mL 가격 50,000원



스카이블루

Danning Fu(160cm, 42kg)

MAXIM 시그너처 여성용 먼 스판 티셔츠
 색상: 스카이블루, 옐로, 화이트



오빠는
이거 입자♥

→ maximkorea.net에 접속한다
 → 홈페이지 상단 STORE 메뉴를 클릭한다
 → MAXIM SHOP에서 상품을 고른다



네이비

최현아(158cm, 44kg)

MAXIM 여성용 브이넥 먼 티셔츠
 색상: 네이비, 화이트



MAXIM 남녀공용 먼 티셔츠

색상: 화이트, 블랙



화이트

김수아(176cm, 56kg)

MAXIM 여성용 브이넥 먼 티셔츠



MAXIM 시그너처 여성용 T팬티

모델: 엄상미
 (169cm, 47kg)

구매 문의
 www.maximkorea.net
 Tel. 02-323-1182

모자 모두 뉴에라(070-4411-5950)

WATCH NEWS

G-SHOCK의 빅 페이스 시리즈, 로즈 골드 모델 출시

귀여운 외형의 G-SHOCK이 시크한 멋을 뽐냈다. 힘이 넘치는 터프한 디자인의 G-SHOCK 빅 페이스 시리즈에서 아름답고 세련된 로즈 골드를 테마로 한 로즈 골드 모델을 새롭게 출시한 것. 베젤과 문자판, 인 다이얼을 로즈 골드로 마무리했으며, 블랙 컬러의 반전 액정을 사용해 로즈 골드를 더 돋보이게 배려했다. 미네랄 글래스를 사용해 견고성을 높이고 내구성 좋은 우레탄 밴드를 적용해 오랜 시간 품질의 변질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활달하지만 때론 고독함을 느끼는 당신에게 제격인 워치. 지금 이태원 G-FACTORY 매장을 방문해보자.

문의 G-FACTORY(02-3785-0718)



헬다이버 시계로 우중충한 가을에 색을 입혀라

헬다이버 워치 2C-4001SIL은 F/W 시즌의 트렌드 컬러인 브라운 가죽에 싱그러운 오렌지색 조합으로 톡톡 튀는 디자인이 강점인 제품이다. 시원한 색상인 블루 코팅 글래스의 디테일을 더해 독특함과 심플한 멋을 모두 담았다. 강인한 인상의 회전식 용두와 브라운 가죽의 소프트한 질감이 너무 세지도 무르지도 않게 디자인의 균형을 잡아준다. 어떤 스타일에 매치해도 손색없는 포인트 아이템. 가을이라고 해서 우울한 색상으로 당신을 도배하고 있는가? 이제 오렌지색 헬다이버 시계로 발랄하고 부드러운 매력을 동시에 발산해보자.

가격 325,000원

문의 에이맨인터내셔널(1644-3885, www.helldiverwatches.com)



ALBA가 프리미어를 만났을 때, ALBA Premier AN4016X

이름만으로 품질을 보장하는 패션 워치 브랜드 ALBA에서 럭셔리 워치 수준의 고퀄리티 모델 프리미어 드레스 워치 AN4016X 모델을 선보인다. 슬림한 원형 케이스에 다이아몬드 커팅한 핸즈를 더해 심플한 디자인의 세련미를 보장한다. 입체적인 초 표시창과 정교한 인덱스를 넣은 시계판은 단조로움을 피하고 보는 맛을 더했다. ALBA의 프리미어 라인인 모두 가죽 마감의 전용 케이스를 적용해 구입하는 순간부터 구매자가 존중받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가격 390,000원 문의 삼정시계

(02-511-3182, www.albawatch.co.kr)



블랙도 빛이 난다. 루미녹스 Field Day Date 1861.BO

진정한 시크함과 강인함을 손목 끝에서부터 느끼고 싶다면 주목할 제품이 있다. 루미녹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Field Day Date 1861.BO 워치는 인덱스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블랙 색상으로 처리해 파워풀함이 느껴진다. 스테인리스스틸 케이스로 스위스 무브먼트를 감싸 퍼포먼스는 높이고, 차갑고 강인한 재질로 견고성을 높였다. '밝은 밤'을 뜻하는 브랜드 이름처럼 자체 발광 트리튬 캡슐을 적용한 야광 기술이 일반 야광보다 100배 이상 밝은 가시성을 보장하니,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익스트림한 아웃도어 상황에서도 적합하다. 독특한 명품 시계를 찾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가격 670,000원

문의 미림시계(02-757-9866, www.milimwatch.co.kr)



당신은 나의 그림자,

자스페로 UMBRA 커플 워치

이탈리아어로 그림자를 뜻하는 UMBRA(움브라) CG201-24.LB, CG201-74.LB 모델은 단어의 의미처럼 커플이 쓰기에 안성맞춤인 시계다. 풍부한 입체감이 느껴지는 울트라 인덱스를 채택하여 각도에 따라 다양한 시각 느낌을 선사한다. 자스페로(ZASPERO)의 엄격한 테스트 기준을 통과한 이탈리아산 천연 가죽 스트랩이 편안한 착용감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보장한다. 메탈 밴드와 호환이 가능하며 한 가지 본체에 여러 가지 스트랩을 적용해 다양한 패션 연출이 가능하다. 더 추워지기 전에 그녀의 그림자가 되고 싶다는 뜻을 담아 작업녀에게 선물해보자.

가격 각 298,000원

문의 자스페로(1688-8907, www.zaspero.co.kr)

키스를 부르는 시계, 브라운 프레스티지 컬렉션

2012년 IF 디자인 어워드, 레드 닷 어워드를 수상해 가치를 인정받은 독일 워치 브라운에서 새로운 컬렉션 프레스티지 컬렉션을 선보이고 국내에 한정 수량으로 출시한다. 디지털 문자판과 스퀘어 라인 케이스 디자인이 미래 지향적인 시계 철학을 담았다. 총 4가지 버전의 시계판 디자인과 블랙 메탈, 러버, 스테인리스스틸 밴드로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드라마 <아이두 아이두>에서 이장우와 김선아의 키스 신에 이장우가 착용한 제품으로 더 잘 알려진 프레스티지 라인. 키스가 무척 절실하다면 매일 꾸준히 차볼 것을 권한다.

문의 거노 코퍼레이션(02-3397-7100, www.eurotime.kr)



STYLE NEWS

팬츠 전문 브랜드 아이코닉 세븐 매장 성황리 오픈
 남성 캐주얼 브랜드 지이크(SIEG)에서 선보인 신규 브랜드 Iconiq 7(아이코닉 세븐)은 국내 최초 팬츠 전문 브랜드다. 1호점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시작으로 최근 개장한 부산 신세 계백화점 센텀시티와 롯데백화점 본점까지 총 7개의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다. 아이코닉 팬츠는 퀄리티 있는 수입 원단 소재를 사용하고 한국인 체형을 고려해 편안한 착용감을 선보인다. 더 이상 수입 브랜드 팬츠의 기장을 좋아하는 일은 이제 그만. 이제부터 아이코닉 세븐 팬츠로 몸에 딱 맞게 코디하자. 문의 지이크(www.sieg.co.kr)



NEW ERA, 잠실 매장에 이어 인천까지 상륙!

패션왕, 힙합 패션의 아이콘 뉴에라(NEW ERA)가 잠실 매장을 개장하고 순항 중이다. 잠실 롯데월드 매표소 옆에 자리 잡은 뉴에라 매장은 놀이동산을 찾는 손님뿐 아니라 명성을 듣고 찾아온 힙합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특히 주름진 모자를 새것처럼 만들어주는 기계를 국내 최초로 도입, 놀이동산에서 간지 작살로 패션을 연출하고 싶은 뉴에라 고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뉴에라는 이런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인천 연수동에 새 매장을 10월 5일에 오픈한다. 서울에 이어 경기 지역까지! 그 명성을 지금 확인해보자.

문의 뉴에라 코리아(070-4411-5950)



트라이 발열 내의 히트업, 너도밤나무를 입다

발열 내의를 찾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생방울의 대표 브랜드 트라이가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한 히트업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 제품은 오스트리아 너도밤나무로 제작해 광택이 좋고 부드럽다. 또 뛰어난 착용감과 발열 기능 및 세련된 디자인을 모두 갖춰 자꾸만 손이 가는 제품이기도 하다. 땀을 신속하게 흡수하는 기능도 있어 입는 내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완벽한 트라이 발열 내의, 구입은 전국 트라이 전문점에서 가능하다.

문의 생방울(02-3485-6130~1, www.sbw.co.kr)



아싸 맥심 출연!

가을 남자의 필수 아이템, 트래블 피코트

가을 남자라면 갖춰 입어야 할 패션 아이템을 소개한다. 코오롱스포츠의 트래블 피코트는 내피 탈착이 가능해 겨울까지 요긴하게 입을 수 있다. 또 방수 소재로 제작해 비가 오는 날에도 끄떡없다. 일교차가 큰 요즘, 트래블 피코트를 입고 짝사랑 그녀와 거리를 거닐어보자. 얇게 입은 그녀가 추워 한다면 남자답게 벗어 주는 건 필수! 따뜻한 당신의 트래블 피코트가 공평 언 그녀의 마음도 녹일 수 있지 않을까?

가격 440,000원

문의 코오롱스포츠(1588-7667)

런던 보이를 꿈꾸다, 크록스의 로프로 슬림은 스니커

크록스가 고무 신발만 만든다고 누가 그랬던가? 이번 가을에 크록스에서는 클래식한 멋을 담은 로프로 슬림은 스니커를 선보인다. 이 슈즈는 가죽 소재와 깔끔한 디자인으로 제작해 캐주얼 룩, 오피스 룩에 모두 잘 어울린다. 또 쿠션감과 편안한 착용감을 선보여 오래 걸어도 발에 무리가 오지 않는다. 데일리 슈즈로 제격인 이 제품은 전국 주요 백화점 및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하다.

문의 크록스

(1661-0677, www.crocs.co.kr)





NEWERA

한국 상륙

이제야 알아버리다.
BY 이영환 DESIGN 신숙희
PHOTOGRAPH 최성준

무브먼트, 마스터플랜, 동네 패션왕 할 것 없이
개나 소나 합합퍼, 무신사를 전전하며 주위 쓰던 NEWERA,
바로 그 NEWERA가 드디어 전격 한국에 상륙했다.
솔까 조금 때늦은 감이 있지만 말이다.



NEWERA의 국내 론칭 첫 번째 안착지는 잠실 롯데월드 매점 부근의 매장. 가방, 의류, 모자 할 거 없이 간지 터지는 아이템들로 가득 차 있다. 감각의 순간이로군.



농구공만 한 마리는
7/8 사이즈를 쓰도록.

찰찬지원수도 내 앞에선
Brother&Sister.



간지 종려상을 받은
느낌이에요.



어우, 이 좃간지를
어쩌란 말이지?

재 손님 아니야,
재 좀 이상해.



점장 형, 애 좀 어떻게
해보라고 사브.

합합퍼가 아니더라도 멋진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모자들이
준비되어 있다. NEWERA가 원래 페도라나 힙핑캡을 생산하던
브랜드라는 거 혹시 알고 있었나?



NEWERA에서
P가 난다!

주름진 가없는 NEWERA를 화성시켜주는 기적의 명기.
일본에 이어 한국에도 들어왔더니 매장 방문한 길에 한 번쯤
사용해보시길. (심지어 공짜)

급격히 늘어나는 20, 30대 탈모 환자들의 구세주요,
힙합의 아이콘인 NEWERA가 잠실 매장을 시작으로
10월 5일 인천 연수동 매장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92년 전통을 자랑하는 힙합 장인 할배가 총 22단계
공정 노하우를 거쳐 생산한다는 NEWERA.
자체 온도 조절 능력과 뛰어난 건조력으로 '팜내몬'으
로 불리는 싸나이들의 젖은 머리를 식혀준다고 하니,
탈모 환자들은 잘 새겨들으라구요!
문의 뉴에라 코리아 (070-4411-5950)



새로 태어난
합합 퍼빠용.

이... 이거만 찍고
가는 거 맞겠지...

웬지 직원 형들 일하다 말고 "원모더머니엔투포더쇼" 할 것 같은 느낌

RECRUIT

MAXIM KOREA 2012년 정기 공채 추가 모집

- 일러스트레이터 직군 -

세계 85개국에서 발행되는 최강의 글로벌 남성 매거진 MAXIM의 한국 법인에서 2012년 추가 공채를 실시합니다.

모집 직군	수습 일러스트레이터	
소속	편집 디자인팀	
모집 인원	0명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XIM의 성향과, MAXIM의 코믹한 일러스트를 이해하는 자 - 웹툰 그리기, 캐리커처 그리기에 능한 자 - 페인터,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자 - 태블릿 사용이 능숙하며 다양한 그림체 표현이 가능한 자 - 캘리그래피 가능한 자 우대 	
지원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www.maximkorea.net 하단의 recruit 메뉴에서 입사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recruit@maximkorea.net으로 이메일 접수 2. 자신의 작업물 포트폴리오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접수 기간	2012년 9월 22일 ~ 2012년 10월 15일 자정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10월 16일 저녁 8시 MAXIM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와 함께 면접 일정 안내 	
근무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턴 기간 6개월 동안의 직무능력 평가에 따라 정규 직원으로 승진 - 주 5일 근무 	
근무지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2호선 홍대입구역 1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재능있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MAXIM KOREA 2013년 정기 공채

2013년에도 어김없이 전 직군에 걸쳐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합니다. 세계 1위의 글로벌 남성매거진 MAXIM의 일원으로서 함께 성장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3년 공채 일정)

입사지원서 접수	2012년 11월 경 접수 개시
서류합격자 발표	2012년 12월 말 발표
필기(또는 실기) 및 면접 전형	2013년 1월
최종 합격자 발표	2013년 1월 말
근무 개시	2013년 2월 경

*정확한 채용 일정은 2012년 11월호에 발표합니다.

모집 직군	모집 인원	부서 직무
매거진 에디터	0명	기사 작성/ 화보 촬영/ 섭외/ 콘텐츠 기획 등 MAXIM 매거진 콘텐츠 제작 업무 전반
편집 디자이너	0명	매거진 편집 디자인/ 디지털 매거진 제작/ 전자출판 관리/ 웹디자인 등 디자인 관계 업무 전반
영상 에디터	0명	화보 제작/ 현장 촬영/ 영상 취재, 편집 등 영상 콘텐츠 제작 업무 전반
온라인 뉴스 기자	0명	취재/ 기사 작성/ 해외 MAXIM 기사 보도 등
마케팅	0명	광고 영업/ 신사업 기획/ 인쇄 제작 관리 등
경영 지원	0명	유통/ 인사/ 총무/ 회계/ 고객 관리/ 구매/ 복지/ 재고 관리 등
법무/ 기획	0명	신사업 기획/ 법무/ 뉴미디어 기획/ 홍보/ 재무/ 뉴욕 본사 관계 업무/ 각종 프로모션
임원 비서	0명	CEO 또는 편집장 보좌 업무



OH, SARAH!

란제리가 잘 어울리는 탄탄한 보디, 적당한 사이즈의
예쁜 엉덩이, 시원시원한 미소, 엄청난 유연성.
MAXIM USA가 **사라 사히**를 가장 섹시한 TV 속 여인으로
선정한 이유는 단지 외모 때문만은 아니다!



GO TO
MAXIM
iPAD
미공개 컷



S

TEAMY!

날씨가 제법 쌀쌀하다. 당신의 TV, 랩톱, 태블릿 PC를 달궂줄 뜨거운 영상물이 간절해지는 가을은 진정한 남자의 계절이다. 요맘때 수능들 쿠폰에서 스팀 뽕게 만드는 핫한 여인이 등장하는 법정 미드 <페어리 리갈>은 어떤가? MAXIM USA가 선정한 '섹시한 TV 속 여인 1위'에

빛나는 사라 샤키가 주인공이라는 것만으로 볼 이유는 충분하지 않나? 아직 확신이 안 선다면, 이국적인 매력이 폴폴 풍기는(당연하지, 외국인이지않아) 샤키와 MAXIMI 나눈 유방 사랑, 블로잡 레슨, 실베스타 스탈론 그리고 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시라.

MAXIMI 선정한 '가장 섹시한 TV 속 여인'이라는 타이틀, 맘에 드나?

세상에 예쁘고 멋진 여자들이 그토록 많은데 나에게 이런 호사스러운 명예를 주다니 정말 고맙다. 트로피는 어디 있어?

하나 짜 좋까? 허헛, 진짜로 달라고 할 줄은 몰랐... 빨리 달라. 트로피, 어깨 띠, 왕관 다 내놔라.

그나저나 정말 몸매가 환상적이다. 실제로 보니 더욱 놀랍다.

엄마는 늘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특히 손을 소중히 다루듯 유방도 소중히 감싸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느 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엄마와 함께 브레이저를 사러 갔는데 남자 직원이 다가와서 "따님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었다. 내 사이즈를 정확히 모르니까 엄마가 갑자기 내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잡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 정도요!"

화끈한 엄마에 화끈한 딸이로군. 당신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미스터리한 마녀 같은 어둠과 쾌활한 치어리더 같은 밝음을 동시에 갖고 있다. 전혀 다른 두 가지 캐릭터를 모두 느낄 수 있다는 거다.

실제로 NFL 델러스 카우보이에서 치어리더로 일한 적이 있다. 어떻게 치어리더를 하게 됐나?

어릴 때부터 남앞에 나서는 걸 좋아했다. 무대에 많이 서기도 했고, 대학생 땐 뮤지컬 <시카고>에 출연하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 모두 내가 배우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다. 마침 1995년엔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에 카우보이 치어리더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나에게 "카우보이의 치어리더로 뛰어보는 건 어떠냐?"고 권했다. 한마디로 치어리더가 되고 싶었다기보다는 TV에 한번 나가고 싶어서 치어리더에 도전한 셈이다.

미식축구 팬인가?

풋볼의 메카인 텍사스 출신이긴 하지만 스포츠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고향에선 카우보이 델러스에 열광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말이다. 운동을 못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쪽보다는 책벌레에 가까운 아이였다. 홀어머니 아래서 자랐기 때문에 늘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에 들어가는 게 우선이었다.

월 페렐, 빈스 본 같은 쟁쟁한 배우들이 나오는 <올드 스쿨>에도 출연했다. 섹스 코미디의 고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 촬영은 어땠나?

•올드 스쿨 <행오버> 시리즈를 만든 토트 필립스 감독의 2003년작 코미디 영화.

아, 거기서 블로잡(펠라치오) 레슨에 참가하는 여자로 등장한다. 나는 메소드 연기(극사실주의 연기)를 하는 배우답게, 이 연기를 위해 실제로 블로잡 수업을 들었다. 이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싶다는 연기 열정 하나로.

와우! 영화를 향한 당신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보낸다. 같이 출연한 월 페렐는 친하게 지냈나?

물론이다. 촬영하면서 그의 나체를 본 적도 있다. 털이 북슬북슬한 데다 빛이 나더라. 토트 필립스 감독은 "월이 굉장히 예민할 수도 있으니 그를 쳐다보지 말지"고 했다. 하지만 내 시선은 그에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마치 불빛에 현혹되어 달려드는 불니방처럼 말이다. 어찌 아니 볼 수 있겠나. 그의 엉덩이는 마치 한 송이 꽃 같았다. 아주 털이 많은 꽃.

<소프라노스>에선 약에 취해 토니 소프라노와 라스 베이거스에서 뜨거운 밤을 보내는 여자를 연기했다. 엄청난 부담이었다. 워낙 인기 절정의 드라마라서 수많은 시청자가 내가 발정 난 여자를 연기하는 걸 볼 게 아닌가. 하지만 동시에 엄청 멋진 경험이었다.

토니 소프라노 위에 올라타서 마음대로 조종하는 여자라니. 게다가 제임스 갠돌피니(토니 역)와 발가락을 서로 맞대기까지 했다!





상의 TOP SHOP
란제리 TIMPA



남자라면 때론 나초, 도넛,
피자 같은 걸 입안 가득 처넣고
마가리타나 테킬라 병 샷으로
개운하게 식도를 씻어낼 줄도
알아야 한다.





셔츠 URBAN OUTFITTERS
팬티 ONLY HEARTS
목걸이 DOGEARED
귀고리 SONYA RENEE

똥똥한 중년 남자와 발가락을 비비대다니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는다.

그는 상당히 날 맘에 들어 했다. 그를 유혹하기 위해 온몸을 던져 얼굴에 들어갔는데 그럴 만도 하지. 어쨌거나 그해 2년 전 작품인 <엘 워드>보다 <소프라노스>로 더 뜨게 됐다. 단 한 편의 에피소드에 출연했을 뿐인데 말이다.

<엘 워드>에서는 슈퍼 섹시 레즈비언 헤어디자이너와의 러브 러브, <소프라노스>에선 중년 마피아와의 러브 러브, 화면 속 당신은 언제나 놀라운 애정신을 보여주었다.

내 말이! <엘 워드> 촬영 첫날, 상대역 케이트를 연기한 배우를 만나 서로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이 오갔다. “사라, 인사해. 여긴 케이트야. 케이트, 이 쪽은 사라야. 사라는 오늘 너의 하반신을 탐험할 예정이야.”

실베스터 스탤론과는 <볼릿 투 더 헤드(Bullet to the Head)>를 함께 촬영했다. 내년 개봉으로 알고 있는데 작업은 어땠나?

꿈만 같았다. 어릴 적 소망을 이룬 기분이다. 록키, 람보와 함께 영화를 찍다니! 더구나 스탤론처럼 유명하고 파워풀한 사람이 그토록 소박할 줄은 몰랐다. 지금은 은근히 그가 날 자기 집으로 초대해주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의 집 안에 록키 박물관이 있다고 들었다. 슬라이(스탈론의 별명), 만약 이 인터뷰

를 보고 있다면... 연락 주세요.

그런 사람들과 촬영을 한다는 건 정말 끝내주는 경험일 거다.

어릴 적 고향 텍사스에서 TV나 영화 속 인물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나오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마치 달나라 여행처럼. 하지만 이젠 알게 됐다. 달나라 여행이, 지금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평범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지금 출연하고 있는 드라마 <페어리 리갈(Fairly Legal)>에 맥가이버(리처드 딘 앤더슨)도 나온다?

그뿐 아니라 최근에는 미트 로프도 특별 출연했다. 그는 나를 직접 만나고 싶어서 출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요?”라고 소리쳤다. 대박이었다. 참고로 그는 ‘미트’라고 줄여 부르는 걸 더 좋아한다.

<페어리 리갈> 속 당신 캐릭터는 헤어진 남편과 아주 묘한 관계를 유지한다. 마치...

마치 섹스 파트너 같다고? 맞다. 좀 복잡한 사이다. 만날 때마다 티격태격하는 그들이 공동 목표를 위해 마음을 합치는 유일한 순간은 같은 이불 아래에 있을 때뿐이다.

현실에서도 그런 섹스 파트너를 만난 적이 있나?

누구나 그러지 않나? 보통 두 사람이 서로 몸 친구

가 되자고 합의하는 순간부터 복잡한 감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는 섹스파트너와 좋게 끝난 적이 없었다.

당신의 다음 계획은 무엇인가?

엄청 바쁘다! <로드 투 팔로미(Road to Paloma)>라는 영화를 프로듀싱하고 직접 출연도 하고 있다. 선댄스영화제에 출품할 예정이다. 감독은 제이슨 모모아가 맡았다.

제이슨 모모아라면 <왕좌의 게임>에 칼 드르고로 나오는 그 짐승남을 말하는 건가? 제2의 아놀드 슈왈제너거?

맞다. 올해 <코난: 암흑의 시대>에서도 야성미 넘치는 코난을 연기했다.

굉장하다! 제이슨 모모아와 월 페렐의 몸을 모두 관찰한 여인으로서 둘 중 누구 몸이 더 찰지던가?

취향에 따라 보는 눈은 제각각이다. 말랑말랑한 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돌덩이처럼 단단한 조각 같은 복근에 끌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365일 24시간 내내 헬스장에서 몸 만드는 일에 목숨 건 남자라면 나 같은 여자는 평생 가도 만날 수 없을 거다. 남자라면 때론 나초, 도넛, 피자 같은 걸 입안 가득 처넣고 마가리타나 테킬라 병 샷으로 개운하게 식도를 씻어낼 줄도 알아야 한다. 내 선택은, 고로 월 페렐! 🍷

국가대표 골키퍼 정성룡

공만 잘 막는 줄 알았더니, 포즈 취하는 것도 국가대표 급인 남자.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HAIR 이도우 MAKEUP 고영은 ASSISTANTS 조용재, 이영환 DESIGN 전은경



어릴 때는 축구를 제일 못하는 친구가 골키퍼를 보곤 했다. 처음부터 골키퍼였나?

처음에는 스위퍼(수비)부터 시작했다. 중학생 때 골키퍼로 전향했다. 설마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축구를 못해서 골키퍼를 봤으려고.

구자철, 기성용 선수는 재미있는 사진을 올리며 SNS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편이다. 실제 국가대표들의 분위기도 그렇게 자유로운 편인가?

기본적인 선후배의 틀은 어느 정도 잡혀 있다. 가슴에 태극기를 달았는데 얼렁뚱땅 노는 분위기일 리는 없지. 그리고 자철이나 성용이는 파릇파릇한 신세대니까.

대표팀에도 '집합'이라는 것이 있나?

"내 밑으로 다 모여" 이런 것을 말하는 건가?(웃음) 그런 건 없고 운동 끝나고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종종 갖곤 한다. 새겨들으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니까 나쁠 것도 없다.

2003년에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했는데 3년 동안 한두 경기밖에 못 뛰었다. 억울하지 않던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입단해서 포항과 5년 계약을 조건으로 도장을 찍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나. 솔직히 '언제 다 채우지?'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다. 포항 팀 2군에서 1군으로 올라가기도 쉽지 않았다. 당시 김병지, 조준호 선수 등 날고 긴다는 선수들이 모두 있었는데, 솔직히 1군에서 경기를 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던 시절이었다.

외국으로 전지훈련을 많이 가는데, 타지에서 생긴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나?

얼마 전에 괌을 갔었는데, 거기는 날씨가 제멋대로다. 갑자기 비가 오거나 하면 100마리 가까이 되는 큰 개구리가 잔디밭으로 튀어나온다. 모두가 비를 맞으며 개구리를 잡아서 잔디 밖으로 던졌다. 어느 팀은 작살로 개구리를 잡는다고도 하는데, 우리 그에 비해 신사적이지 않은가?

국가대표 골키퍼면 일반인이 차는 페넬티릭은 콧방귀를 뀌면서 막겠군.

그 일반인이 얼마나 잘 차는지 모르겠지만, 평범한

사람이라면 거의 막지 않을까? 페넬티릭은 기선 제압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일반인은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니까.

프로 골키퍼는 페넬티릭에서 키커가 공을 차는 것과 동시에 예측하고 점프한다고 들었다. 디딤발? 시선? 어릴 땐 공의 방향을 알 수 있나?

비밀이다. 국가 대표의 비법을 지금 만천하에 다 까발리라고?

남자친구 있는 여자를 포실 때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겠냐'라고 얘기하곤 하는데 국가대표 골키퍼로서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나?

골키퍼 있어도 골은 들어가다. 물론이고 말고.

남자친구 있는 여자를 제법 꼬셔본 말투다. 그 말에 동의한다고는 안 했다. 이 사람!

정성룡을 검색어로 치면 미모의 아내분 기사가 훨씬 많이 나온다. 미스코리아 출신의 미모의 아내라니!

그때 싸이월드가 대유행이라 파도에 파도를 타고 친구 여자친구의 친구이면 아내의 미니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완전 내 스타일이더라. 바로 친구에게 소개해달라고 조르면서 흔히 말하는 작업을 치기 시작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작업 비법이다!

아내와 처음 만난 날, 당시 포항에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겨우 4~5시간의 짧은 외출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이용했다.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가까운 바다에도 가고, 길거리에서 사주도 보고, 동전 노래방도 가고... 그렇게 아내와 처음 만난 첫날을 정말 알차게 보냈다. 아내가 말하길 그때 내가 너무 순수해서 좋았다고 하더라.

결혼 전에 '이건 내가 생각해도 먹어줬다' 하는 필살 기술이 있나?

프러포즈, 축구 때문에 보름 동안 중국에 가 있었는데, 귀국하는 날이 마침 500일이였다. 이때다 싶어서 프러포즈 업체를 인터넷에서 검색했다. 사진 수십 장과 글을 써서 메일로 보내주면 그걸 DVD로 제작해주는 곳이 있더라. 그렇게 준비해서 500일 날 청혼을 했다. 아내가 그 자리에서 울더라.

아내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

장인어른이 술주정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장인어른과의 술자리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셨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장인어른이 온천을 가자고 하시길래 두말하지 않고 따라나섰다. 사우나에 들어갔는데 장인어른이 모래시계를 딱 뒤집어 놓으시고는 금방 나가시더라. 근데 거기가 정말 엄청나게 뜨거웠다. '이걸 나가. 말아.' 고민하면서 끝까지 기다렸는데, 그때 장인어른이 웃으면서 안 뜨겁냐고 물으시더라. 솔직히 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

정성룡 하면 기네스북에 오른 숫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그건 '뽏'이다. 그냥 우리 편을 향해 공을 찼는데 좀 더 멀리 나갔을 뿐이다. 그게 상대 수비수하고 골키퍼 사이에 딱 떨어지면서 서로 미루다가 골이 들어갔다. 나도 공 차고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함성 소리가 너무 커서 어안이 병병했다.

* 2008년 7월 27일 코르디부아르와 벌인 친선경기에서 우리 측 골대에서 상대측 골대로 85m라는 어마어마한 거리에서 골을 넣어 기네스북에 오른 바 있다.

기네스북에 등재되면 따로 돈이 나오나?

딱히 그런 건 없다. 아니, 솔직히 기네스북에 올랐는지도 잘 모르겠다. 확인할 길이 없으니...

축구 선수는 허벅지가 탄탄하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인지 축구 선수가 밤 힘이 끝내준다고 하는데, 힘이 더 있을 수는 있는데, 이 허벅지가 꼭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다. 대체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궁금하다.

이청용, 기성용, 정성룡 삼용(三龍) 중에 누가 싸움을 가장 잘할까?

아무래도 내가 좀 세지 않을까? 키도 그렇고 파워 면에서도 앞선다.(웃음) 그래도 청용이보다는 성용이가 살짝 버거울 것 같긴 하다.

정성룡에게 진짜 남자란 무엇인가?

내 여자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지. 



정성룡

생년월일 1985년 1월 4일
신체 190cm, 90kg
소속 수원 삼성 블루윙즈

징크스

시합 전에 신체에 손을
대지 않는 편.
면도, 손톱 정리는 피한다.

국가대표 수문장과
친구가 되자!
twitter.com/limmj87

“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



축구 선수
출신 에디터의
폭소 영상



삼페인 멤

궁극의 섹시를
보여주마



VICTIM OF VAMPIRE ATTACK



←

할러윈데이를 맞아
섹시한 뱀파이어로 변신한
강예빈이 당신을 초대한다.

BY 김희성
WORDS 조용재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신숙희
HAIR 박소희 MAKEUP 임정선(라뷰티코아 02-544-0714)
MODELS 박보라, 백준우, 이유현 FILM 최성준
ASSISTANTS 손안나, 최동희, 이현구

구두 슈즈원



구두 슈즈원
반지 아즈나브르

오랜만에 MAXIM과 재회했다.

MAXIM이 다시 불러줘서 영광이다. 이번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사실 긴장도 많이 했다. 세월이 흘렀지만 활기찬 현장 분위기는 그대로네.

여자 연예인으로서 나이 먹는 게 두렵지는 않나?

걱정 마라. 되려 예전보다 젊어진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웃음) 비결이라고 하면 소식? 원래 음식을 잘 안 먹는다. 어제든 하루 종일 굶었다. 징크스 때문에 중요한 촬영 전에는 굶다가 끝나고 나면 폭풍 식사를 한다. 이때가 삼겹살에 소주나 한잔 하려고.

촬영 내내 아크로바틱하는 줄 알았다. 힘들지 않았나?

오랜만에 몸 좀 꺾었더니 몸에 무리가 온 것 같다.(웃음)

최근 게임 채널의 아프리카 BJ로 데뷔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원래 게임을 좋아하나?

지금은 안 하지만 전에는 PC방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 이번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벤트 성으로 네티즌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안 좋은 댓글이 많다. '벗어라', '벌려라' 등등...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싶을 때도 많았다.

오늘 섹시한 뱀파이어로 변신했다. 진짜 뱀파이어가 된다면 물고 싶은 사람 있나? 물어 죽이고 싶은 사람 말고...

내 사람으로 만든다는 얘기지?(웃음) 지금은 유부남인 권상우, 아니면 윤시윤? 뱀파이어로 만들면 잘 어울릴 것 같다. 피도 빨아 먹고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 얼마나 멋질까!

얼마 전 MAXIM과 함께 촬영한 광현화 씨와도 친하다고 들었다.

그렇다. 예전에 <복불복쇼>를 촬영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후로도 함께 진행하는 방송이 많아 친해졌다.

둘 다 섹시 코드를 내세우고 있다.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가질 만도 한데?

전혀. 섹시한 이미지가 겹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만 언니와 나의 섹시한 느낌이 달라서 신경 쓰지 않는다. 둘이 있을 땐 야한 얘기도 많이 할 정도로 친하다.(웃음)





“
추성훈이나 송일국 같은
상남자 스타일이 좋다
”

에린
브라와 슬립 모두 섹시루키
필져 모두 아즈나브르





왼쪽 남
재킷 시스템웜

오른쪽 남
셔츠 지마크
남색수트 시스템웜

슬직하군, 광현화 씨의 바나나 얘기에 맞먹는 슬직함 이다.

그거 대체 왜 울렸대?(웃음) 한번은 현화 언니한테 연 관 검색어로 투정을 부린 적이 있었다. '허늘림', '노출' 같은 게 연관 검색어로 뜬다고 하니까 "야, 난 바나나가 있잖아"라고 응수하더라고. 심지어 나더러 "나중에 바나나는 꼭 씹어서 먹으라"며 신신당부하더라. 그래서 "씹어서 먹지 그럼 어떻게 먹냐"고 대답했지.(웃음)

그러게 말이다. 바나나를 어떻게 먹으면 되나?

현화 언니가 알려줬을 거 아닌가. 난 잘 모르겠는데?(웃음)

남자 모델들과 함께 촬영했다. 마음에 들던가?

아쉽게도 좀 어리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었다면 두근거렸을지도 모르지. 난 추성훈 선수나 송일국 같은 상남자 스타일을 좋아한다.

연하는 전혀 관심 밖인가?

이젠 연상이건 연하건 안 따지게 됐다.(웃음) 예전엔 연하는 아예 얘기 취급하고 관심도 없었는데,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연하도 그리 어린 나이가 아니더라고. 아, 왜 눈물이 나지?

MAXIM 화보는 한 번 찍고 나면 꽤 오랫동안 화제가

된다. '섹시 뱀파이어 강예빈' 어떤가?

슬직하 좀 노리고 있다.(웃음)

당신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키워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

"몸매 좋다"같은 말은 기분이 좋은데, 불쾌한 것들이 더 많더라. 하지만 섹시하다는 건 여자에게 있어 최고의 칭찬 아니던가. 섹시함이 없는 여자는 매력이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섹시하게 봐 주는 건 전혀 불쾌하지 않다

역시 당신이 될 줄 안다. 예전에 교복 입은 사진이 올라와서 하루 종일 난리가 났던 적도 있었지?

학교에서 준 교복을 그대로 입었을 뿐인데 난리가 났다. 내가 입자마자 줄였으니, 리폼이니 하면서 노출 어찌구 하더라고. 나도 입으면서 요즘 애들은 이런 걸 입나 싶었다. 절대 코스프레가 아니었다! 다른 연예인들도 많이 입었는데 왜 유독 나한테만 그러는 거지?

당신이 예뻐서 그렇다. 기타 치는 영상도 봤다. 언제 그렇게 연습을 했나?

평소에 스케줄이 없으면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는 편이다. 혼자서 악보 보여 연습하다 보니 그 정도는 차게 되더라.

혹시 가수 할 생각은 없나?

가수로 전업하는 거 말고 짧게 피쳐링 정도만 해달라고 한다면 참여해보고 싶기도 하다. 미니 앨범 같은 걸 만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참고로 발라드보다는 아이비의 '아하' 같은 노래를 좋아한다.

광현화 씨가 당신과 이파니 씨와 함께 MAXIM촬영을 하자고 제안해왔다.

아! 그게 그 얘기였나? 예전에 현화 언니가 대뜸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셋이 산타복 입고 파티 분위기로 화보를 찍어보는 건 어떠냐고 물었다. 획기적이지 않냐고, 그게 그거구먼?

벌써 얘기가 된 건가? 당신 생각은 어떤가?

글쎄... 좋긴 하지만, 워낙 야한 여자들만 모아놔서.(웃음) 오해하지는 마라. 이 중에서는 그나마 내가 제일 순수한 편이다.

무슨 소리냐, 셋이 모이면 아한 농담도 하고 그러다고 하지 않았나?

에이, 현화 언니 혼자서 막 날리는 거다.

말 나온 김에 촬영 콘셉트를 미리 정해보자. 셋이 세트 화보를 찍는다고 하면 욕심 나는 콘셉트 없나?

아담과 이브는 어때? 자연 친화적이면서 몽환적인 느낌

김으로 말이다. 폭포가 떨어지는 계곡이나 정글에서 남녀가 옷 같지도 않은 옷을 걸치고... 낭만적이지 않나? 아니면 귀신 콘셉트도 좋다. 내 얼굴이 귀신 분장이 잘 받는 편이다.

호러를 즐기는 섹시 미녀라니, 생각만 해도 코에 피가 쏠린다.

무서운 건 재미있다. 고등학교 때 소복 같은 걸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복도를 어슬렁거리며, 아자하는 아이들을 일부러 놀래고 다닌 적도 있다. 한번은 복도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남자 선생님이 나를 보더니 갑자기 못 본 척하며 도망가듯 걸어가더라고. 내가 진짜 귀신인 줄 알고 말이다. 옷겨 죽는 줄 알았다. 나중에는 혼났지만 말이다.

그러면 우리 두 달 뒤에 또 보는 건가? 독자들이 12월호만 목 빠져라 기다리겠네.

이번에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찍었으니까 많은 사람이 봐줬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로 뱀파이어 영화에 캐스팅될 수 있게.(웃음) 그리고 군인들은 MAXIM 사 오라고 하면 커피 MAXIM 사가지 말고! 남자에게 MAXIM이란 커피가 아니라 '이 MAXIM'이라는 걸 꼭 명심하길. ☺



GO TO
MAXIM
iPAD
마공캐컷



“
섹시하다는 건 여자에게
최고의 칭찬이다
”





“
뿌잉뿌잉!
왕년엔 꽤 귀여웠어
”

아놀드 형
활용 사진



ARNOLD SCHWALZENEGGER

“I’ll be back”이라고 말하던 그가 정치판을 뒤로하고 액션 배우로 돌아왔다.
이 땅에 강림한 액션의 왕이시여!
BY NICK LEFTLEY IMAGE GETTY IMAGES DESIGN 신숙희

현실판 <어벤져스>라고 불리는 히어로 파티 <익스펜더블 2>에서 주연을 맡았다. 촬영은 어땠나?

끝내줬다. 알다시피 우린 수십 년간 영화에서 거대한 근육을 자랑하며 집채만 한 총을 쏘 대거나 피터지게 싸우는 걸로 유명한 이 분야의 베테랑이니까. 누구나 촬영할 땐 “최선을 다 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영화에서 최선 그 이상의 최선을 보여주었다.

이런 캐스팅이 과연 과거에도 가능했을 거라 생각하나?

제리 브룩하이머 감독과 프로듀서 돈 심슨은 예전에도 우리 같은 유명 액션 배우들을 한데 모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섭외가 되려나 싶으면, 또 마땅한 시나리오가 없었다. 이번엔 실베스터 스탤론이 평소 생각하던 각본을 영화에 적극 반영했고, 결국 엄청난 결과물이 탄생했다! 각자에게 딱 맞는 배역을 연기했다. 척 노리스는 늘 그랬듯이 맛깔나는 대사를 지껄어댔고, 실베스터 스탤론과 나 역시 개성 있는 액션 연기를 펼쳤다. 이번만큼 모두가 즐기면서 촬영한 적은 다들 없을 거다.

그렇다면 평소에도 왕년의 액션 스타끼리 어울려 지내곤 하는지?

저녁 먹으려고 종종 모였다. 함께 촬영지인 불가리아를 여행했고, 가끔 술이 당길 때도 동치곤 했다.

당신들이 한데 모여 있는 걸 상상할 수가 없다!

그렇겠지. 정작 우리도 가끔은 믿기 힘들 때가 있으니까.

당신이 출연한 영화 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명대사가 있는지?

사람들이 많이 따라하는 대사는 나도 좋아한다: “Hasta la vista, baby.”(잘 가라, 새끼야. -터미네이터2) “I’ll be back.”(난 반드시 돌아온다. -터미네이터2) “Fuck you, asshole.”(꺼져 병신아. -터미네이

터2) “Stick around.” (동작그만- 프레데터) 등. 지금 들어도 예술이네! 대사 자체도 의미 있지만, 사실 그 대사를 어떤 표정과 방식으로 말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 점을 <터미네이터>에서 “I’ll be back” 할 때 배웠지. 그것 때문에 제임스 캐머런 감독과 다투곤 했는데, 난 “I will be back”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기게 같다고 우겼다.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할리우드와 워싱턴을 비교하자면?

가끔은 워싱턴의 정치인들과 할리우드의 배우들이 서로 근무지를 바꾸는 편이 훨씬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영화판과는 다르게, 정치판에서는 당신이 뭘 짓을 해도 당신 편이 과반수를 넘지 않는다. 반대로 영화판에서는, 영화가 흥행에 실패해도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보고 사인을 받으러 달려온다. 이래저래 욕만 먹는 정치인과는 다르지.

그렇다면 배우와 정치인의 결정적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나?

정치인이 되려면 어지간한 배우들은 엄두도 못 내는 ‘깡’이 있어야 한다. 2003년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활동할 당시 누군가에게 습격당한 적이 있다. 흥기를 휘두르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디서 리포터를 보내 내 뒤를 캐내려 했다.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왜 정치를 하는지, 왜 굳이 허머 SUV를 타고 다니는지, 브라질 여행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마리화나를 피운 적은 없는지,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적은 없는지 등등... 어떤 의미에서는 할리우드와 정치판이 비슷하다. 할리우드 배우들이 정치에 욕심을 내듯, 정치인들도 영화에 카메라로 출연하기를 원하더라고. 뭐, 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꼽자면, 배우들은 영화를 찍으면서 돈을 벌지만, 정치인들은 정치하면서 돈을 퍼붓는다는 정도?

몸짱으로 이름을 날렸다. “차라리 똥맹이로 유명했으면 관리하느라 애먹을 필요도 없었을 텐데” 하고 후

회한 순간은 없었나?

이제껏 인생을 되돌리거나 다른 누구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최강의 마초남’을 향한 오랜 열정이야말로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원동력이니까.

수십 편의 액션 영화에 출연했다. 혹시 지금 와서 생각하면 딱친다 싶은 것도 있나?

1986년 <고릴라(Raw Deal)>를 찍을 무렵, 친구가 내가 물고 있던 시가 안에 몰래 화약을 넣은 적이 있다. 폭발 시간까지 고려한 건지, 카메라가 돌면서 내 시가를 비추자마자 폭발해 내 얼굴이 온통 검명으로 뒤덮였다. 물론,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다. 감독도 날 흑인으로 만들어 촬영을 계속하고 싶진 않았을 테니까. 영화 세트도 대학 기숙사 같았다. 다들 완전히 미친 사람 같았지!

다른 배우가 출연한 액션 영화 중 주연을 맡고 싶었던 작품이 있나?

해리스 포드와 실베스터 스탤론이 출연한 시리즈물부터 브루스 윌리스의 작품까지 모두 욕심이 있었다. <테이큰>의 리암 니슨 역할도 탐나더라.

1988년에 대니 드비토와 함께 출연한 코미디 영화 <트윈스>의 후속작에 에디 머피도 함께 출연한다는 게 사실인가?

물론! 요즘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다들 전력투구하고 있다. 내년 봄쯤 촬영을 시작할 것 같다.

세트에서 촬영하다가 CG 합성용 스크린 앞에서 연기하는 기분은 어떤가?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요즘같이 CG가 난무하는 영화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지. CG가 꼭 나쁜 건 아니다. 지하 450m 깊이의 탄광 아래에 세트가 있다고 생각해보라. 얼마나 끔찍한가? 하루에 1달러만 받으면서 쫓배지게 일하는 아프리카 광부에 비하면 CG 까짓것 뭐가 어렵나! 

HOT SAUCE

Women,
Dating,
Sex, and
More Sex!



저는 잦은 소화 장애증 환자입니다. 휘핑크림 외에 침실에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 대런 홀스
침실용 음식이라... 저 같으면 아이스크림이나 시럽 같은 걸 가져가서 먹을 거예요. 애 아이스크림도 유제품이군요! 물론 음식 말고도 챙겨갈 게 많으니 걱정 마세요. 깃털이나 안대, 채찍은 어때요? 난 좋은데?

결혼 적령기란 몇 살 정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 밥 팔렛

중요한 건 몇 살이냐가 아니라 타이밍이에요. 이때다 싶을 때 확 잡는 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일단 연결고리가 많은 게 좋겠

죠? 뭔가 해야겠다 싶은 게 있으면, 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알아보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수많은 여자를 후리고 다녀보세요. 발에 족쇄를 채워야 한다면 이왕이면 괜찮은 족쇄를 채워야죠.

요즘도 유행 지난 구식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은 대체 뭐죠? - 에반 벅스터
잠깐만요, 새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촬영하길래도 하나요?

저와 다르게 여자친구가 액션영화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 체이스 랜든

커플이라고 영화를 꼭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하다니. 생각하는 게 마치 터미네이터 처럼 구식이네요. 취향이 다른 건 함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부터 소핑에 취미를 붙이시던가요.

매일 샤워를 하면 피부가 건조해진다고 들었어요. 그럼 일주일에 몇 번이나 샤워를 해야 하는 건가요? - 스테판 시무노빅
죄송하지만 당신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네요. 건조한 게 차라리 낫지 않나요? 그냥 매일 하세요.

The Helpful Hottie

DOMINIQUE STORELLI!

MAXIM 미국판의 미스맥심 콘테스트 지난 시즌 우승자,
도미니크 스토렐리의 탁월한 상담으로 가을을 연대!

PHOTOGRAPH ERIC RAY DAVIDSON



24 HOURS TO LIVE

브라우니 물어! 정태호 물어!

〈개그 콘서트〉 최고의 신인 브라우니를 데려온 정태호를 만났다.

BY 송종민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서윤정

내 인터뷰라에?

브라우니

고향: 중국

품종: 시베리안 허스키

키: 51cm

신체적 특징: 사춘기 수캐.
최근 왕관을 쓰고 다니며
왕자병에 걸렸다.

라이브
육성 인터뷰



브라우니가 웬지 피곤해 보인다.

지금 부상을 당했다. 이거 보여주면 다들 깜짝 놀라는데 여기 가슴 부분이 터졌다. 발도 까매져서 세탁기에 빨았더니 털이 가라앉으면서 좀 의기소침해진 상태다.

원래 정여사가 주인공 아닌가? 요즘은 브라우니가 더 화제다.

매니저 말로는 브라우니만 CF가 들어왔다고 하더라.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단독 CF라니 말도 안 된다. 정여사가 진상인 건 맞지만 이걸 겁과 음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닌가. 다시 한 번 '우리는 패밀리'라는 점을 광고주들에게 강조하고 싶다. 난 절대 이 게 줄을 놓지 않겠다는 거.

알고 보니 브라우니가 24시간 후면 죽는다.

허 참. 이 친구가 지금 제일 핫한 친구인데 내일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는... 어떤 개의 역사상 큰 손해가 아닐까 싶는데... 죽기 전에 녹화를 한 50개 정도는 몰아서 해야겠다.

브라우니는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나?

애초 생각했던 콘셉트는 영국에 그 큰 개 있지 않나. 코가 길고 털이 땅끝까지 오는 고급스러운 개. 그걸 두세 마리씩 끌고 다니는 강남 아줌마였다. 하지만 구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KBS 소품실에서 인형이라도 좀 빌려다 달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왔다. 생각처럼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아니라 무척 실망했는데, 우선 리허설을 해야 하니까 이 친구로 일단 간 거다. 한마디로 대타였던 거다.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던 거군?

나처럼 약간 순박하고 시골틱한 냄새가 난다. 세련되기보다는 착해 보여서 좋아해주시는 것 같다.

브라우니 때문에 정여사가 엄청난 인기다. 밥이라도 사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 아니. 브라우니가 오히려 나한테 밥을 사야지. 지금 반대로 생각하는 거다. 다들 너무 브라우니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띄워준 게 누군데, 앤 말도 못한다. 허 참나.

그럼 언제든지 브라우니를 버릴 수 있다는 건가?

그럼! 인기 많다고 애가 스케줄을 혼자 몰래 간다거나 하면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웃음) 브라우니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긴 하지만 개고 소재가 안 나오는데도 인기를 의식해 계속 억지로 아이디어를 "짜야지, 짜야지" 하면 금방 힘이 빠질 수 있다. 그렇다고 당장 자른다는 게 아니라 브라우니 가족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여자친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

브라우니는 어디에 보관하나? KBS 소품실 소속이

라고 들었는데 누가 가져다 쓸 수도 있나?

시청자들이 내가 진짜 주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가 말했듯이 원래 바코드가 붙어 있어서 반출할 때 스캐너에 뽁뽁 찍어야 하는 KBS 소품이다. 그래서 얼마 전 <스펀지 2.0>에도 나갔다 왔는데 웬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내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래서 평소엔 애만 특별하게 우리 작가실에 보관한다. 아무도 못 쓰게 하려고.

브라우니가 행사 뛰면 입금은 어디로 되나?

정여사로 행사를 간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다. 개그맨들은 원래 친숙함으로 승부를 보는데 이번에는 웬지 다르게 가고 싶다. 마치 배우처럼 스크린이나 텔레비전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신비주의 콘셉트로.



형 자꾸 거기 만지면, 하얏!

당신은 <용감한 형제들>도 있고, 뭔가 다른 행사 거리가 있지만, 정여사의 다른 출연자인 김대성이나 송병철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거야 뭐 자기 팔자.

브라우니 만든 회사에서 연락 와서 라이선스 비용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쪽에서 나한테 광고비를 줘야지! 시청률 20%가 훨씬 넘는 <개콘>에 공짜로 출연시켜주고 홍보도 시켜주고 있는데, 돈 달라고 하면 당당하게 안 쓸 수도 있다고, 개는 많다고 할 거다.

직접 사업권을 획득하고 싶은 생각은 없나?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 정말 이렇게 인기일 줄 몰랐다. 알았다면 직접 공장에서... (쓴웃음)

하긴, 브라우니 중고 인형이 12만 원까지 올랐다고 한다.

그걸 유민상 선배가 수소문해서 사더라. 선배가 브라우니 놀이를 좋아한다. 트위터에 올라온 '편견하는 브라우니', '대기실 있는 브라우니' 등은 전부 선배 작품이다.

유민상 씨는 얼마 전 <연예가중계> 인터뷰에서도 브라우니를 사고 싶다고 하더라.

<연예가중계> 이야기 하지 마라. 안 좋은 감정이 있다. <개콘> 3대 신상 캐릭터에 뽑혔다고 해서 갔더니 정여사가 아니라 브라우니였다. 감정 상했다. 심지어 맨 마지막에 "정여사 파이팅!" 하는 것도 카메라가 애를 비추고 있었다. 생각할수록 열 받네.

좋다. 브라우니 이야기는 그만하자. 여장이 참 잘 어울린다. 어디서 이렇게 생긴 여자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파라킹 흡소핑'이라는 코너에서 계속 여자로 나와서 여장을 많이 해봤다. 사실 걸은 돌쇠지만 안에는 여성성이 조금 있다. 어렸을 때 주방에서 살고 그랬다. 오히려 누나가 남자 같았지. 그래서 어려움은 별로 없었다. 오히려 대성이 여자장을 많이 안 해봐서 처음에 무척 싫어했다. 그런데 회가 거듭될수록 화장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거울 보는 시간도 길어지더니 요즘에는 웃기다는 말보다 예쁘다는 말을 더 좋아한다.

'시간 여행', '감사합니다', '발레리노', '용감한 녀석들' 등 대박 난 코너에 매번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예전에 모 감독님께서 개그맨은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야 한다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열심히 하다 보면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조금 뒤쳐졌다 싶어도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좋은 기회를 잡게 되는 것 같다. '용감한 녀석들'이 그런 경우다. 본의 아니게 1년이 넘게 준비했는데, 그게 전부 박성광 선배랑 신보라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던 듯싶다. 처음에 성광 선배랑 작업을 시작했는데 성광 선배가 주제에 드라마를 찍겠다고 나가는 바람에 무기한 보류됐었다. 그런데 망하고 금방 다시 돌아오더라고.(웃음) 또 그때 보라가 마침 다른 선배랑 코너를 짜다가 엮여져서 우리 팀에 들어오게 됐다. 우리에겐 보라가 화룡점정이었다.

요즘 주변에서 코너에 끼워달라고 달려붙는 사람 혹시 없나?

내가 돈 되는 코너 한다고 제발 좀 같이 하자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유민상 선배가 술술 내 눈치를 보면서 꼭 같이 하자고 한다. 그런데 원래 민상 선배나 대성한테는 먼저 같이 하자고 제안했었다. 그런데 딱 보더니 "재미없는데? 유치한데?" 하면서 다 거절했다.

브라우니를 살리려면 송병철과 김대성의 간이 필요하다.

꺼내야지. 간을. 브라우니를 살려야지, 그들은 그다지...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된다. 그런데 왜 또 브라우니 이야기인가? 이거 내 인터뷰 맞아?



브라게스
그 외 의상 모두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금메
스커트 레아쿠니삼
브라게스
나시 티 슈즈와 팔찌 모두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크레용팝

멤버: 엘린, 소율, 금미, 초아, 웨이
(MAXIM 촬영은 엘린, 금미, 웨이만 참여)

타이틀곡: Saturday Night

방송: MBC MUSIC

<크레용팝의 알록달록 성장일기>

크레용팝과 친구가 되자:

<http://twitter.com/crayonpop>

Pop! Pop! Pop! crayon pop!

여자 DJ DOC, 싸이를 꿈꾸는 장난기 가득한
걸그룹 크레용팝. 어찌나 요란하게 놀았는지
촬영장은 그녀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ASSISTANTS 손안나, 박종원, 최동희 FILM 최성준 DESIGN 전은경

HAIR 이도우 MAKEUP 고영은 STYLING 조은정, 이민수

COOPERATIONS 에스비(02-542-0385) 도크(02-517-0071)

헬터윌트(070-7770-7301) 레이쿠니샵(02-515-9832)

오디엠(02-326-3470) 워너비걸즈(070-4133-2845)

신(02-543-8132) 게스(02-3447-0555)

촬영장
습격하기



엘린)
시계 오디엠
브리 게스
나시 티, 데님 핫팬츠,
구두, 뽕글 모두
스타일리스트 손정음



금미

본명 백보람

생년월일 1988년 6월 18일

신체 165cm, 48kg

이상형

점잖고 남성미 넘치고,
웃을 때 예쁜 남자.



벌패턴 티 에스비
팬츠 도크
에나멜 운동화 햅터월드
브라 게스
가족 팔찌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엘린

본명 김민영

생년월일 1990년 4월 2일

신체 165cm, 44kg

이상형

개성 있는 남자.

끼 부리는 남자도 내 스타일!

‘크레용팝’이라는 이름이 마치 중요 대회에 나온 초등학생 느낌이다. 지인들에게 그룹 이름을 말하면 반응이 어떤가?

엘린: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말을 못하겠더라. 나이 스물셋에 팀 이름이 크레용팝이라니.

금미: 난 스물다섯이거든? 그래도 크레용팝이라는 이름이 워낙 ‘유아틱’해서인지 덕분에 어려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어서 좋다.

웨이: 크레용처럼 우리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좋다. 심지어 의상까지 각자의 색깔대로 맞춰서 입는다. 우린 색깔 있는 아이들이다!

여자 DJ DOC를 목표로 한다고 들었다. DJ DOC가 되려면 유치장도 틀락거려야 하고 합의금도 두둑하게 준비해야 할 거다. 각오는 되어 있나?

엘린: 각오야 되어 있지. 우리는 뻗속까지 튼튼한 아이들이다. 아직은 신인이니까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다. 5년, 10년, 시간이 흐르면 베테랑이 되겠지? 그때 가서는 대박 사고를 한 건 쳐볼까 생각 중이다.

싸이는 ‘강남 스타일’인데, 크레용팝은 무슨 스타일인가?

웨이: 논현 스타일! 원래는 숙소가 역삼동과 논현동 사이에 있어서 고민을 좀 했는데, 아무래도 논현동이 어감이 부드럽고 착한 것 같다.

논현동에서 다 같이 숙소 생활을 하는 건가?

금미: 회사 관계자분들도 같이 산다. 야식이 금지여서 음식 배달이라도 할라치면 첩보 작전 뻘친다. 숙소에 매니저님이 같이 계시니 배달원이 벨을 누르면 큰일 난다. 숙소가 2층이라 창밖으로 돈이나 카드를 던지면 아저씨가 음식 담은 봉투에 영수증과 거스름돈을 두고 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밖에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 척하면서 몰래 가지고 올라온다.

그렇게 먹는 음식 맛이 또 기가 막히지!

엘린: 엽기 떡볶이를 제일 좋아한다. 근데 떡볶이가 너무 매워서 콧물이 질질 나온다. 그럼 여기서 싹! 저기서 싹! 중구난방으로 콧물을 들이켠다. 시끄러우면 걸릴 수 있으니 소울이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한번에 싹! 들이켜면서 먹는다. 그럼 한 사람이 훌쩍거리던 것처럼 들리니까.(웃음)

금미: 너무 맵다 싶으면 이불 속에서 훌쩍거리고 나와 다시 먹기도 한다.

에나멜 운동화 캠퍼월드
상의와 핫팬츠, 액세서리 모두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레드 브라 게스트
 마릴린 먼로 프린팅 티 도크
 시계 오디엠
 레드 실크 운동화 챔터월드
 핫팬츠, 귀걸이 모두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웨이

본명 허민선

생년월일 1990년 7월 12일

신체 163cm, 45kg

이상형

어깨가 넓고 든든한 나무
 같은 남자.

안철수 교수가 크레용팝의 팬이라는데 사실인가?

우리고 처음에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가 음악 방송에 나가고 나서 검색어 1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안철수 교수가 2위였다. 서로 1, 2위를 다투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

데뷔 무대를 군 장병 앞에서 치렀다. 발정 난 그들이 무대로 난입하지는 않던가?

웨이: 관중 속에 군인들이 있는지도 몰랐다. 초록색 의자가 쪽 놓여 있는 걸 보고 자리가 많이 비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자리에 다 군인이 앉아 있던 거다. 어쩐지 의자가 자꾸 움직이더라니!

걸그룹치고 안무가 다소 오두방정인 것 같은데.

금미: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린 춤 같지 않나? 당신도 한번 취봐라. 은근히 중독된다.

웨이: 난 크레용팝에 제일 마지막에 합류했다. 합류하기 전에 안무 동영상을 보면서 '저건 아니다' 싶었는데, 막상 합류해서 그 춤을 즐기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

쇼트트랙 맨스가 눈에 띈다. 원래 스케이트를 타면 허벅지가 굵어지는데, 춤을 추면서 골박지가 됐나?

금미: 심하게 두꺼워졌다. 쇼트트랙 춤뿐 아니라 켤거루 춤도 콩콩 뛰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골막염까지 생겨서 병원에 정기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닌다.





“
10년 뒤에는 대박 사고를
한 건 처야지!
”

올 7월에만 걸그룹이 다섯 팀이나 데뷔했는데, 유일하게 케이팝 프로그램 <크레용팝의 알록달록 성장일기>를 찍었다.

금미: 3부작이니 짧다면 짧은 프로그램이다. 정말 배꼽 빠지면서 찍었는데 아직 반응을 모르겠다.

엘린: 다른 걸그룹 방송을 다 모니터했는데 예쁜 모습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다. 우린 <타짱>까지 하면서 완전 망가졌다고!

방송에서 소속사와 갈등을 빚자 잠적해버리는 패기를 보여줬다고?

웨이: 그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대표님이 “너희는 차를 타고 갈 자격이 없다!”고 해서 버스를 타고 숙소로 가는 도중 잠시 딴 길로 섰다. 근처 신천역 주변에서 닭볶음탕도 먹고 젊음을 좀 느끼다 들어갔다.

일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다. 요즘 일본 내에 반한(反韓) 감정이 심상치 않다. 테러 대비책은 마련해두었나?

엘린: 얼마 전 일본을 다녀왔는데, 그런 분위기는 전혀 못 느끼겠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보고 “카와이!” 하면서 사인해달라고도 했다. 일본인들은 한국 사람을 무척 좋아한다. 요즘 일본 길거리에는 K-POP밖에 안 나온다니까?

금미: 우리나라도 일본 관광객에게 꺼지라고는 안

하잖나. 정치권만 그렇지 음악 쪽에는 그런 게 별로 없다.

금미는 모닝분리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 혹시 대머리 남자가 대시해도 받아줄 수 있나?

금미: 시..심으면 되지. 아, 그런데 자식도 대머리가 나오면 어떡하지? 휴... 다시 생각해봤는데 좀 힘들 것 같다.

팀에서 왕언니를 맡고 있다. 동생들이 말을 안 들으면 한대 쥐어박기도 하나?

금미: 말을 너무 잘 들어서 탈이다. 동생들이 물건 쓰고 제 위치에 안 놓는 것만 빼면!

웨이는 같은 팀 멤버 초아랑 쌍둥이다. 한 남자를 두고 다른 적은 없는가?

웨이: 어렸을 때는 번갈아가면서 사귀기도 했다(웃음). 중학교 때부터는 알아서 잘 나눠가면서 만났다. 예전에 언니 남자친구가 길거리에서 나를 언니인 줄 알고 막 가까이 들이댄 적도 있다. 나랑 친하지도 않으면서!

크레용팝에 합류하기 전 인디밴드 활동을 했다.

웨이: 무대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됐다. 그때는 노래도 내가 다하고 중간에 멘트도 내가 날렸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말 안 더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엘린은 어렸을 때부터 피팅 모델을 했다. 인기가 많았을 텐데 남자한테 차여본 적 있나?

엘린: 고등학교 때 남친과 싸우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다. 한 3일 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문자가 한 통 왔다. ‘내가 이겼다!’ 하면서 휴대폰을 열었는데 헤어지자는 장문의 글이 와 있더라. 거짓말 안 하고 헛구역질이 나왔다.

크레용팝을 안 했으면 뭘 하고 있을까?

엘린: 돈 많이 버는 가게? 술집 사장님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더라.

웨이: 맞다. 물장사가 최고다. 내가 전에 사주를 봤는데 사업을 해야 잘되는 팔자란다.

금미: 난 프리랜서 모닝분리사를 하면서 내 가게를 운영해야지.

굵고 다니나? 돈을 왜 그렇게 벌고 싶어 하나.

아직은 신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 회사에서 우리한테 투자한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메워가는 중이다. 손익분기점... 아, 이런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자. 아직 인기도 없는 가수인데, 인기부터 얻어야지!

크레용팝에게 색칠이란 무엇인가?

웨이: 어렸을 때 색칠 공부를 하는 것처럼 지금은 음악, 무대, 가수라는 직업의 스케치북에 색칠 공부를 하고 있다. 🎨

SPOR

SWING OF THE MONTH

2,000안타 치느라 욱봤소!

한화 장성호, 대기록의 사나이로 다시 서다.
BY 이영미 IMAGE 연합뉴스 DESIGN 서윤정

기아 팬들에게 장성호라는 이름은 애잔함을 일으킨다. 1996년 고졸 신인으로 해태에 입단한 장성호는 10년 연속 1시즌당 100개 이상의 안타를 때렸다. 2007년까지 꾸준히 볼 방망이를 유지하던 성실한 장성호 선수의 타순은 늘 세 번째였다. 타고난 선구안과 컨택트, 파워를 갖춘 '스나이퍼 장성호(줄여서 장스나)'는 못해도 3할은 친다 해서 별명이 '장삼할'이었다. 그는 명실상부한 기아의 프랜차이즈 스타였다. 하지만 2008년부터 '장스나'의 성적은 떨어졌다. 늘 세 자릿수로 치던 안타는 그해 89개였다. 팀 내 입지는 점점 좁아졌다. 게다가 기아와 계약한 '형제'에 최희섭에게 타순과 1루 수비 자리를 내줘야할 판이었다. 은퇴 이야기마저 나왔다. 당시 기아 조범현 감독은 그를 타석에 세우지 않았다. 갈등이 고조됐다. 스나이퍼 장성호를 연호하던 팬들도 지쳐갔다.

2010년 6월 기아타이거즈는 '3할 타자'를 한화로 보낸다. 장성호가 원하던 트레이드였다. 송부욱이 강한 그는 '더 뛰고 싶었다'. 게다가 김태균, 이범호가 빠진 한화 타선에 장성호는 필요한 존재였다. 하지만 트레이드를 전후로 장성호의 성적은 좋지 않았다. 2009년 기아에서 88경기를 뛴 그의 시즌 타율은 0.284였다. 2010년 한화로 간 그는 타석에 설 기회는 있었지만 타율은 2할 5푼을 넘지 못하고 두 시즌을 마친다. 어깨, 팔꿈치 수술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기아의 3할 타자가 타 팀에서 부진하는 모습을 본 기아 팬도, 부분 기대를 안고 그를 응원하던 한화 팬도 모두 속이 타들어갔다. 그래도 장성호는 특유의 시크하고 똥한 표정으로 성실하게 방망이를 휘둘러왔다. 지난 9월 18일, 한화와 삼성의 경기에서 장성호 선수는 안타를 때려내며 역대 최연소(34세

11개월)로 2,000안타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깨끗한 우전 안타였다. 개인 통산 2,000안타를 세운 선수는 한국 프로야구에서 양준혁(2,318개), 전준호(2,018개)뿐이었다.(물론 이날 장성호의 수비 실책으로 류현진은 9승을 달성하지 못했다. 공중 5회전 재주넘기 후 동을 살짝 지린 격이랄까?) 장성호는 올 시즌 이미 100개 이상의 안타를 쳤다(9월 18일 기준: 106개). 2007년 이후 5년 만이다. MAXIM 10월호가 나올 때, 개인 통산 1,000타점의 기록도 이미 달성했는지 모를 일. 이제 장성호 선수에겐, 은퇴만 하는 스나이퍼는 집어치우고 또 다른 대기록을 향해 방망이를 조준하는 모습을 팬들에게 선물할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 한화의 새 사령탑으로 올 '그때 그 사람' 조범현 감독과 더 이상 밀당은 하지 마시길! 조범현 감독도 쫘! 



가위 바위 보!



장성호는 잘 스나?

장성호

경력: 해태-기아-한화
생년월일: 1977년 10월 18일
키: 184cm / 몸무게: 87kg

기가 막힌
야구 명장면



고환을 터트릴테디!

잔인해...



대한축구협회의 계속되는 헛발질

신촌에 모인 스타디 그룹도 너희들보다 체계적일 거다.

BY 김덕중 기자 (엑스포즈뉴스) DESIGN 신숙희 IMAGE 엑스포즈뉴스 제공

K리그에도
관심 좀
가지라고!



짜고 치는 고스트으로 조광래 감독 경질

/ 2011년 12월

유럽에서 활약하는 해외파들이 소속팀 일정으로 A 매치에서 빠지는 일은 비단 우리만의 얘기는 아니다. 실령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해서 그 책임을 모두 대표팀 사령탑에게 돌리거나 심지어 경질까지 가는 경우는 더욱이 없다(기말고사 성적이 안 좋았다고 그 반담임을 자르지는 않잖아?). 더군다나 이번 경질은 축구협회 스폰서와 조직 수뇌부의 밀실 담합에서 이뤄진 일로 밝혀져 충격적이었다. 한국 축구의 스타일을 바꾸겠다는 조광래 전 대표팀 감독의 의미 있는 시도는 그래서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과거 한국 축구는 이른바 '뺑축구'란 한 단어로 정리 가능했다. 대표팀 사령탑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조광래 감독은 달랐다. 그는 대표팀 지휘봉을 잡으면서 한국 축구에 대한 체질 개선의 의지를 드러냈다. 전통적인 한국 축구의 특징을 전면적으로 거부, 문전에서 짧은 패스와 공격수들의 연계 플레이를 통한 아가지기한 축구를 지향했다. 언론에선 이러한 조광래 감독의 축구를 '만화 축구'라는 그럴듯한 문구로 표현하기도

했다. 과거 그 어느 국내 감독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시도를 해본 적은 없었다. 효과도 있었다. 지난해 1월 카타르에서 열린 2011 아시안컵에서 구자철, 기성용을 축으로 한 조광래 감독의 '만화 축구'가 가능성을 보였다. 한일전을 전후로 어느 일본 선수는 조광래 감독의 축구를 가리켜 "그동안 겪었던 한국 축구가 아니다. 이제껏 보지 못했던 다른 패턴의 공격을 펼치며 일본 대표팀을 압박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런 스포츠 뉴스를 안 봤던 게 아닐까? 축합들, 집에서 쿡해!

횡령 직원에게 위로금을

/ 2012년 1월

지난해 11월, 1,000억 원대의 예산을 다루는 대한축구협회의 회계 담당자가 타 부서 사무실에서 축구용품을 훔치다가 발각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이 일이 큰 파문을 일으키리라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한축구협회 내부적으로 곧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해당 직원에게 "일주일 직위 해제 후 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진짜 문제는 이후에 터졌다. 뒷거



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직 압력을 받던 회계 담당자 직원이 대한축구협회 수뇌부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되려 협박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적반하장 격이었으나 대한축구협회의 대응이 가관이었다. 대한축구협회는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었고 회계 담당자에게 거액의 위로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위로금이 무려 1억 5,000만 원이다(월드컵을 10만 개나 사 먹을 수 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대한축구협회는 내부 직원을 입막음하는 데 급급했다. 대한축구협회가 해당 직원에게 거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대한축구협회 수뇌부의 의혹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들의 위신은 땅으로 떨어졌다.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나온 수뇌부의 비자금 얘기가 이래서 설득력이 있다는 거다.

필연이었던 에닝요 귀화 실패

/ 2012년 5월

K리그 전복 현대의 미드필더 에닝요가 태극 마크를 달고 2014 브라질 월드컵을 누비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됐다. 지난 5월 22일, 대한체육회는 제20차 법제상법위원회를 열고 대한축구협회가 요청한 에닝요의 복수 국적 획득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다방면으로 에닝요 귀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에닝요의 특별 귀화는 해프닝으로 끝이 나고 말았다. 대한체육회가 에닝요의 재심의를 기각한 데에는 한국어와 문화 적응도 부족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뽑았다. 귀화를 원했던 에닝요 또한 그동안 K리그에서 활약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데 소홀했던 자신을 스스로 질책해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찬반 논란이 뜨거웠으나 대한축구협회의 미숙한 일 처리를 놓고는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한축구협회가 귀화 과도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낭패를 봤다는 것이다. 대한축구협회의 일 처리에 또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선수로서 에닝요의 경쟁력을 문제 삼은 시각을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에닝요의 귀화를 추진하면서 그가 과연 대표팀에 뽑힐 정도의 실력이 있는지에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럴 만했다. 대중의 관심이 떨어지는 K리그에서 활약한 것만으로는 다수를 설득하기가 어려웠을 테니까. 그러나 K리그를 꾸준히 지켜본 팬이라면 에닝요가 한국 대표팀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만한 선수인지 알 것이다.



대한축구협회의 안일한 일 처리는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다. 아직은 보수적인 한국 사



너의 죄를 사하노라.

회에서 특별 귀화는 어렵다 하더라도 다음을 위해서 최소한의 공감대는 끌어냈어야 했다. 에닝요 귀화 해프닝은 현 대한축구협회의 무능력을 알린 단적인 예가 되고 말았다.

4일 만에 밝혀진 거짓말

/ 2012년 8월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달 17일 대한축구협회가 한국올림픽대표팀 박종우의 '독도 세리머니'와 관련해 일본축구협회에 보낸 이메일 전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이메일은 충격적이었다. 그동안 대한축구협회의 해명과 달리 굴욕적인 내용이 가득했다. 일본 언론은 지난달 13일 일제히 “한국이 독도 세리머니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자 여론은 들끓었고 김주성 대한축구협회 사무총장은 곧장 통상적인 외교 문서일 뿐 사과의 의미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었다. 축구협회는 나흘이 지나 밝혀질 일을 감추려 애썼다. 언론에 공개된 이메일에는 일본에 고개를 숙이는 굴욕적인 문구가 가득했다. 사과 논란을 낳은 'regret'도 원문에 포함돼 있었고 '일본이 너그러운 이해와 아량을 보여주면 감사하겠다'는 저자세의 문장도 축구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박종우의 행동을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

는 세리머니(Unsporting Celebrating)'라 정의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점이다. 이래 놓고 축구협회는 거짓 해명과 원문 공개를 철저히 막는 방법으로 사태를 덮으려 했다. 굴욕적인 문구가 나열된 원문이 공개되면서 비난이 일자 그제야 조중연 대한축구협회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면 책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가 과연 어느 나라 축구협회인지 이완용이도 헛갈릴 일이었다.

정몽준 명예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조중연 현 대한축구협회장은 올해가 4년 임기의 마지막 해다. 내년 1월에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열린다. 축구인 사이에서는 이른바 '축구 대선'으로 통한다. 그럴 만하다. 대한축구협회는 공룡 조직이다. 지난해 예산이 1,000억 원을 넘었다. 올해 예산이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1,000억 원에 가깝다. 조중연 회장은 재선을 노리고 있다. 2년 전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규정이 바뀌긴 했으나 조중연 회장의 재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축구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현재로서는 대한축구협회의 헛발질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을 듯싶다. 이런, 전장!

하하하하하하
나는 X나 부자대

누구 주먹이 가장 비쌀까?

레전드 복서 8인의 연봉

주먹만 잘 써도 돈이 굴러 들어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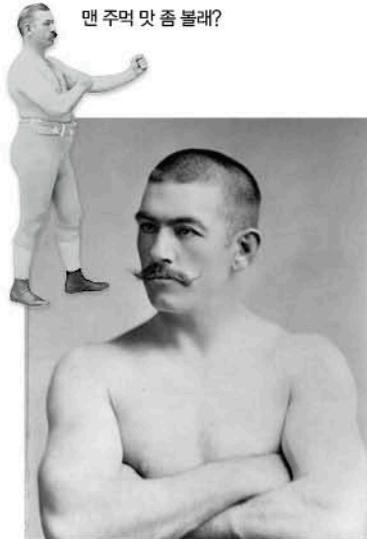
BY 격투 칼럼니스트 이용수 DESIGN 전은경 IMAGE 연합뉴스

레전드
경기 영상
보러 가기



클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가
이대로만 간다면 머잖아 통산 수입이
4,500억 원에 도달할 것이다.

〈포브스〉가 발표한 스포츠계 고소득자 순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모든 스포츠 스타 중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선수는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다. 그는 해당 기간 단 두 경기를 뛰고 8,500만 달러를 손에 쥐었다. 우리 돈으로 약 950억 원이다. 〈포브스〉는 매년 각계각층의 고액 연봉자 리스트를 발표하는데, 어느 해든 스포츠 부문 순위표의 상위권은 늘 복싱 스타들이 차지했다. 당대 최고의 복서들은 도대체 얼마나 벌었을까?



맨 주먹 맛 좀 볼래?

존 L. 설리번 통산 수입: 약 250억 원

설리번은 복싱에 글러브가 아직 도입되지 않던 시대에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베어너클 시대, 런던 프라이즈 파이팅 룰). 그러다가 도중에 글러브를 착용하는 방향으로 규칙이 개정(퀸즈베리 룰)되었고, 베어너클 챔피언인 그는 글러브 파이팅에서도 타이틀을 따냈다. 비공식적으로는 450전을 싸웠다고 하며 공인된 경기에서는 42전 38승 31KO 1패 2무 1노컨테스트의 기록을 세웠다. 그는 최초의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다(논란이 있긴 하다). 설리번은 미국에서 운동선수로는 처음으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유명인이 됐다. 또, 스포츠로 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최초의 선수였다. 당시 달러 가치는 지금보다 23배가량 높았다. 설리번이 벌어들인 돈은 요즘으로 치면 2,300만 달러(약 250억 원)가량이다. 같은 시기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던 대투수 '사이 영'(메이저리그 투수들의 로망인 사이영 상은 알고들 있겠지?)은 1890년대에는 연봉 4,000달러, 1900년대 초반에는 8,000달러 정도를 받았다. 한참 잘나갈 때의 설리번은 1년에 3만~14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1890

1930-40

조 루이스 통산 수입: 약 800억 원

루이스는 흑인으로는 최초로 미국을 대표하는 슈퍼스타였다. 그가 전성기던 1930~40년대는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지만, 루이스는 예외였다. 나치 독일을 상징하는 독일 복서 막스 슈멜링과의 대전에서 KO승을 거두면서 미국의 자존심을 고양했고 그 공을 인정받아 미국 내 최고의 스타로 등극했다. 루이스의 전적은 66승 3패 1노컨테스트 52KO였다. 접근에서 연속으로 터지는 강력한 쇼트 볼로가 루이스의 주 무기였고 별명은 갈색 폭격기였다. 이 선수는 통산 480만 달러를 벌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7,300만 달러(약 800억 원) 정도. 그렇지만 루이스가 실제로 손에 쥔 돈은 80만 달러(환산 가치 약 130억 원)에 불과했다. 매니저와 프로모터들이 루이스의 단물을 쭉쭉 빨아 먹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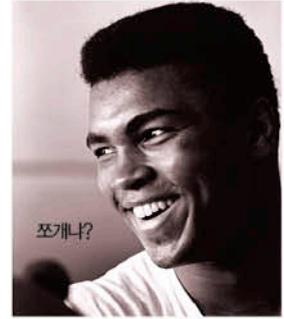


내가 바로 슈퍼스타요



1950

1960-70



뜨개냐?

무하마드 알리

통산 수입: 약 3,700억 원

소니 리스톤은 한 경기의 대전료로 1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최초의 선수다(야구에서 1년 연봉 100만 달러를 넘긴 건 한참 후인 1979년 놀런 라이언이다). 알리는 그런 리스톤을 KO시키고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다. 그는 가장 위대한 복서였고 흑인 인권운동의 아이콘이었다. BBC는 알리를 20세기를 대표하는 스포츠 영웅으로 꼽았다. 알리를 두고 많은 사람이 복싱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고 평한다. 그만큼 그의 실력은 남달랐다. 입담 또한 권투 실력 못지않아서 미디어 입장에서는 최고의 취재원이기도 했다. 21년의 기나긴 선수 생활 동안 알리는 6,0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억 3,000만 달러(3,700억 원) 정도인 셈. 이 중 매니징 비용 33%를 제하면 약 2,500억 달러 정도를 가진 것이다. 1975년 알리는 프레이저와의 경기에서 600만 달러를 받았다. 당시 야구선수들의 1년 연봉이 100만 달러가 안 됐을 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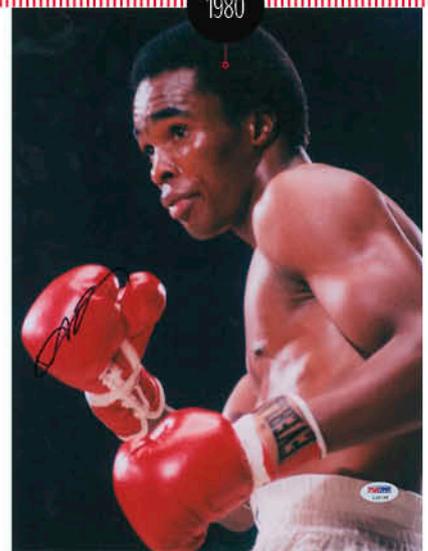
복서의 열정 각도 처음 봄?

로키 마르시아노

통산 수입:
약 1,536억 원

마르시아노는 최후의 미국국적 백인 헤비급 챔피언이다. 그는 49연승, 43KO라는 불멸의 기록을 남기고 챔피언 벨트와 함께 일찌감치 은퇴했다. 하지만 은퇴한 지 11년 후, 그의 나이 46세 때 비행기 사고로 불귀의 객이 되었다. 강력한 좌우 흑을 무기로 오직 KO만을 노리는 터프한 스타일이었던 마르시아노의 인기는 어마어마했다. 그는 90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그 중 500만 달러만 손에 쥐었다. 마르시아노 역시 금전 쪽으로는 순진해서 거의 절반 정도를 매니저에게 빼앗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까워할 필요 없다. 마르시아노는 한 경기에 60만 달러를 벌었다. 당시 메이저리그의 톱 클래스 선수(윌리 메이스나 미키 맨틀)가 1년에 약 15만 달러를 벌었고 루키의 연봉은 7,500달러 정도였다.

1980



슈거 레이 레너드

통산 수입:
약 3,000억 원

알리의 은퇴 이후 복싱계의 총아로 떠오른 선수가 바로 레너드다. 알리의 활약으로 복싱은 흥행면에서도 절정기에 도달했고 레너드는 그 덕에 엄청난 수입을 거둘 수 있었다. 레너드는 완벽한 선수였다. 스피드와 파워와 기술에 맞춘, 정신력까지 훌륭했고 대중에게 호감을 주는 캐릭터였다. 그는 1,000만 달러를 넘나드는 대전료를 받은 경기만 세 번에 달했고, 통산 수입 1억 달러를 넘긴 최초의 선수기도 했다. 총합은 1억 3,500만 달러.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그의 수입은 2억 7,000만 달러(약 3,000억 원) 정도다. 참고로 레너드가 1,100만 달러를 받고 헨즈와 싸우던 1982년, 메이저리그 최고 연봉자는 250만 달러를 받은 데이브 윈필드였다.

마이크 타이슨

통산 수입: 약 5,250억 원

타이슨은 아마도 복싱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받은 선수일 것이다. 작지만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핵 펀치를 퍼붓는 그의 경기는 환상적이었지만 링 밖에서는 통제 불능으로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 1988년 마이클 스프inks를 상대로 한 헤비급 3기구 통합 타이틀 방어전에서 타이슨은 2,200만 달러의 대전료를 받았다. 같은 해, 메이저리그 최고 연봉자가 260만 달러를 받고 있었다. 당시 2,200만 달러는 현재 가치로 4,400만 달러 정도다. 타이슨이 경력 전체에서 벌어들인 대전료의 총합은 3억 달러로 1990년대 초반 기준으로 이 액수는 현재 가치 4억 7,000만 달러다. 근데 그걸 다 쓰고 파산했다니 도대체 얼마나 재미있게 산 거냐... 부럽다.



1990

오스카 델라 호야

통산 수입: 약 7,700억 원

호야는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프로로 데뷔하면서 이미 100만 달러의 계약금을 받았다. 호야는 기본기가 탄탄하고 복싱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잘 갖춘 선수였다. 맘만 먹으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실력파였지만 모험을 걸고 KO를 노리며 관객들을 위한 경기를 하던 진정한 엔터테이너였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외모가 복서치고는 매우 출중해서 소녀 팬을 링 사이드로 불러 모았다. 호야는 6체급에서 활동했고 17번의 세계 타이틀전에서 승리(역대 최고 기록)하면서 6체급 모두 10개의 챔피언 벨트를 쓸어 담았다. 호야는 PPV(Pay Per View: 시청한 프로그램 수나 시간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 수입만으로 약 7억 달러(7,700억 원)를 챙겼다. 한 경기에서 거둔 수입은 최대 5천만 달러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도 호야만큼 번 선수의 없다. 지금은 '골든 보이 프로모션'의 대표 프로모터로 변신해 다시 돈을 쓸어 모으고 있다.



2000

현재



메이웨더와 그의 절친 램퍼 50센트. 이 둘은 최근 TMT(The Money Team) 프로모션을 설립했다.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

통산 수입:
약 2,300억 원

메이웨더 주니어는 이 시대의 복싱이 풀어야 할 최후의 난제다. 그의 복싱에는 빈틈이 없다. 너무 잘해서 어이가 없을 정도. 그는 커리어 통산 2억 1,300만 달러(약 2,300억 원)를 벌어들이고 있다. 한 경기 최고 액수는 3,200만 달러. 현재 야구의 최고액 연봉자인 알렉스 로드리게스에게 비하면 1경기 대전료로 로드리게스의 1년 연봉보다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통산 수입은 로드리게스와 비슷한 수준. 그만큼 야구 선수들은 많이 올라왔고 복싱계는 가라앉은 것이다. 그렇지만 메이웨더 주니어는 본인이 직접 프로모터로 나서서 매니징 비용을 많이 내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다르다. 상기의 모든 선수가 실제로 받는 금액이 전체 대전료의 66% 이하인 것에 비해 메이웨더 주니어는 90% 정도를 가져간다고. 메이웨더 주니어는 43전을 싸워오는 동안 아직 패배가 없고 5체급에서 8개의 벨트를 수집 중이다. 이대로 순항한다면 그의 통산 수입은 약 4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아아 배 아파!

내 주먹이
1위라고



MMA 파이터들의 자산 총계 TOP 10

단위: 만 달러

1위	척 리델	1,600
2위	표도르, 티토 오티즈, 브룩 레스너	1,500
5위	조르주 생피에르	1,400
6위	프랭크 미어	1,000
7위	랜디 커투어	900
8위	앤더슨 실바	800
9위	포레스트 그라핀	750
10위	알리스타 오브레임	550

아직은 야구나 축구보다 겸손한 액수. 하지만 앞으로 10년 후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 국군의 날 기념 ☆



군기 바짝
솟는 영상



2012 대한민국 국군,

이 화보를 찍은 남자 모델들은 모두 군대에
다시 끌려가는 축축한 악몽을 꾸었다지.



어디까지 왔나?

충성! 필승! 단결! 투격! 친절! 64주년을 맞는
국군의 날을 기념하여 MAXIMI이 준비했다.
숫자로 보는 우리 국군!

BY 이영비 PHOTOGRAPH ARC STUDIO
MAKEUP 고영은 HAIR 이도우
FILM 최성준 ASSISTANT 최동희, 박종원
MODEL 2010 MISS MAXIMI 최혜연,
박한빛누리, 조용재, 박종원, 이현규, 최성준
DESIGN 전은경 COOPERATION 경기도 안산시
청룡훈련단(www.rokmcamp.com)



2,052

사병들이 먹는 밥 한 끼 가격.
새우깡 두 봉짓값이다.

6,120

육군 훈련소에서 하루에
먹어치우는 쌀(kg), 돼지는
14마리, 닭은 390마리가
하루 식자재로 쓰이며
김치는 약 3, 계란은 9천
개가 소비된다.

지난 9월 8일, SRL 클럽의 'ID 벌레' 이광낙(29세) 씨가 1시간 30분 만에 24인용 텐트 설치를 완료했다. 그 장면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이 4천5백 명, 인터넷 실시간 생중계 동시 접속자는 최고 10만 명이었다. 부사관 8년 경력의 이 씨는 이 일로 수많은 현역 장병의 원망을 샀다.



어이, 미필자들 그거 알아?

링~딩동~링딩동~

후위 루빅퍼~



더 궁금하면 강인한테 물어봐.



군용 콘돔은 실재한다

성병 예방 및 피임을 위해 휴가 나가는 장병에게 의 무대에서 지급한다. 하지만 육군 모 군의관의 증언에 따르면 "두꺼워서 장병들이 잘 안 쓰려고 한다"고 높은 분들, 오카모토 초박형 모르세요? 좀 바꿔주지?

안경잡이도 조종사 될 수 있다

을 후반기부터 나안 시력이 0.5라도 공군 조종사가 될 수 있다. 종전 0.8에서 기준을 낮춘 이유는 애새끼들 눈이 갈수록 나빠지는 데다, 항공 기술이 발달해서 첨단 장비로 시력을 커버하기 때문. 이미 라식, 라섹을 받은 사람은 고공에서 눈갈이 터질 수 있어서 안 된다.

끼니를 맘대로 거를 수 없다

"군인은 항상 보건 위생에 유익하고 심신 단련에 힘 써야 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로 건강을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고의로 식사를 거르는 군 장병은 군인 복무 규율의 건강 관리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니 짬 찔 때까진 편식 안 된다.

7

군 전문 웹사이트 GlobalFirePower.com(GFP)에서 핵을 제외한 군사력을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을 세계 7위의 군사 강국으로 꼽았다.

이 대단한 군사력에 MAXIM도 한몫했.. (나라에서 훈장을 주신다면 거절하진 않겠어요.)

세계 군사력 순위 (GFP 령량) 아, 짬순은 아니고.

1위 미국	☢☢☢☢☢☢☢☢☢☢
2위 러시아	☢☢☢☢☢☢☢☢☢☢
3위 중국	☢☢☢☢☢☢☢☢☢☢
4위 인도	☢☢☢☢☢☢☢☢☢☢
5위 영국	☢☢☢☢☢☢☢☢☢☢
6위 터키	☢☢☢☢☢☢☢☢☢☢
7위 대한민국	☢☢☢☢☢☢☢☢☢☢
8위 프랑스	☢☢☢☢☢☢☢☢☢☢
9위 일본	☢☢☢☢☢☢☢☢☢☢
10위 이스라엘	☢☢☢☢☢☢☢☢☢☢
... (북한은 22위)	☢☢☢☢☢☢☢☢☢☢

☢ = 핵 보유



"최해연같이 섹시한 여 조교가 있으면 군대 다시 갈 수 있다"고 한 남자는 이중 아무도 없었다. "차라리 죽겠다"고 한 이가 4명. "재입대시킨 사람을 죽이겠다"고 한 이가 1명이었다.



36

지금까지 10년 넘게 촬영한
장기 촬영병 수.
이중 20년 이상 지명수배된
이는 7명.

23

그중 최장 촬영 기록, 23년째 도망 중인 일병
1마리가 있는데, 1988년 8월 2일 촬영 뒤
수배되어 지금까지 안 잡혔다. 하지만 만 40
세가 되면 병역 의무가 끝나고 만 45세가 되면
공소시효가 지나서 지명수배가 해제된다. 이
사람, 만 44세에 검거되면 일병부터 굴리는
거?

54,000,000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국군 위문 공연 행사로 가장
비싼 몸값을 받은 연예인은
LPG로, 5년간 5,400만
원을 받았다. 누이, 거 좀
깎아주소~!

3,200,000

2011년 기준 대한민국
예비군 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2번째로
예비군이 많은 나라다.
1위는 820만 예비군을
보유한 중국. 하지만 인구
대비 예비군 비율로
따지면 중국은 0.6%,
우리나라는 6.7%.
3위는 중국 못지않게 인구
박터지는 인도다.

여기가 명당이지
말입니다.

33,000,000,000,000

올해 대한민국 국방 예산 33조 원
= 미 해군이 개발 중인 세계에서 제일 크고 비싼
군함 U.S.S Zumwalt 3대 + F-35 전투기 45대
= 세계 최고가를 찍은 페라리 250 GTO 921대
+ 페라리 599XX 12대 + 2013년형 BMW 5시리즈 5대
+ 남은 지폐로는 똥이나 뒤져!



300

보병 부대의 장병들은 연간 총 300km 이상
행군한다. 1년 동안 서울-대전을 걸어서 2번
왕복하는 셈. 연간 800km 넘게 행군한다는
북한군을 보며 위안 삼자.

친구야, 니가 왜 내 여친이랑
1박 여행을 가니?

다 잊어빠리.

이 촬영을 위해 어느 공군 병장급이 모델 최혜연의
이름표를 만들어 MAXIM에 보내왔다(12페이지 참조).
그런데는 최혜연 양이 붙어 바로고 남은
부디 오일 시동을 켜달라...



진짜로 이런 전역 선물을 나라에서 준다면 참 좋을 텐데..

전역자 우대 MAXIM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제대가 까마득한 전국 군바리의 부러움을
사고 싶지 않나? 민간인으로 복귀한 후
사바세계를 즐기는 티를 팍팍 내고 싶은가?
MAXIM에 전역 신고 하면 정기 구독을 평생
30% 할인 받고, 후임들에게 MAXIM 1년치를
선물할 수 있다. 덤으로 멋진 시계를 받는
행운까지 누려보자. 어서 신청하라!

신청 자격

전역 후 3개월 이내의 꿈과 의욕 충만한 예비역

신청 방법

1. www.maximkorea.net 접속
2. Board에서 '전역 인증 게시판' 클릭
3. 본인의 전역증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4. 전역증 확인 후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특별우대권'이 발급된다!
5.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전역 인증 게시판 이용 안내'를 참고하도록!

모르겠으면
찍어봐



간접 신고는 113,
전역 신고는
MAXIM으로!

오직
전역자만을
위한
대박 혜택 3

30%

하나.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당신 할아버지가 월남 참전 용사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국가유공자급 혜택이 주어진다!



둘. 군 생활 까마득한 자대 후임들을 위해
당신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준다!
당신이 머물던 자대 내무실로
MAXIM 과월호 12권을 무료로 쓴다!



셋. 전역 자랑질이 뛰어난 신청자 3명에게
멋진 '대니시 디자인' 손목시계를 증정한다!
아오, 손목에서 간지가 막 그냥 폭발하네.
(~2012년 10월 20일까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 **피스아이(PEACE EYE)**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움저버 없이는 레이스를 격추시킬 수 없듯, 디텍팅 기능을 수행하는 기체는 공중전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사일 하나 탑재하지 않아 전투에는 쓸모없는 일반 여객기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지휘 통제소 역할을 톡톡히 하는 이 녀석의 이름은 평화를 지키는 눈, '피스아이'다.

BY 김대영 DESIGN 신속희 IMAGE 국방부/공군



2011년 8월 2일, 항공기 1대가 미국을 출발해 공군 김해 기지에 도착했다. 활주로에 내린 비행기의 외형은 보잉사의 737 여객기와 흡사했지만, 동체 상부에 여객기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상한 형태의 물건을 장착하고 있었다. 언론을 통해 밝혀진 이 항공기의 정체는 우리 군이 최초로 도입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였다. 피스아이는 상부에 장착된 레이더를 통해, 한반도 공중과 해상 전역의 1,000여 개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 군은,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각종 항공기나 함정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C: Airborne Early Warning&Control)'란 항공기에 고성능 레이더를 장착하여, 공중에서 조기 경보, 항공기 통제, 전장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하늘의 지휘 사령부다. 특히, 먼 거리에서 비행하는 적 항공기를 포착해 지상 기지에 보고하고, 아군의 전투기를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오늘날 공중전의 핵심적인 요소다. 여기에 탑재한 레이더는 360° 전 방위를 수색하며, 저고도에서 낮게 비행하는 항공기도 잡아내는 우수한 탐지 능력을 갖고 있다.



물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지상의 레이더를 피해 낮게 비행하는 전투기도 잡아낼 수 있다.

공중의 천리안

일반적으로 산 정상에 위치한 지상 레이더는 자신의 위치보다 낮게 비행하는 항공기를 탐지하기 힘들다. 산악이 많은 지형에서는 레이더로 탐지가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저고도 탐지 레이더가 필요하다. 반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독수리가 하늘에서 넓은 시야로 지상의 먹이를 노리듯, 낮게 비행하는 항공기도 잡아낼 수 있다. 또 고정되어 있는 지상의 레이더 기지는 전쟁 발발 시 적의 1차 공격 목표기 때문에, 적의 공격으로 파괴되면 아군의 방공 통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반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비행하며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레이더 기지보다 생존율이 월등히 높다.



김대영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0여 년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국방 관련 언론 분야에 종사했다. 현재 네이버 캐스트와 조선닷컴에서 군사 관련 기획물을 연재 중이다. 월간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www.cyworld.com/undercoverbrother



ㅎㅎㅎ...

엄마,
이상한 아저씨가 쫓아와.

애, 쳐다보지 마.

비행 영상
감상하기!

걸프전 당시 E-3 센트리 에이웍스기의 지휘 통제하에 무려 38기의 적기가 격추되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대표하는 E-3 센트리 에이웍스

최초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제2차 세계대전 말에 등장한다. 미 해군은 일본군의 가미카제 자살 특공대에 대비해, 레이더를 비행기에 탑재한 'TBM-3W'라는 공중조기경보기를 운용했다. 이후 레이더와 컴퓨터 그리고 전사(display) 기술의 발전으로, 지휘 통제 기능을 갖춘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개발된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 미 공군이 운용 중인 E-3 센트리 에이웍스(AWACS: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기다. E-3 센트리 에이웍스기는 1977년부터 지금까지 총 68기가 생산되었다. 현재는 개발국인 미국을 포함해, 나토(NATO)와 영국, 프랑스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까지 E-3 센트리 에이웍스기를 운용하고 있다. E-3 센트리 에이웍스기는 걸프전 당시 눈부신 활약을 펼쳤는데, 다국적군이 격추한 총 40기 가운데 무려 38기가 E-3 센트리 에이웍스기의 지휘 통제하에 격추되었다.



스카이라이프 아니다.

대표적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바로 E-3 센트리 에이웍스기다.



왼쪽 날개
어디 갔어?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보잉사의 737 여객기를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다.

E-X 사업을 통해 도입한 피스아이

걸프전 이후 우리 공군도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도입을 위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획득 사업인 'E-X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1998년에 이르러 IMF라는 국가적 경제난 때문에 일시 보류되기도 했다. 그러다 결국 2006년 11월, 공군은 당시 오스트레일리아와 터키가 도입하려 했던 미국 보잉사의 737기를 선정했다. 또 2008년 4월에는 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피스아이(Peace Eye)'라는 제식 명칭을 부여했다.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 감시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올해 말까지 총 4대를 국내 도입할 예정이다.

피스아이의 눈, 톱 햇트 레이더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핵심은 동체 위에 장착된 레이더다. 일반적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원반 형태의 레이더를 장착하지만,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장착된 레이더는 개성 있는 바(Bar) 형태다. 미국 노스럽 그루만사가 제작해 피스아이에 장착한 톱 햇트(Top Hat) 레이더는, 모양이 서양의 중절모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톱 햇트는 L밴드 송수신 모듈을 탑재한 다기능 'AESA(능동형 전자 주사 레이더)' 레이더로, 현존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레이더 중 가장 발전된 레이더 중 하나다. 이것은 기존 레이더와 달리 레이더 빔의 방향 전환 속도가 빠르고, 다수의 표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상황 인식 능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킨다.



이것이 크고 아름다운 레이더다.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기존의 원반형 레이더 대신 바(Bar) 형태의 레이더를 장착했다.

자유자재로 레이더 빔을 조절하는 레이더

일반적으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탑재된 레이더들은 360° 전방위 탐색만 가능하다. 반면 톱 햇트 레이더는 전자식 레이더의 강점을 활용해 레이더 빔의 방향을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360° 전방위 탐색뿐 아니라 특정 지역의 집중 감시도 가능하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다. 또 3,0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고, 일반적인 360° 전방위 탐색 시 탐지 거리는 약 370km, 집중 감시 때의 최대 탐지 거리는 약 740km로 알려져 있다.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톱햇트 레이더 외에도, 지휘 통제를 위해 LINK 11/16 데이터 링크와 다양한 통신 장비를 갖추고 있다. LINK 11/16 데이터 링크는 일종의 군용 인터넷으로, 일반적인 인터넷과 달리 데이터 전송량은 낮지만 고도의 보안성을 자랑한다. 함께 탑재된 UHF/VHF 무전기는 공중의 전투기, 해상 함정, 지상의 지휘소와 음성 통신을 할 수 있다.



서든어택이 짱이에요!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는 최대 10여 명의 승무원이 탑승한다.

주변국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일본의 항공 자위대는 1980년대부터 13대의 'E-2C 호크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운용했으며, 1990년대에는 레이더와 지휘 통제 기능이 강화된 'E-767 에이왁스'기 4대를 추가 도입했다. 보잉사가 제작한 E-767 에이왁스기는 767 여객기를 플랫폼으로, 노스럽 그루만사의 AN/APY-2 PESA(Pass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레이더를 탑재했으며, 최대 탐지 거리는 약 800km로 알려져 있다. 이에 질세라 중국도 다수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들여오기 위해 1990년대부터 이스라엘로부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이후 비밀리에 이스라엘과의 기술 구매 방식을 통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자체 개발하게 된다. 결국 2006년 1월, '공경(空警: Kongjing) 2000'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공경 200' 공중조기경보기로 구성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부대를 발족시켰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운용 중인 공경 2000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러시아 일류 신사의 'IL-76' 수송기를 플랫폼으로 한다. 레이더의 최대 탐지 거리는 약 470km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 총 5대가 생산되어 운용 중이다. 🇨🇳

3국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격 비교!!

엘레강스한 밀리터리 프레타포르떼

일본 E-767 에이왁스



최대 탐지 거리: 800km

스미국 특유의 정갈한 먹거리처럼 깔끔하고 잘 빠진 보디가 인상적이다. 일장기의 해를 표현한 날개 뒤쪽의 연지 곤지가 수줍은 기모노 차림의 안주인처럼 수줍다. 다만, 누가 밟고 지나간 오레오 같은 언밸런스한 컬러의 레이더가 조금 아쉽다.

중국 공경 2000



최대 탐지 거리: 470km

고비사막의 전갈 꼬랑지 같은 돌출된 공무늬가 날카로운 대륙의 예리함을 잘 살렸다. 빅파이를 얹어 놓은 듯 동그스름한 레이더는 기체와 잘맞춤해 통일성을 살렸지만, 기체 위에 살포시 얹어 놓은 것 같은 날갯죽지가 금방이라도 접힐 것 같아 불안하다.

한국 피스아이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최대 탐지 거리: 740km

자칫 심심해 보일 수 있는 평범한 기체에 생선 가시 같은 상하의 돌기로 포인트를 줬다. 무엇보다도 김무스 폼을 한 듯 돌출된 모양의 길고 튼튼한 레이더가 세련미를 더한다. (사실, 등에 짚개 배달통을 업고 있는 대한항공 여객기 같다.)

PARTY

WORLD GYM

WORLD GYM

WORLD GYM

the MAXIM KOREA

MAXIM KOREA

MAXIM

:2012.08.18 Party

“천사나 악마냐, 그것이 문제로다.”

BY 김희성 PHOTOGRAPH kaipapapazzi DESIGN 신숙희



지구가 진짜 망하려고 하는지 살이 타들어갈 정도의 더위가 휩쓸고 지나갔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두 달 동안 어둑어둑한 클럽 대신 진짜 '물' 놀기로 소문난 곳만 골라 파티를 열었다. 반얀트리 호텔에서 비키니녀들과 백적지근하게 놀던 풀장 파티, 그리고 '동물의 왕국' 대천해수욕장 한복판에 DJ 부스를 설치하고 광란의 밤을 보낸 MAXIM PARTY. 다들 기억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연가시의 숙주가 된 듯 정신없이 놀다가 더우면 물에 첨병 뛰어드는 것으로 더위를 이겨냈다.



2010 MISS MAXIM 우승자 최혜연



8월 18일, 우리는 오랜만에 클럽으로 컴백하기로 했다. 그동안 덤다는 이유로 한동안 클럽 출입을 끊었다니 몸에서 퓨즈가 하나 끊어진 것처럼 무기력한 느낌이 들었다. 사이키델릭 조명이 설 새 없이 돌아가는 어둡고 축축한 지하 공간이 그리웠다. 김유신의 말이 천관녀를 찾아가듯 에디터의 발길도 클럽으로 향하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한창 꿀 같은 휴일을 보내고 있을 직장인과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않은 대학생들이 준비처럼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8월의 셋째 주 토요일 CLUB ELUU(엘루이)의 밤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가면 벗으면 더 예뻐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클럽다 왔다. 클럽버들이 설 새 없이 지하로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지하 입구에 설치된 포토 월에서는 MISS MAXIM들이 클럽버들을 환영하고 있었다. 잡지에서 보던 모델들을 살아생전 두 눈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MISS MAXIM과의 사진 촬영에 성공한 수컷들은 함성을 지르며 스테이지로 뛰어 올라갔다.



김미쫘꼬레또!!!



2011 MISS MAXIM 준우승 김지혜





이것만으로도 MAXIM PARTY에 온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하는 수컷들도 많았겠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다. 우리는 클럽 안을 '화이트 존'과 '블랙 존'으로 나누어 놓았다. 화이트 존에서는 새하얀 천사 코스프레를 한 MAXIM GIRL이, 블랙 존에서는 당신이 좋아하는 채찍과 수갑으로 무장한 섹시한 악마 코스프레의 걸들이 썩나게 놀고 있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마치 내일이란 없는 것 같았다. 문제가 있다면 딱 하나. "천사나 악마, 그것이 문제라." 



Road FC 009 BEAT DOWN

지난 9월 15일, 강원도 원주의 치악 체육관에서 아홉 번째 로드 FC 경기가 열렸다. “관중 여러분, 격투기는 싸움이 아닌 스포츠입니다. 욕설이나 선수들을 비방하는 말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장내 진행자의 안내 멘트가 따로 있었을 만큼 어느 때보다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고, 선수들은 치열했다.

BY 송하나 PHOTOGRAPH 이영환, 조용재 DESIGN 전은경



저어양~ 말 잘생겼고,
그리고 랩도 잘하는
난 에이취유진, YO!



본 경기 전 H유진과 박상민이 축하 공연을 펼쳤다. 특히 로드 FC 부대표 박상민은 관객들의 요청으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슬램덩크>의 주제곡을 불렀는데 아이, 이걸 라이브로 들다니... 경기장에 있던 애디터도 갑자기 X나 강백호가 된 기분이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 날, UFC에 진출하는 로드 FC 밴텀급 챔피언 강경호 선수의 인사말도 있었다.

THE 1ST MATCH 라이트급 토너먼트 8강전

이용재 승 vs. 김원기



승부를 결정지은
희심의 복부 마사지!



첫 번째 경기는 다크호스 이용재와 김원기의 대결이었다. 두 선수 모두 영건즈에서 힘겹게 올라온 만큼 사활을 건 난타 경기를 보여주었다. 이용재는 펀치 연타에 다소 흔들리는 듯 보였지만 3라운드 3분이 남긴 시점부터 킥으로 김원기를 계속 추격했다. 그리고 강력하게 들어간 미들킥과 이어진 파운딩 연타! 순식간에 분위기가 뒤집혔다.

3라운드 2분 32초 미들킥으로 이용재 TKO승!

THE 2ND MATCH 라이트급 토너먼트 8강전

류실 콜로사(승) vs. 김석모



죽음의 매치를 끝내고 영건즈에서 올라온 '꽃짐승' 김석모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온 '치타' 류실 콜로사. 경기를 잘 풀어나가던 김석모는 류실의 강력한 타격에 균형이 깨지면서 그라운드에서 무너졌다. 류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파운딩과 니킥을 퍼부었고 김석모는 결국 1라운드 레프리스톱 TKO패했다. 끝까지 버텨내려 했지만 그에게 '타격 귀신' 류실은 아직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1라운드 4분 36초 파운딩으로 류실 콜로사 TKO승!

THE 3RD MATCH 라이트급 토너먼트 8강전

김창현 vs. 쿠메 다카스케(승)



뒤져서 나오면 10월에 한 대다.

나의 킥에 자비란 없다!

겉보기에는 마음씨 좋은 동네 생선 가게 아저씨같이 생긴 쿠메 다카스케는 14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승승장구 중인 라이트급의 강자였다. 김창현은 쿠메가 날린 라이트 펀치를 턱에 맞고 주저앉았고 쿠메는 곧바로 김창현의 등 뒤로 돌아가 리어 네이키드 초크를 걸었다. 에디터의 취재석 옆에는 토류 마사히로의 세컨드로 보이는 한 남자가 목이 터져라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시마이! 시마이! 시마이!" 같은 팀도 아닌데... 나들도 애국심인 게냐?

1라운드 3분 27초 리어 네이키드 초크로 쿠메 다카스케 승!

가, 우리 존스롭게 패배했다고 고개 숙이고 그런 거 하지 말시다. 진정 경기를 즐길 줄 아는 그대가 챔피언이니까!



아니, 어제 반세워 연습했는데...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함께 등장한 김창현 선수 뒤에 있던 낯익은 얼굴은 UFC 파이터 김동현. 테마 음악에 맞춰 주섬주섬 밈춤 자세를 취하며 점프를 시도하려 했으나, 장내 진행 요원의 "저쪽으로 나가시라"는 제지에 수줍게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야 했다. 연습해온 눈치인데, 쫓.

THE 4TH MATCH 라이트급 토너먼트 8강전

남의철 vs. 토류 마사히로



2012년 MAXIM 9월호

내가 바로 공기놀이이신 남의철이다!



나 잘했쨌염?



다른 선수 경기에 피를 토하던 토류 마사히로의 세컨드는 정작 본인 선수의 경기에는 조용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경기 내내 남의철이 토류를 압도했기 때문이다. 남의철의 니킥에 백포지션을 내준 토류는 계속되는 그의 파운딩 연타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심판은 경기 중단을 선언했다. 완벽한 승리였다. 지난달 MAXIM 직원들과 에메이징 배틀을 할 때는 그저 공기놀이 좀 잘하는 형인 줄만 알았는데... 후유, 지릴 뻔했다.

1라운드 1분 32초 파운딩 연타로 남의철의 TKO승!

THE 5TH MATCH 무제한급 슈퍼파이트

미노와 맨 vs. 육진수



나야아!

첫 번째 스페셜 매치는 근육 맨을 닮은 괴짜 파이터 미노와 맨과 울보 파이터 육진수의 대결이었다. 서로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신중하게 탐색전을 펼치던 두 선수. 1분 30여 초를 남겨두고 미노와 맨이 펀치를 날리며 무게중심을 잃자 육진수가 이를 놓치지 않았고 테이크다운에 성공했다. 그러나 미노와 맨이 이 기회를 이용해 상위 포지션을 차지했고 서브미션의 달인답게 기무라 록을 걸어 육진수의 기권을 얻어냈다.

1라운드 4분 59초 기무라 록으로 미노와 맨 승!



거기만 보지 마~♡



THE 6TH MATCH 미들급 슈퍼파이트

멜빈 맨호프 (승) vs. 김재영



드디어 마지막 경기였다. 경기장은 관중들이 내뿜는 아산화탄소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쉽지 않은 경기였다. 1라운드는 김재영의 우세였다. 펀치를 휘두르다 중심을 잃은 멜빈을 김재영이 그대로 테이크다운시켰고 김재영은 파운딩을 날리며 주도권을 이어갔다. 하지만 2라운드에서 같은 방식의 테이크다운을 시도한 김재영에게 멜빈은 두 번이나 당할 선수가 아니었다. 이어 두 선수는 펀치를 주고받았지만 2라운드는 멜빈이 우세했다. 3라운드가 중요해진 만큼 서로 선부분 공격을 하지 않고 가드를 올린 채 상대방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10초가 남았다는 사인이 들어오자 멜빈이 시도한 플라잉 니킥을 놓치지 않고 김재영이 멜빈의 킥을 잡아 넘어뜨렸고 경기가 끝났다. 누가 우세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심판들은 멜빈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경기 후 "지금까지 몸집이 크고 강한 헤비급 선수와 많이 싸우면서 KO를 시켰다. 근데 김재영은 달랐다. 머리가 돌처럼 단단했고 절대 쓰러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돌대가리'라는 디스와 존경을 동시에 선사했다.

1라운드 30:27 김 > 맨호프
2라운드 27:30 김 < 맨호프
3라운드 29:30 김 < 맨호프
2:1 판정으로 멜빈 맨호프 승!



한국말 잘하네?

새끼 너 좀 멋있다?



경기 영상
보러 가기







INDIAN BEAUTY **MONIKA GABA**

MAXIM 인도판의 미스맥심 콘테스트 2011년 우승자 모니카 가바,
할리우드로 날아가 영화 <선 오브 모닝(Son Of Morning)>에서 '여신'을 연기하더니
이제 앨범까지 발매하고 나섰다. 이렇게 한창 잘나가는 그녀가 오랜만에 자신의 동지
MAXIM에 돌아와 화끈한 화보를 선사했다.

BY STEFAN PINTO PHOTOGRAPH DION WILLIAMS & SHANERUSSECK DESIGN 신속희



|||||

모니카 가바와의 인터뷰를 위해 우린 레스토랑을 하나 빌렸다. 그곳 남자 직원들은 교복 입은 남자에들처럼 실실 웃으며 하나같이 그녀의 가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가슴이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당신 가슴을 쳐다보고 있다. 당신 가슴이 뚫어질까 봐 걱정된다. 이 레스토랑에 당신 팬클럽이라도 와 있는 건가?
하하, 질투하지 마라. 남자들이 다 그럴잖아?

요즘 여기저기서 당신 노래 'Surrender'가 흘러나온다. 뮤직비디오도 굉장하데 사막에서 촬영한 건가?

보기엔 사막 같지만 사실 말라붙은 호수에서 촬영했다. 모두가 꿈꿔온 모험 자체였다! 스태프도 모두 재미있는 사람들이라 즐겁게 작업했다. 그곳 한가운데 내 노래가 울려 퍼졌고 난 계속해서 뛰고 춤추고 노래했다. 다 내 자식 같은 노래다.

음반에 있는 모든 곡을 직접 썼다고 들었다. 가사는 모두 당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건가, 아니면 그냥 상상해서 지어낸 건가?

모두 내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다. 쉽진 않았다. 다음 음반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당신은 어떤 남자랑 데이트를 하는가?

난 '착한 남자'가 좋다. '나쁜 남자'는 싫다. 그런 애들은 진부하다. 난 진부한 건 딱 질색이다. 안 그런가?

헛, 지금은 음악 하는 남자랑 만나고 있지 않나? 예쁜 여자 모델과 뮤지션의 조합만큼 진부한 게 또 어디 있나?!

그 이유를 딱 집어 설명할 순 없지만 '뮤지션'스러운 남자에게 끌리는 것 같긴 하다. 나를 위한 노래를 만들어주는 남자라는 사실만으로 특별하지 않나? 그리고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 음악 작업을 하는 즐거움은,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 이것도 남자친구가 뮤지션이니 가능한 일 아니겠나?

유명해지고 나서 예전 남자친구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았겠지?
물론이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연락해왔다. 은근히 기분 좋았다.

우주인이나 유명한 뮤지션, 둘 중 하나만 될 수 있다면 뭘 고르겠나?

당연히 우주인이제! 달에 갈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지구인으로 사는 게 아무리 즐겁고 만족스러운 사람이라도 달에 보내준다고 하면 누가 거절하겠나?

녹음 스튜디오와 무대 중 어디에 있을 때 더 행복한가?

둘 다 좋지만 스튜디오에 있는 걸 더 좋아한다. 개인적인 공간이라 그런지 거기에 있으면 시간이 멈추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샘솟는 것 같다.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면 난 속옷만 걸치고 앉아서 쓰고 또 쓰고, 녹음을 한다! 당신도 한번 시도해보라. 효과 만점이다!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만 빼면 평소 우리 편집부 사무실 모습과 다를 게 없군. 자, 마지막 질문이다. 생각나는 대로 바로 대답해라. 어떤 동물을 가장 좋아하나?

독수리!

처음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물이 바로 그 사람과 가장 닮은 존재라고 한다.

오, 맞는 것 같다! 가끔 새를 닮았다는 얘기를 듣는다. 그리고 새는 똑똑하잖아!

맞다! 이것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다.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 월드 스타가 돼도 새대거리처럼 우릴 잊으면 안 된다! 🐦



 FROM MAXIM INDIA 

GO TO
MAXIM
iPAD
미공개컷 



A woman with long dark hair, wearing a vibrant red, off-the-shoulder, floor-length dress and silver high-heeled shoes, is leaning against a grey concrete wall on a staircase. She is looking back over her shoulder towards the camera. The staircase has a grey metal railing. The background is a plain, light-colored wall.

“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면 속옷만
입은 채로 곡을 쓰고, 또 쓴다.
”

그녀의 데뷔
곡 감상하기



그 남자가 싸는 법

I JUST HAD SEX!!! 찍!
BY 김희성 DESIGN 천은경

최초의
발사 영상





술 김이든 분위기 때문이든 달아오른 남녀가 합을 맞추는 데까지는 좋았다. 벨 받은 남녀가 앞뒤 재지 않고 일단 넣는 데까지 성공했다. 하지만 절정이 지나고 사정을 하고 마법에 걸린 아랫도리가 원래의 크기로 돌아가는 찰나 오묘한 정적이 흐른다. 특히 몇 시간 전 만난 남자의 정액이 배 위에 흩뿌려지는 그 순간, 우리는 시선을 어디다 뉘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이때는 뭘 해도 다 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하지만 여자들은 그 와중에도 당신이 어떻게 사정하는지를 다 본다. 당신은 사정 유형 C-12로 분류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얼마 전 '스트롱 베이비' 승리와 잤다는 한 여성이 그의 은밀한 사생활을 공개했다. "키스는 한 번도 해주지 않았으며 성행위 도중 목을 조른다. 내 배 위에 싸지른 후에 수건을 던져줬을 뿐 닦아주지는 않았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아, 승리는 사정하고 나서 수건을 주는 타입이구나"라며 흐릿한 미소를 짓고 있다보니 불현듯 남자들의 다양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다. "오빠 어떤 스타일?"

1. 배에 발사하는 스타일

대다수의 수컷들이 발사 지점으로 애용하는 곳이다. 10명이랑 자면 8명이 정액을 내뿜는 장소로 배를 택한다. 원 나이트든 몸 정이 제대로 든 커플이든 상관없이 가장 보편적으로 행하는 시츄에이션이니만큼 만인에게 익숙하다. 그래서 섹스 취향을 아직 간파하지 못한 새로운 파트너에게 시도하기 가장 무난한 발사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항상 새로운 걸 찾아다니길 좋아하고 무얼 갖다 줘도 금방 싫증을 내는 그녀에게는 자주 시도하지 말 것.

그가 얼마나 사정했는지 볼 수 있어서 좋다. 흥분되고 좋은 섹스일수록 사정할 때 내뿜는 정액 양이 많아진다는 걸 어디서 주워들어서...

2. 배에 발사하고 자신의 배로 갈아뭇개는 스타일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 배에 정액 발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그 위로 엮어진다. 식빵 사이의 찹처럼 배와 배 사이에 정액이 퍼 발린다. 보통 이 샌드위치 자세에서 남자는 포옹을 하거나 키스를 퍼붓는다.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이만큼 확실하게 드는 자세도 없다. 당신이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녀가 자꾸 당신이 귀찮아할 정도로 사랑을 확인하려 든다면 이 자세를 시전하라. 그녀가 조용해질 거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건 그녀의 배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다. 말라 붙기 전에 어서 일어나!

정액이 배꼽에 들어가서 말라붙는 것만큼 째 째한 일도 없다.

3. 정액이 사방으로 튀는 스타일

분명히 배에다 조준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곤휴인지 정액이 사방으로 짹-짹- 흩뿌려진다.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옷, 침대 시트, 심지어 벽까지 튀기도 한다. 뭐 튀어도 상관없긴 한데 그 장소가 내 방이라면 짜증이 머리 끝까지 나니 그녀의 자취방에선 조심할 것. 얼굴이나 머리카락, 하물며 눈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특히 렌즈 낀 눈에 들어가면 진짜 고통스럽다. 마이 아이!!!

가끔씩 옷에 묻어 있는 정액 자국을 발견할 때가 있다. 제발 옷에는 안 튀게 할 수 없어?

4. 가슴에 발사하는 스타일

남성 상위 자세에서 열심히 피스톤 운동을 하다가 정액을 발사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무릎 걸음으로 올라와 가슴 여기저기에 흩뿌린다. 가슴 좋아하는 남자는 많기 때문에 딱히 성적

취향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 '내 가슴이 널 싸게 만들었어'라는 생각에 조금 뿌듯해지기도 한다. 급하게 발사 지점을 조준하다 보니 가끔 당신 의도와 다르게 부캐가 되기도 한다. 쿨구멍으로는 들어가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응?

정확히 가슴에 조준하는 명사수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 가슴에 사정하는 남자들은 대부분 오발탄을 쏜다. 아예 자고 갈 거라면 괜찮겠지 만 출근 전 깨끗이 샤워하고 나온 내 머리카락에 정액을 발사한다든지 화장이 잘 먹은 날 얼굴에 조금이라도 튀는 건 별로다.





수돗물로 가버렸

5. 미리 말하고 싸는 스타일

“나 지금 쌀 것 같아”라고 미리 말하고 발사하는 유형. 이런 유형은 흔하지만 그중에서도 “나 지금 싸도 돼?”라고 양해(?)를 구하는 남자, “나 지금 쌀 것 같은데 어떡하지?”라고 곤란해하는 남자, “간단”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남자 등으로 세분화된다. 응, 알려줘서 고마워.

자신이 곧 정액을 분출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것까진 좋는데 이런저런 사족을 다는 건 진짜 별로다. “내가 어제 야근만 안 했어도 더 할 수 있었는데”, “술을 많이 마시지만 않았더라도” 등 파트너가 자신의 섹스에 자괴감을 느끼면 아무리 좋은 섹스였다라도 별로인 섹스로 기억된다. 술 때문에 혹은 피곤해서 제대로 못한 것 같다면 말로 설명하는 대신 그녀의 몸 곳곳을 애무해주는 게 현명하다고!

6. 쥐 죽은 듯이 발사하는 스타일

사정할 때 가장 최악의 사정 방법을 꼽으라면 주저하지 않고 이걸 택하겠다. 도대체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가 없다. 그가 피스톤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을 때, 우리는 대공황 상태가 된다. 사정을 조용히 한 건지, 내가 별로라서 뻗뻗하던 아랫도리가 갑자기 죽은 건지 알 길이 없지 않나! 그 찝찝한 기분을 당신

도 겪어봐야 하는데. 평소에 나름 젠틀하고 매너 챙기는 남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거 진짜 비매너다. 갈 때는 간단하고 확실이 신호를 보내라.

“너 썼나?”라고 직접 물어보기는 뭣하니까 콘돔 안에 분사된 정액이 있는지 결는질로 살펴봤다. 근데 윤활액과 정액이 잘 구분이 안 돼 그마저 실패했다.

7. 이불 위에 발사하는 스타일

몸 위에 정액을 발사하는 게 미안하게 느껴져서 그런 건지 일부러 이불을 조준해 정액을 내보내는 남자도 있다. 상대방은 나름대로 우리를 배려하느라 혹은 몸에 사정하는 게 어쩐지 미안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실컷 좋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이불을 택한다는 건 상당히 의아한 일이다. 대체 왜 그러는 건지 누가 좀 알려줘.

클럽에서 만난 그와 눈이 맞아 손잡고 클럽을 나왔다. 그리 늦은 시각도 아닌데 그날따라 밤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우리 집에 데리고 와 하려던 걸 했다. 술기이라서 그랬는지 클럽에서부터 달아올라 있어서 그랬는지 그와의 섹스는 너무 좋았다. 그가 오케이한다면 섹스 파트너로든 연인으로든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일순간 정신이 확 들었다. 침대

시트 위에 개객끼처럼 정액을 흘뿌리고 있는 것이었다. “저기요, 여기 모텔 아니고 내 방 침대 이불이거든요?”

뒤처리 스타일

정성 들어 닦아주는 스타일

티슈를 꺼내 꼼꼼히 닦아주는 유형. 여자들이 가장 감동받는 스타일이다. 별로 마음에 안 들던 남자라도 격렬한 섹스 뒤 정성 들어 정액을 닦아주는 이중적 매력을 지닌 남자에게 여자는 끝릴 수밖에 없다. 거칠면서도 자상하고 때로는 배려심도 깊은 걸 동시에 어필하려면 티슈를 꺼내 들어라.

꼼꼼히 닦아주긴 했는데 꼭 티슈 말고 두루마리 휴지로 닦아줘서 좀 실망이었다. 그리고 꼭 티슈가 없어 두루마리 휴지로 닦아줄 수밖에 없을 땐 특히 더 살살 닦아줬으면 좋겠다. 엠보싱은 은근 따갑거든.

대충 닦아주는 스타일

닦아주긴 하는데 두어 번 쓱 문지르는 스타일. 차라리 아예 닦아주지 말지. 하려면 제대로!

자기 몸에서 나온 액체인데도 닦아주면서 인상 쓰는 건 뭐지?

8. 온몸으로 말하는 스타일

온몸으로 부르르 떠는 사람도 있고 어항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온몸을 심하게 파닥거리는 사람도 있다. 유별나다 싶긴 하지만 역시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싸는 편보다 백만 배 낫다.

"나 방금 섹스했어"라고 온 동네에 알리는 것 같다. 일단 그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다.

9. 얼굴에 발사하는 스타일

하다가 잘못해서 튀는 거 말고 아예 작정하고 얼굴에다 정액을 뿌린다. 당신이 '부카케'라고 부르는 바로 그거 맞다. 때리는 걸 좋아하는 남자와 맞는 걸 좋아하는 여자가 우연히 만나면 동의 없이도 부카케가 성립되지만 여자들은 종종 본인이 좋고 싫음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원하면 허락해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녀가 한 번 허락했다고 해서 섹스할 때마다 얼굴에 발사하는 건 안 된다는 거다.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 건 단지 기분 탓일까?

10. 입안에 싸는 스타일

입안에 사정해도 되느냐고 허락을 구하는 사전허가형. 입안에 쌀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일방통보형, 예고 없이 즉흥적으로 발사하는 즉심발사형이 있다. 다짜고짜 입에다가 X를 밀어 넣고 싸는 비매너남은 아직 못 봤다.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싶는데 그녀가 단칼에

거절할까 봐 그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면 "니 입이 너무 예뻐서 그렇다"는 그럴싸한 이유를 함께 대면 슈퍼패시 즉심발사형인 경우는 여자들이 당황할 테지만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 허용된다. 사전에 속쓰러워서 말을 못했더라도 그녀의 기분을 잘 봐가며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단, 그전에 당신이 먼저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한 상태여야 그녀가 아무 말도 못하겠지? 기브 앤 테이크,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야.

입사 동기들과 화식이 있던 날이었다. 동기들에게는 비밀이었지만 사실 그중 몰래 만나는 사람이 있었다. 그와 나는 술자리를 옮길 때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온다는 핑계로 살짝 그곳을 빠져나와 으스스한 골목에 주차를 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서로에게 애무를 하던 중 그는 내게 입으로 해달라고 했다. 평소에도 그와는 오렐 섹스를 즐겨 하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었다. 그런데 그가 그날 취해서였는지 아니면 내가 잘해서였는지 예고도 없이 입안에 정액을 발사하는 게 아닌가. 내가 거기서 입을 빼기라도 한다면 차 시트는 물론 내 옷이 정액으로 범벅될 게 뻔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 창문을 내리고 뱉어내긴 했지만 입안에 희미하게 남아 있는 정액 맛을 다 시면서 술자리로 돌아갔다. 그 뒤로 그와는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

11. 손으로 잡고 흔드는 스타일

"자, 간다"를 외치며 곧후를 손으로 잡고 마구 흔든다. 그냥 흔들고 마는 스타일, 나머지 한 방울의 정액이라도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듯

짜내는 스타일, 여기에 옵션으로 우리의 손에 자신의 아랫도리를 쥐어주는 남자도 있다.

굉장히 신나 보였다.

12. 소리를 지르는 스타일

소수긴 하지만 있다.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처럼 소리를 지른다는 의미는 아니고 신음 소리가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다양하다. 괴성만 질러대지 않는다면 그녀의 반응도 나쁘지 않을 거다. 당신이 엄청 흥분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테니까.

사정할 때 소리를 유난히 크게 지르던 남자가 있었다. 이제까지 만났던 남자가 조용히 사정했던 편이라 처음엔 좀 당황하기도 했지만 꽤 좋았다. 나와 섹스가 꽤 만족스러웠던 것처럼 느껴졌거든.

어떤 사정이 좋은 사정이고 나쁜 사정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상황과 장소, 분위기, 그녀의 성향에 따라 강약을 잘 조절한다면 당신은 무조건 잘하는 남자로 기억될 거다. 사정은 가장 본능적인 행위지만 동시에 이성적인 배려도 뒤따라야 한다는 거 잘 알겠지? 하나 더, 사람은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오래 남는 법이다. 당신의 아랫도리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끝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자. 짹- 찌직- 찌지직- 



MAXIM BUYER'S EDGE



프랑스 파리의 감성을 담은 오딧세이 한정판 출시
국내 대표 남성 화장품 브랜드 오딧세이에서 그래픽 아티스트 레슬리 데이비드와의 콜라베이션 한정판 패키지를 선보인다. 남성 피부의 활력과 탄력을 관리해주는 스킨케어 패키지는 유명 아티스트의 디자인이 더해져 특별한 선물로도 손색없다. 제품은 클렌징 폼, 스킨, 에멀전 그리고 안티에이징 에센스까지 총 4종으로 구성되었고, 단일 상품 구매도 가능하다. 제품은 전국 어디든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아모레퍼시픽
(080-023-5454, www.amorepacific.com)



예한의원에서 피부 상담도 받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겨요~!

평소 여드름 흉터 때문에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예한의원 손철훈 원장님에게 무료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 예한의원 의 스킨케어 재생술로 평생 못 고칠 것 같던 당신의 피부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줄지도 모른다. 예쁜 간호사 누나가 주는 커피를 마시면서 병원에 있는 아로마 족욕 시설까지 이용하면 이게 바로 강남 스타일! 이제 망설이지 말고 예약 상담을 위해 수화기를 들자.

문의 예한의원(02-564-2060, www.ye2060.co.kr)



게임 퀸스블레이드의 레어 아이템 황금 바이크 획득 이벤트!

㈜라이브플렉스의 MMORPG <퀸스블레이드>가 전무후무한 아이템인 황금 바이크 나이트호크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게임 안에서 바이크는 중장거리의 빠른 이동에 이용하는 아이템으로 나이트호크는 이동 속도가 일반 바이크에 비해 훨씬 빠르며, 황금빛 외형에 날렵한 디자인으로 제작, 간지 작살 포스를 자아낸다. 중립 사냥터와 몬스터 사냥을 통해 얻은 행운의 클로버 7카드를 조합해 소수의 유저만이 나이트호크를 얻을 수 있다. 향후 동일한 아이템은 없을 계획. 10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라!

문의 라이브플렉스(02-3446-1711, queens.kr.gameclub.com)

GOM TV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풋볼 인비테이셔널 시즌 3!

풋볼 게임의 최강자를 가려라 온라인 대회인 프리스타일 풋볼 인비테이셔널 시즌 3가 9월 13일 성황리에 개막했다. 게임 내 상위 클래스 클럽 중에서 선발된 16개 팀이 총 500만 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7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정인호, 서경환 캐스터의 해설로 프리스타일 풋볼 홈페이지와 곰 TV를 통해서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생중계된다. 현재 <프리스타일 풋볼> 게임은 MAXIM 9월호 표지 모델로 활약한 아리아니 셀레스티를 캐릭터로 내세우고 좀 더 핫한 게임으로 거듭나고 있다. 누가 누가 잘하나? 직접 확인해보자!

문의 JCE(fs.f.joycity.com)



그녀와의 로맨틱한 시간에는 소유스킨 쏘클린 클렌저

많은 돌이림과 실정, 비유 맞춤으로 사귀 그녀를 마지막 순간에 잃는 불운을 겪고 싶지 않다면 주목하라. 소유스킨에서 남성의 사타구니와 존슨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고 습진 예방 기능까지 겸비한 쏘클린 클렌저를 추천한다. 팬픽나무에서 나온 피톤치드와 천연 한방 추출물, 아토피 민감성 피부의 진정 효과가 있는 SKINPIA-10(스킨피아텐)을 함유하여 사용자의 건강을 고려했다. 당신이 그곳을 청결하게 유지하면 여성의 질염 예방 가능성이 82%로 치솟는다. 꼭 챙겨서 그녀에게 점수 좀 따자.

가격 33,000원 문의 소유스킨(02-445-5760, www.souskin.com)



프리스타일, 신규 모드 업데이트 기념 HOT EVENT!

JCE에서 서비스 중인 농구 게임 <프리스타일>이 지난 8월, 8년 만에 신규 모드인 <쇼타임>으로 업데이트하며 새로운 얼굴로 돌아왔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파격적인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바로 본 캐릭터를 원하는 스페셜 캐릭터의 외형과 능력치로 무상 교환해 주는 것. 이 이벤트는 9월 26일까지 진행된다. 게임 플레이를 할 때 경험치도 두 배로 주는 프로모션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늦게 접속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참여하자!
문의 JCE(fs.joyciy.com)

뮤지컬 왕세자 실종 사건, 뮤지컬의 패러다임을 깨다.

유명 배우, 외국 라이선스가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죽도록 달린다>, <청춘 18대 1> 등의 작품으로 공연계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걸고 있는 극단 '죽도록 달린다'가 움직임과 음악, 음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작품 <왕세자 실종 사건>을 선보였다. 조선을 배경으로 왕세자가 실종된 사건을 추적해가는 미스터리 멜로물. 배우들의 표현력 가득한 움직임과 열연만으로 지루할 틈이 없다. 어린이 재단 후원자로 등록하거나 한할증과 조할모 세 포 기증 등록증 소지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뜻 깊은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 10월 28일까지 대학로 아트윈 씨어터 1관.



문의 클럽서비스(1577-3363)



장인이 만든 안경, 에르메네질도 제냐 VZ3631G

이탈리아 장인의 숨결이 느껴지는 브랜드 에르메네질도 제냐에서 메탈과 플레 소재의 콤비 프레임 아이웨어를 선보인다. 특히 메탈 소재의 브리지와 플레 소재의 전면 프레임이 멋스럽다. 또 노즈 패드형 코받침을 채택해 오랜 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다. 지적인 강남 스타일의 남자가 되고 싶다면 에르메네질도 제냐와 함께하는 건 어떨까?
문의 에르메네질도 제냐(www.zegna.com)



Chupa Chups



Keith Haring



스마트폰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 아이커버, 아이폰5 케이스로 앞서가다!

아이커버가 아이폰5 케이스를 예약 판매한다. 츄파츄프의 비비드한 컬러와 이전에 볼 수 없던 빈티지 디자인, 그리고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키스해링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완성한 케이스는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된 신선함을 느끼게 한다. 실제 표범 가죽으로 만든 것 같은 레오파드와 반짝임이 인상적인 글리터 라인 등 다양한 디자인의 기능성 제품이 넘쳐난다. 아이커버 케이스를 보면 사고 싶은 충동이 마구 들끓? 아이폰5 출시 기념으로 반값에 판매하는 대박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얼른 사이트를 방문해보자.

문의 아이커버(070-8250-2070, www.icover.kr)



얼굴의 묵은 때를 벗겨주는 릴리프 퍼스트 필링 젤

묵은 각질로 칙칙해진 얼굴을 환하게 가꾸고 싶다면 엠도씨 릴리프 퍼스트 필링 젤을 추천한다. 이 제품은 산뜻한 사용감으로 피부에 부드럽게 흡수되며 자극이 없다. 특히 마치현 추출물, 자소 추출물의 약초 성분이 피부를 한결 깨끗하게 가꿔준다. 보들 보들한 피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남자에게도 각질 관리가 필수라는 점 잊지 말자.

가격 15,000원 문의 엠도씨 (www.mdockorea.com)

HOTTER THAN EVER! 2012 MISS MAXIM TOP 4

TRICK OR TREAT

청순한 간호사의 유혹, 메이드와의 하루, 바니걸의 도발, 아찔한 여경찰..
2012 MISS MAXIM 4강 진출자들이 보내는 할러윈 코스튬 종합 선물 세트.



구두 모두 슈즈원

MISS MAXIM CONTEST 4강 진출자가 모두 모였다. MAXIM에 나오기 전과 지금은 뭐가 달라졌나?

수아: 다른 사람들에게 딱히 얘기한 건 아닌데, 군인인 친구들이 MAXIM에서 나를 봤다고 해서 놀랐다.

현아: 나도, 근데 평소에는 거의 생얼로 다니니까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다.(웃음)

다닝 푸: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 이름을 구글링 해봤는데, 한국인도 아니고 프랑스인이 MAXIM에 나온 내 기사를 번역해서 자기 블로그에 올려놓은 걸 봤다. 나도 놀랐다!

상미: 길에서 날 알아보고 아는 체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수군대는 걸 몇 번 들은 적이 있다.

경찰, 바니걸, 메이드, 간호사... 오늘 입은 코스튬 의상들은 마음에 드나?

현아: 예전부터 강렬한 느낌의 경찰 코스튬을 해보고 싶었다. 청순한 메이드 의상을 내가 입었으면 왠지 퇴폐적인 느낌이 났을 것 같다.(웃음)

상미: 예전에 메이드까진 아니고 청소부 콘셉트로 화보 촬영을 한 적은 있다. 메이드 옷은 정말이지 처음 입어본다!

다닝 푸: 네 앞니가 토끼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바니걸 의상이 마음에 든다.

수아: 간호사 의상을 고른 게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흰색이 마음에 들어서 간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 옷만 밝은색이네. 내가 변태인 건가?

핼러윈데이엔 어떤 데이트를 하고 싶나?

현아: 사람이 많은 밤거리를 걷고 싶다.

상미: 산속에 있는 나무 별장 같은 호러틱한 곳에서 지내고 싶다. 장작불도 피우면 더 좋을 것 같고!

BY 김희성 WORDS 조웅재
PHOTOGRAPH ARC STUDIO
HAIR 이도우 MAKEUP 고영은 FILM 최성준
DESIGN 서윤정 ASSISTANTS 손안나, 최통희
COOPERATIONS 슈즈원(02-3443-1703),
뉴에라(070-4411-5950), 에블린(080-045-0456),
르페, 저스트마사이즈(1544-6101),
페르소나(070-7503-8342)



김수아



이상하다! 지난해 촬영 때보다 키가 더 큰 것 같은데?

원래 173cm이 조금 넘었는데, 어제 키를 재어 보니까 174.8cm더라.

핼러윈데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호박에 가면처럼 얼굴 뚫어놓은 거 있잖아. '잭오랜턴'이라고 하나?

우승을 한다면 어떤 콘셉트의 화보를 찍고 싶나?

코스프레를 한번 더 해보고 싶대 코스프레 완전 좋아하거든. 간호사 2탄 어떤가?(웃음)



다닝 푸

이번 할러ween데이는 어떻게 보내고 싶나?
 귀신의 집에 가고 싶다. 실은 고등학생
 때 귀신의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흰 천을 쓰고 피를 흘리고... 그때 정
 말 남자 여럿 울렸지.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기억을 꼽자면?
 교통사고를 두 번이나 당했다. 여섯 살 때
 놀이터에서 놀다가 롤러스케이트를 타
 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하마터면 지프 트
 럭에 깔릴 뻔했다. 트럭이 급정지했으니
 망정이지. 또 한 번은 안전벨트를 안 채
 우고 택시를 탔다가 택시가 급브레이크
 를 밟아 앞으로 튀어나간 적이 있다. 입술
 이 찢어졌다.

**남자들은 할러윈 파티에서 어떤 코스튬을
 해야 섹시해 보일까?**
 버스데이 수트(Birthday Suit)? 그러니까
 태어날 때 복장 그대로! 조금 징그러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정도는 돼야 섹시하다
 고 할 수 있는 거 아냐?(웃음)

코르셋 에블린
 팬티 르페
 팔찌 페르소나



COMING UP SOON!
2012 MISS MAXIM 콘테스트
FINAL 4인방의 뜨거운 4강 화보 풀버전

- 책에 못 실은 B컷 모음집이 10월 6일 전국 서점과 앱스토어에 출시된다!
- 버리긴 아까운 쟁쟁한 미공개 컷 대방출
- 화보를 추려내야만 하는 에디터들의 사진 선정 토크
- 화보 촬영 현장 미공개 영상 풀버전
- 너무 훌륭해서(?) 실을 수 없었던 화보 비하인드 스토리

MAXIM 최초의 스페셜 에디션
아냐, 이거 정규 에디션보다
재밌다 그러면 어뜨카지?

MISS MAXIM 추천!
할러윈데이 공포 영화

다닝 푸: <링>

현아: <쏘우> 역시 똥줄 타는
영화가 재미이지!

수아: 무서운 걸 보면 잠을 못
잔다. 공포 영화를 왜 봐?

상미: 귀신이 나오는 공포
영화보다는 현실성 있는
공포가 더 무섭다. 무인도에
감하는 얘기라던지...



우승을 한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건가?

현아: 기생. 기생 화보를 위해 머리를 길게 기를 의향도 있다.(웃음)

상미: 교복? 아니면 기모노 아, 섹시한 느낌의 웨딩드레스는 어떨까? 좀 찢기도 하고 말이지.

자, 강력한 라이벌을 한 명씩 꼽아보자

상미: 다닝 푸. 얼굴이 정말 예쁘다. 여자들은 몸매보다 얼굴을 보잖아?

현아: 엄상미. 예전부터 두려운 존재였다.

다닝 푸: 엄상미. 섹시미에 귀여움까지 갖춰서 매력적이다. 팬이다!

오늘 자신의 핼러윈 코스튬에 점수를 매긴다면?

상미: 10점.

현아: 10점.

수아: 10점.

다닝 푸: 8점..?



엄상미



다른 MISS MAXIM 도전자들에 비해 당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점은?

나는 얼굴이 뛰어나게 예쁘거나 몸매가 찌는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골고루 갖추고 있다는 것 같다.(웃음)

핼러윈데이에 뭘하고 놀 건가? 우리랑 같이 클럽에 가는 건 어때?

이래 뻔도 클럽은 별로 안 좋아한다. 당신 생각만큼 잘 노는 여자는 아니다.(웃음)
평소엔 집에서 놀거나 친구들이랑 쇼핑을 간다. 등산도 하고.

거짓말인거 다 안다! 얼마 전 당신이 포토월에 등장한 사진을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봤다.

그라비아 모델 보러 갔다가 사진 찍힌 걸 말하는 건가? 당신처럼 나도 어리고 예쁜 여자들을 보는 걸 좋아한다.(웃음)

가식적이지 않은 모습이 좋다. 알려진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사실 소속사의 농간인 경우가 많다.(웃음)
예전에 집 앞에 있던 정자에서 자느라 매니저 전화를 못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 후 "고3 생활에 지쳐 힘들 때면 밤하늘의 별을 보며 쉬곤 한다"라는 기사가 나가더라. 지금 생각해도 너무 창피하다.(웃음)





최현아

입틀에볼 양과의 막판 접전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대선만큼 뜨거웠다.

투표를 시작하는 날부터 2~3일간은 내가 이기겠다 싶었는데 막판에 다 따라잡혀서 완전 마음 졸였다. 1표 차이로 이겼을 땐 쾌재를 불렀다!

최종 우승을 한다면 우승 기념 문신을 따로 할 계획은 없나? MAXIM을 새긴 다든지...

따로 할 예정은 없지만 지금 있는 불사조 문신 위에 채색을 해보고 싶다. 불사조인데 다들 봉황이라고 오해해서 불 효과를 좀 넣어볼까 한다.

오늘 촬영할 때 입었던 의상을 평소에도 입고 다닐 수 있나?

솔직히 난 입고 다니고 싶다. 노출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편이라 평소에도 가슴이 파이거나 어깨가 드러나는 옷들을 자주 입는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게 문제지. 남들 시선만 아니면 얼마든지 입고 다닐 의향이 있다!

핼러윈 하면 귀신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지. 귀신 본 적 있나?

4일 연속으로 똑같은 남자 귀신한테 가위를 눌렀다. 몸을 막 더듬길래 '귀집'인 줄 알았다... 더 무서웠던 건 옆방에 살던 친구도 똑같은 귀신에게 가위눌린 적이 있었다는 거다!

코르셋 애플린
팬티 저스트마이사이즈





엄빠주의
미공개 촬영
현장



이달의 뭉뚱 사진

잡지에 미쳐 싶지 못한
이슈운 미공개 컷 대공개!



국군의 날 특집 화보
(118~126p)
뭉 쓴 이유: 여자한테
발로 차이면서 좋아하는
M 성향의 남자 모델이
기분 나빠서

하얏하얏! 어서
날 괴롭혀줘!



이 새끼들은
뭐지?

기타의 신 김도균 (42~43p)
뭉 쓴 이유: MAXIM달이 루비루비하는 에디터들의 끈직한 표정을 가려서



(동일 인물)

'호박 램프 만드는 법'
(26p)
뭉 쓴 이유:
똥을 처먹는 것 같아서



'로드 FC 009'
(136~139p)
뭉 쓴 이유:
철조망에 갇힌 남의철
선수의 영등이가
혐오스러워서

이달의 도전 과제



이제 영등이
때려줘잉♥

말풍선
달라가기



● BEAT THIS CAPTION ●

WINNER

지난달 우승자

로드 FC의 무패 왕자 남의철 선수를
맹인 파이터로 만들어버린 용기와 되
도 않는 점자 섹드립이 가상하다.
(근데 무슨 의미인진 모르겠어, 시발!)
당신이 로드 FC 009에서 토류를 복날
개 패듯 발라버린 그의 경기를 미리
봤다면, 이렇게 용감한 캡션은 적지 않
았을 테지... 똘지고 싶지 않다면.



점자 화보 페이지
피주세요

살살 만져라. 점자 커질라.
-맹인 파이더-

응모하기

- 원편 사진에 채지 있는 말풍선을 달라라. 그리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옥체에서 빛이 난다!
- 응모는 우편으로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로 caption@maximkorea.net 또는 캡션 달기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 달기로 하면 된다. 이름, 연락처를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 가장 MAXIM스러운 말풍선을 다는 독자에게 **에브리맨즈 투인원 시크닝 삼푸 티트리**를 선물로 주겠다.



“돈키호테”의 꿈을 향한 도전은 계속된다!

연/장/확/정!

전회 기립박수! 찬사와 감동의 관람후기!

관객 여러분의 뜨거운 호응과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브로드웨이 불후의 명작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MAN OF LA MANCHA

샤롯데씨어터 Now Playing



주최 LOTTE ENTERTAINMENT SBS 제작 CJ E&M OD오디뮤지컬컴퍼니 주관 오픈리뷰(주) KVM BOM 협찬 LOUNGE

예매 인터파크 | 오픈리뷰 | 11번가 | 예스24 | 옥션 | 티켓링크 | 클럽서비스 문의 오픈리뷰 1588-5212 www.openreview.co.kr

MAXIM



KOREA

SPORTS

신형 거미손 정성룡의 시대가 열렸다
 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골짜한 돈은 하우머치?
 로드 FC 009: 피가 튀고 살이 씹힌다
 야구 팬이라면 야구 팬타를 입자!
 축협의 헛발질 스페셜
 (축산업협동조합 말고)
 역사상 가장 비싼 주먹:
 억만장자 파이터 TOP 8

GEAR

옛지 있는 귀성길 기어:
 차량용 오줌통
 스마트폰 꺾는 노인: 아이폰5
 폭스바겐 7세대 파사트 시승기
 그거 왜 샀어?:
 캐논 파워샷 SX40HS
 BMW의 슈퍼스포츠 바이크: HP4
 (4마력 아님)

TALK

개콘 브라운니 & 정태호

SARAH SHAHI

저 여자 누구야? 당신도 한번쯤 궁금해
 했을 틈 배우이자 미드 <FAIRLY LEGAL>의
 여주인공 사라 사히가 MAXIM 미국판의
 표지를 장식했다. 한때 NFL 델러스
 카우보이스의 치어리더였다면서?

MILITARY

국군의 날 스페셜
 미스 맥심 조교의 유격 화보 일발 장전
 대한민국 국군의 읍저버,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

GIRL

신인 발굴 시리즈4: 크레용팝
 MAXIM INDIA 미스맥심
 우승자 모니카 가바

강예빈
 아놀드 슈왈제네거
 한화이글스 장성호
 MISS MAXIM
 백두산 김도균
 빅뱅 승리
 칼리굴라

ICON: 정성룡

그가 대한민국의 간판 수문장이라는 사실에
 이젠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www.maximkorea.net

